

성 경

(사도행전 ~ 유다서간)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사도행전

여러말

- 1 | 디모필로스는, 몇 번씩 책이시 라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찬양하며 다 기록했습니다.
- 2 예수님께서 당신이 뵈으신 사도들이지 상황을 통하여 본부로 내리신 나시 승환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기록했습니다.
- 3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본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하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4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거닐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이지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본을 기다려라.
-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거닐 때에 상황이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승천

- 6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시라함이 다시 나라를 일으킬 때입니까?"
- 7 그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함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 8 그러나 상황이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여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바리아, 그리고 땅 끝이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 9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신지, 구름이 감싸여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 10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우뚝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시,
- 11 이렇게 말하셨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환하신 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필사자 : 조병진 신부]

기도하는 사도들

- 12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이든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이 차가이 있었다.
- 13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자들이 묵고 있던 율름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비드로와 요한나 야고보와 안드리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아페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광원 사문과 야고보의 아들 유리아였다.
- 14 그들은 모주, 여러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한바음으로 기도가 진병하였다.

마리아를 사도로 뽑다.

- 15 그 무렵 비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서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백스무 명가량 되는 우리가 모여 있었다.
- 16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알잡이가 된 우리가 관해하는, 성령께서 다섯의 영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17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시다.
- 18 그런데 그자는 부경한 산으로 밭을 산 뒤, 거수로 썰어져 배가 파리고 내장이 모조리 쏘아졌습시다.
- 19 이 외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까지 알려져, 그 밭이 그들의 지방 말로 '하질 드야'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20 사할 사편이

'그의 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지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사른 자가 뽑혀 받지 하소서.'

위인 기록되어 있습니다.

- 21 그리므로 주 예수님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아들 가 유리아이니,

[사도 (1) 장 (22) 절]

- 22 곧 요한이 시라를 주된 과부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지 한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나다."
- 23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바스라고도 한 퀴스투스는 별명으로 지닌 요성과 아리아 두 사
랑을 앞이 세우고,
- 24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서 주님께서 뽑
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소서,
- 25 우리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
십시오."
- 26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바를 뽑게 하니, 아리아가 뽑혀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사
도가 되었다.

성령 강림

- 1 2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 2 2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저런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 3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 4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
어로 말하는 것을 시작하였다.
- 5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득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 6 1 말소리가 나와 우리를 지시 물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지바라 자기
지방 말로 들은 여러사람들이 있었다.
- 7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기 여기면서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갈릴
리아 사람들이 아닌가?"
- 8 그런데 우리가 지바라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들은 것이니 어찌 된 일인가?
- 9 왜냐하면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알람 사람, 또 이집트 사람과 유대와 카르타고 사람과 폰
토스와 아시아 사람,
- 10 프리기아와 광갈리아와 아킴즈 사람, 카르세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사람, 여기서 거

[필사자 : 조병진 베니노]

[사도 (2) 장 (11) 절]

우르논 로마인.

11 처다인과 무라모로 개종한 아들, 그리고 그레라 사랑과 아라비아 사랑인 우리가 각들이
하느님의 위성을 받하는 것을 지바라 자기 언어로 들었는지 알았는가?

12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니 어쩔 줄 몰라하며, "프래체 어찌 된 영문인가?" 하니 서로 묻하
였다.

13 그러나 라리는 '새 프로구세 회침는.' 하며 바르었다.

비드로의 오순절 설교

14 그래서 비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이 말하었다. "처다인들
과 모든 여류살림 주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어십시오.

15 지금은 아침 아홉 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회침지 않았습
니다.

16 이 모든 도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17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빛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하여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리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뿐이 나의 방증들과 여종들이지도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로 예언을 하리라.

19 또 나는 위로 하늘이사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이사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뇌와 불과 썩은 연가.

20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빛이 오기 전이

하는 아들로,

[필사자 : 조병진 씨니노]

앞은 피로 바뻐라.

- 21 '그께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 22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라시피, 나라될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까지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까지 확신케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까지 그 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 23 하느님까지 이미 정하신 계획과 여러이 따라 여러분까지 남겨지신 그분을, 여러분들은 우 범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 24 그러나 하느님까지는 그분을 죽은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이 사로잡혀 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25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 26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죽신까지 희망 속이 살리라.
 - 27 광신까지 저 영혼을 자음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시지 죽은의 나라를 아니 보지 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28 광신은 저이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언젠가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 29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까지 자신 있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죽어 유훈과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남아 있습니다.
 - 30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용의 소생 가운데서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지
것과도 하느님까지 명사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31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여
'그분은 자음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죽신은 죽은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 하고 밝히었습니다.
- 32 이 예수님을 하느님까지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필사자 : 조병진 씨니호]

[사도 (2) 장 (33) 절]

33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진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34 다윗은 하늘이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어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불쌍하셨습니다.

'내 오른쪽이 낮아라,

35 내가 나의 천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으세라.'

36 그러므로 이 사실은 집안은 분명히 알아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마찬가지로 삼으셨습니다."

개종한 첫 사람들

37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확실히 바뀌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38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최저하십시오. 그리고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체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39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볼지 모르는 모든 아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40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혹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특별한 시체로써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41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시체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 가량 늘었다.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진념하였다.

43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력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자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44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필사자 : 조병진 씨니호]

1 사도 (2) 장 (45) 절

- 45 그리고 재물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만한 대로 나누어 주신 하였다.
46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앞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찢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되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보이라 그들의 모임이 구원받은 아들을 보태서 주셨다.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쳐다.

- 1 }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세 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2 } 모래사바라 불리었던 사람 하나가 걸어서 들어왔다. 성전이 들어가는 아들이지 자신을 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보이라 '아름다운 몸' 이라고 하는 성전 몸 걸어서 들어와 놓았던 것이다.
3 그가 성전이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신을 칭하였다.
4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차분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5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6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 자릿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히됩니다. 일어나 걸시오."
7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8 걸음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성홍경 흥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9 온 백성은 그가 걸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10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몸' 걸지 않아 자신을 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른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베드로가 슬로운 주앙이시 실외하다

- 11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걸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그지 경탄하며 '슬로운 주앙' 이라고 하는 구이 있는 그치지 걸히었다.
12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려분,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여립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걸지 만들거나 한 걸치림. 왜 우리를 차분히

[필사자 : 조병진 베니노]

바라보니까?

13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이지 못하고, 그분을 속아주기로 결정한 불과도 같이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사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광선의 증 예수님을 영접하셨지 아니하였습니까.

14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끌어 들이고 칭찬하였습니다.

15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 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16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능 보인 또 아 는 이 사람을 드러내지 하였습니까. 그분에게서 온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낮추게 하였습니까.

17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한 뜻 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18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광선의 바시아께서 그분을 갓으시라라고 예언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19 그러므로 회개하인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지 하십시오.

20 그러면 다시 생가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 여 정하신 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21 물론 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광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반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22 오서는 아득히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쪽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모든 무언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23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이거나 잔치 나갈 것이다.'

24 그리고 사위임을 비록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로 지금의 아담을 예 고하였습니다.

25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주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상의 모든 증인들이 나의 주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 주신 야사삭의 주손입니다.

26 하나님께서는 광선의 증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 하나씩을

[필사자 : 조병진 씨노]

[사도 (4) 장 (1) 절]

밖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이지 복을 내리기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 범죄자 증언하다

- 1 4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이기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카이들이 다가왔다.
- 2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나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볼라기 여기고 있었다.
- 3 그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쌍아 이끌날까지 강하게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 선거 때문이다.
- 4 그런데 사도들의 믿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자가 믿게 되어, 강령한도 그 수가 오 천 경이량이나 되었다.
- 5 이끌날 우리 지도자들과 권로들과 흥남 학자들이 여러사람이 있었다.
- 6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리나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의 대사제 같은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 7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서 세워 놓고, '왕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 8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권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찬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를 신문을 밝는 것이라면,
- 10 여러분 모두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할다. 나자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든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 11 이 예수님께서

'네가 쥬 갖는 자들이지 비참을 받았지만
모든의 비참들이 되신 분' 이십니다.

12 그분 밝히는 다른 누이로도 구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필사자 : 조병진 깨니노]

[사도 (4) 장 (13) 절

- 가운뎃시에 우리가 구원받는 지시 될만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이 없습니다.
- 13 그들은 비드로와 요한의 광대함을 보고 또 아들이 무식하고 광범한 사랑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자나면 사랑스러울 것도 알지 못하였다.
- 14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랑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기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 15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 부치이사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집회까지 억누르며
- 16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떤지 가변 족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17 그러나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 한사다."
- 18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권세로 못하게 말한 가르치 지로 말라고 지시하였다.
- 19 그러자 비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외항하였다. "가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가나님 앞이 좋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 20 우리로서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1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사등 쿠행만 하느 조어 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가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건 것이다.
- 22 그 지위의 표징이 외어난 아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랑이었다.
- 공중체가 가나님께 기도하라.
- 23 이렇게 둘러싼 비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수식 사제들과 권력들이 자기들 이제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 24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간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나님께 아뢰었다.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 25 주님께서서는 심령으로 주님의 종이 저희 조상 다윗의 말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 '이러하여 민족들이 놀랄지라'

[필사자 : 조영진 베니호]

[사도 (4) 장 (26) 절]

저자들이 핑함을 꾸이는가?

- 26 주님을 거스리, 그들의 가증 부음 받은 이를 거스리
사상의 음행들이 들고 일어나서
군주들이 항하지 못했나.
- 27 사관 히로디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가증으로 부음 받은,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사갈 백성들도 항하지 못했나.
- 28 그렇지 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여정하신 일들을 다 선행하셨습니까.
- 29 이제 주님! 자들의 커함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관대히 전할 수
있지 않게 주십시오.
- 30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게 주십시오."
- 31 이렇게 기도를 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칸
님의 말씀을 관대히 전하였다.

32 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

- 32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 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든 큰 은사를 누렸다.
- 34 그들 가운데서는 흠없는 사랑이 커나갔었다. 짐이나 짐을 소유한 사랑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 35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은 기였다.
- 36 키르코스 태생의 레키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 이라는 별칭을
가진 레키아
라는 별명을 얻은 모심으로,
- 37 자기가 소유한 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필사자 : 조병진 케니노]

아네시아와 샹피라

1 5 그런데 아네시아를 사람은 그의 아내 샹피라라 함께 자기
 2 땅을 판다음 익논한 끝에 그 돈의 일부는 빼돌리고 나머지만 사도들
 3 앞에 가져다 바쳤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꾸짖었다.

“아네시아,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판돈의
일부를 빼돌렸소?”

4 팔기전에도 그 땅은 당신이었고 판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그런데 어찌하고 그런 생각을 품었소? 당신은
 사람을 속인것이 아니라 하나님

5 을 속인것이요!” 이말이 떨어지자 아네시아는 그 자리에 거꾸러져
숨지고 말았다. 이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6 두려워 하였다. 절은이들이 들어가 그 시체를 싸가지고 내어다 묻었다.

7 세 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그동안에 무슨일이 일어났지도 모르고

8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를 불러놓고 “당신들이 땅을 판돈이 이게
전부란 말이요?” 하고 묻자 “예

9 전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찌저고 당신들은 서로 찌고 주의 성령을
 떠보는것이요? 자, 당신의 남편을 묶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막 문밖에서
 이번에는 당신을 매고 나갈 차례요.” 하고 베드로가 말하였다.

10 그러자 그여자도 당장 베드로의 발앞에 거꾸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때 절은이들이 들어와보니 그 여자도 죽어 있었으므로 떠메고 나가

11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은교회는 물론이고 다른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몹시 두려워 하였다.

사도들의 기적

12 그 무렵 사도들은 백성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다.
 모든 신도는 한 덩어리가 되어

13 모든말은 행각에 관여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필사자 : 김지연 소피아]

1 사도 (6) 장 (14) 절

	기여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으며
14	주를 믿는 남녀의 수효는 날로 늘어났다.
15	사람들은 심지어 병자들을 길거리에 베고 누워 둔 것이나 요에 눕혀놓고 베르라 지나갈때 향이나 그 크림자만이라도 그 몇 사람에게 나눠갔으면 하였다.
16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라 악령이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왔는데 그들의 병도 모두 고쳐졌다.
	사도들이 받은 두번째 박해
17	대사제라 그리 일당인 사두카이파 사람들은 모두 사도들을 시기하여 들고 일어나
18	사도들을 잡아다가 자기에 감옥에 쳐 넣었다.
19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을 열고
20	돈독들 데리고 나와 "어서 가세, 그리고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은 범함없이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하고 일러주었다.
21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를 아침에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한편 대사제라 그리 일당이 모여 율회라 유대인의 원로들을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다.
22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보니 사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돌아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23	"감옥 문은 이각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4	성전 경비대장라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때에
25	한 사람이 달려다서 당원들이 감옥에 가두어둔 사람들이 지금 성전뜰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26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원들과 함께가서 사도들을 데려왔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기들을 들린 걸까 두려워 폭력은 쓰지 않았다.
27	그들이 사도들을 의회에 데려다 세워놓자 대사제가 이렇게

[필사자 : 김기선 노비아]

[사도 (6) 장 (28) 절]

	심문하였다.
28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단단히 믿어두었는데도 당신들은 어찌사건 은 예루살렘에다 당신네 교를 퍼뜨리는가?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요?
29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할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거 아니겠습니까?"
30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31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단사라 구제후로 세워 당신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32	그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이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도 그 증인입니다.
33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34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율법교사 가블리온이라는 바리새이자 사람이 의회원들 앞에 나서서 사도들을
35	장간 밖에 내버려라고 한뒤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여러분, 이 사람들을 건성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36	이전에 투다가 나타나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자 사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자취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7	그 뒤 환교사를 하던 때에든 갈릴래아 사람 투다가 나타나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한일이 있었지만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38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의 생장에서 나온 것이라면 망할 것입니다.
39	그러나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얹어두십시오. 자건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필사자 : 김지선 소피아]

[사도 (6) 장 (40) 절]

마침내 그들은 그의 권고를
 40 받아들이기로 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이 매정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41 아무말도 안하게 맺고 단단히 일러서 놓아보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물을 당하게 될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42 가벼이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과 이집거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일곱 보좌사의 선택

1 6 이 무렵 신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반도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폭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2 그래서 열두 사도가 신도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식량배급에만
 3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이 두렵고 성령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 일곱을 뽑아내시오. 이 일은
 4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만
 5 행쓰겠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이말에 찬동하여 믿음과 성령이 풍부한
 사람 스테파노나 필립보나 프로코로나 니콜라 디모과바르나메나와
 안티우키아 출신으로
 6 유대교에 개종한 니콜라오를 뽑아 사도들앞에 내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였다.
 7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신도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으며 수많은 사제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체포당한 스테파노

8 스테파노는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힘을 가득히 받아 백성들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굉장한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다.
 9 그때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소속된 키레네와 알렉산드라나

[필사자 : 김지선 스테아]

사도 (7) 장 (10) 절

사람들과 길리거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10 그러나 그들은 자혜와 성경을 받아 말하는 스테파노를

11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혹하여 "우리는 스테파노

12 가 모세와 하느님을 인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원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테파노에게 몰려가서

13 그를 잡아 의회로 끌이오게 하였다. 또한 거짓 공인들이 나서서 "

"이 사람은 언제나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들러

14 많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람에게서 나자렛예수가 이 성전을

헛고 또 우리가 전해준 관습을 뜯어 고칠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15 그러자 의회에 앉았던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스테파노에게 쏠렸고,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나 같이 보였다.

스테파노의 설교

1 7 대서제가 스테파노에게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가? 하고 묻자

2 스테파노는 이렇게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적 하란에 자리잡기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을때에 영광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3 너는 네 고장과 네 권적을 떠나 내가 일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 그래서 그는 갈대아 계방을 떠나 하란에서 자리잡고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은뒤에 하느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자음 여인들이

살고있는 이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5 그때 하느님께서는 여기에서 준비막대한 땅도 주지않고서 다만

그의 후손에게 이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때는

아적 아브라함에게

6 자손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필사자 : 김지진 (10월 10일)]

[14권 (7)장 (7)절]

7	외국 땅에서 사백년동안 나대고 있으면서 종살이를 하며 학대를 받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랴고; 그뒤에 그들을 돌아오게하여 여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랴고. 고도 말씀하셨습니다.
8	그리고 그계약의 표로서 할례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낳아서 여드레 만에 할례를 베풀었고 이사악도 자기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은 자기 열두 아들 곧 우리 대선경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9	그런데 이 선경들은 그들의 동성 안팎을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쫓아버렸습니다.
1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어려움을 견져내셨고 그에게 은총과 거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같은 안팎을 이집트의 총리인 세위 자기의 문 용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11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은지역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모두 큰 재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모두 큰재난을 겪었는데 우리 조상들도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12	이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13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다시 보냈을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 관계가
14	파라오에게 밝혀졌습니다. 안팎은 사람을 범하여 자기 아버지 야곱과 일흔 다섯이라 되는 친족을 모두 인하여 하셨습니다.
15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고. 우리 조상들은 죽을때까지
16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세겔으로 운반되어 그곳 묘지에 묻혔는데 그것은 전에 아브라함이 세겔에서 살던 히물 자손에게 유언을 주던 사두었던 것입니다.
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된 약속을 이루실때가 가까워지자 우리 백성은 배성에서 온 이집트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18	그런데 요셉의 비락을 일거 못하는 다윗왕이 이집트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필사자 : 김기진 소니아]

[사도 (7) 장 (19) 절

19	이 임은 우리 거리에게 교활한 짐승을 써서 우리 죄방들을 학대하였고 간난 아가들은 내어다 버리게 하여 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0	모세가 태어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는 식당동안 아버지
21	집에서 자랐고. 그 부모가 내어다 버린 뒤에도 하나님의 영이 데려가다.
22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많은 학문을 배워 문장사형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23	모세는 마흔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아
24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이집트사람에게 학대 받던 것을 보고는 그의 편들 들어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업혀받은 그 동족을 위해서 앙갚음은 하였습니다.
25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려 동족을 구해 내리 하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을 줄을 알았으나 그들은 비켜 깨닫지 못했습니다.
26	이튿날 동족 두 사람이 서로 싸워 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당신들은 한 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로 물고 물고 하니까?"
27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동족을 학대하던 사람이 모세를 데려와서 "누가 당신을 죽여 주마
28	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야? 이제는 이집트 사람은 죽어라 오늘 나를 죽일 셈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29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쳐나와 미디안 땅에 가서 살았고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30	사십년이 지난 어느날 모세는 시나이 산 광야에 있었습니다. 저너머 한 뉘살이 개나무 덩굴 숲길목에
31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귀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2	나는 네 정령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악의 하나님. 야곱의

[필사자 : 김지선 모티이...]

[사도 (7) 장 (33) 절

	하느님이다." 이 음성들 듣고.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33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신과 같은 신을 보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34	거룩한 땅이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을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그들의 신음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온 것이다. 자.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35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던 말이요?" 하며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그 개나무 덩굴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손을 빌려 거기에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여.
36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는 물론 홍해를 건너갈 때나 광야 생활 사십년동안에 여러가지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면서
37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당신들의 형제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뽑아 보내실 것입니다'. 하느님 일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38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모여 있을 때에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받아
39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재쳐 놓았고. 반응은 벌써
40	이집트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해낸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41	그들의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귀들의 손으로 만든것을 삼가며 즐거워
42	하던 때가 바로 이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은 하염없이 하늘의 별들을 삼가게 내버려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사십년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필사자 : 김지선 소피아]

I 사도 (7) 장 (43) 절

나에게 희생물과 제물을 바칠일이 있었느냐?’

43 너의는 몰록 신의 장막과 레파산의 별을 떠먼 대켰다 .

그것들은 너희가 삼계려고 만든 우상이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제편으로 쫓아버리라” 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

44 우리 전성들은 광야에 있을때에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것은 만세가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만든것인데 하느님께서만 만세이기에
만령을 보여주며 그대르 만들라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

45 우리 전성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았습니다 . 여한도아때에 하느님께서 우리
전성들앞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시어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하시자 .
장막을 그리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

46 다윗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어서 . 야곱의 후손을 위하여 성령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47 성령을 받은 사람은 슬로본이었습니다 .

48 그러나 각국히 노리신분은 사람의 손으로 받은 것에는 사지 않습니다 .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49 귀님의 말씀을 들어라 .

하늘은 나의 목자임 .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줄 것이여 내가 수컷이 어디냐?’

50 이 모든것이 다 너 손으로 만들것 아니냐?

51 이 교도의 마음과 귀를 가진 이원한 사람들이여 . 당분들은 당신들
죄악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

52 당신들은 전성들이 방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란은분이 와서라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제 만민들은
바른 과분을 배반하고 죽입니다 .

53 당신들은 천사들에게서 하느님의 율법을 받고도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데테라노의 순교

[필사자 : 김지선 소도이아]

[사도 (7) 장 () 절]

- 54 악화됨들은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 55 화가 치밀어올라 이를 갈았다. 이때 스테파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은
우러러 보니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오름편에 서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 56 그래서 그는 "아. 하늘이 열려있고 하늘의 오름편에 사람의 아들이 서
계신것이 보인다." 하고 외쳤다
- 57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리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스테파노에게
- 58 함께번에 달려들어 성밖으로 끌어내려서 돌로치기 시작하였다.
그 거짓 증인들은 겹옷을 벗어 서로이
- 59 라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돌로 칠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 60 그리고 무릎 꿇고 큰소리로 "주님, 이리저 저 사람들에게
거우지 마나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사도 (8) 장 (/) 절]

1 8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등하고 있었다.

교회가 박해를 받다

2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3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특실한 사람 몇이 스테파노의 장사를
4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 하였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5 들어가 남자를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박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다

4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5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 하였다.
6 관용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바탕으로
7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불이 있던 더러운 영들이
8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증풍 병자와 불균사가 나았다.
9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10 그 고을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음을 부려
11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 댔다.
12 그리하여 아이메서 들은이메 이르기까지 모두, "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
13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14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바술로 그들을 놀라게
15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16 복음을 전하는 필리포스를 받게 되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
17 시몬도 받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필리포스 길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18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 하였다.
19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20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21 심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필사자 : 안보영 권마]

[사도 (8) 장 (16) 절]

16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경에서 내리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17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경을 받았다.
18	새로운 사도들의 안수로 성경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19	"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경을 받을 수 있게 해
20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21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생각하였으나, 그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22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가 재시할 몫도 자라도 없소.
23	그러나 그는 그 액을 내리고 해하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혹시 그가 마음에 품은
24	그 의도를 용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여기에서 그는 썩 쓸계급과 불의의
25	포동속에 갇혀 있소." 그러자 사문이 대답하였다. " 어리석은 일이 저에게
26	벌어지지 않도록 기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27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28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 내시
29	주님의 권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디를 내려가는 길을 따라
30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판길이다."
31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32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관원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33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34	그때에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 가서 저 수레에 배석 라라." 하고 이르셨다.
35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 지금 읽으시는
36	것을 알아 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37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타 자기 곁에
38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39	" 그는 양치령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40	필 깎는 사람 앞에서 장자로 서있는 어린 양치령

[필사자 : 안보영 점마]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33 그는 글로초에게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되었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 하라? ”

34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 칭찬대 대답하네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35 누를 두는 하는 말입니까? ” 필리포스는 입을 열며 이 성경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께

36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곳에 이르자

37 내시가 말하였다. “ 여기엔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

38 겠습니까? ” 그리고 나서 수레를 세워라고 명령 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39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들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40 기뻐하며 제 갈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사울이 회심하다.

1 9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벌이며 다스리미게 가서,

2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시한을 쫓아왔다. 사울은 길을 따르는 아들을 찾아
네기만 하면 남지든 여지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3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4 등뒤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

5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 하고 묻자

6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안으로 들어가라.

7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알려 줄 것이다. ”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지만

8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9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동안
안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동안 그는 명지도 않고 매지도 않았다.

10 다마스쿠스에 히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중에 “ 히나니아야 ! ”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 예, 주님 ”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일어나 ‘겔보갈’

[필사자 : 안보영 김마]

[사도 (9) 장 (11) 절]

11 이라는 거리를 가서, 유대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12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상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가 자기에게 안수하며 다시
 13 볼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보았다. "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 큰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
 14 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멋진 것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15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
 16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렀다. "거봐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17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18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받아가 하느님 그에게 보여주겠다. "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19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내게 말하였다. "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20 보고 성경을 읽어내시도록 주님께, 큰 감성이 이미 오는 길에 내려신 예수님께서 나를
 21 보내셨습니다. " 그러자 큰 사울의 눈에서 내들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22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가운을 차렸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빛음을 선포하다

20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자전뒤, 준비도 여러 회중에서
 21 예수님은 하느님의 이등방이라고 선포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사람은
 22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잡은 자가 아닌가?" 라고 하였다.
 23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대키아임을 증명하며,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
 24 들을 강복하게 만들었다.

사울이 포신하다

23 그렇게 꽤 긴 시간이 지나지 유대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그들의
 24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고 있었다.
 25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레저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
 보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필사자 : 안보영 짐마]

[사도 (9) 장 (26) 절]

26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27 그가 제사장직을 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시도할까기 데라까지,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뵈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
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개히 선포하였는지
29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시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개히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리스에 유대민들과 이야기도 하고 들으드 하였다.
30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믿어버리려고 바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라르수스로 보냈다.
31 이제 요한은 유대라 갈릴라아라 시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서서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면서 성경의 권리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베드로가 중풍 병자를 고치다.

32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다니다가 리라에 사는 심드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33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골년 걸버러 침상에
34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
35 일어나 침상을 정리하십시오." 그러자 그는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그러자 사울의 모든
주인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

베드로가 도르카스를 다시 살리다

36 야플에 리베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37 한다. 그는 성경과 자신을 많이 한 사랑하였는데 그 무렵에 병에 걸려 죽었다.
38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목상 방에 넣어 놓았다. 리베타는 야플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거기들은 베드로가 리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39 "자네까지 빨리 리라에 간디라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마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목상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 올면서, 도르카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40 때에 지어준 옷과 걸음을 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내시 문으로 높은 기둥을 드러내며 사신으로 돌아서 "리베타, 일어나시오." 하고

[필사자 : 안병명 전마]

[사도 (9) 장 (40) 절]

40	말하였다. 그러자 그녀가 눈을 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41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이난	
42	도리스를 보여 주었다. 이 일이 이같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수음을 받게 되었다.	
43	베드로는 한동안 아들에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코르넬리우스가 환시를 보자.	
1	70 코르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채라고 불리는 군대	
2		의 백인 대장이었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3		유대 백성에게 많은 재물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어느날 오후 세시쯤, 그는
		환시중에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찬사가 들리자 "코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4		흔히 보았다. 그는 찬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잠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찬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의 기도나 네의 자선이 하나님 앞으로
5		올라가 좋게 기쁘고 있다. 이제 아들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6	하려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7	코르넬리우스는 자기에게 말하러 찬사가 떠나자 짐승 두 사람과 자기에게 데리고 오는 새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모든 말을 이야기해 주고 내시 아들로 보냈다.	
	베드로가 환시를 보자	
9	이튿날 길을 가던 그들이 그 도시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정반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큰 아미르 같은	
	그것이 내려와 네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 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네발 달린 짐승들과	
	뿔이 길쭉은 새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신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두번째로 신리가 들려	
	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실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세번 거듭된	
	내시 그 것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필사자 : 안보영 쌤마]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가

- 17 지기가 본 환자가 무슨 뜻일까 하며 베드로가 속으로 여러번 생각해 하고 있는데 ,
18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알아내러 문간에 다가섰다. 그런 사람들을
19 불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가 환자에게 대하여 어떤
공증이 생각하고 있는데 , 생각해서 그에게 이르렀다. " 지금 세 사람이 나를 찾고
20 있다. 그러나 일어나 내려가지 주려하지 말고 그들이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21 보냈다. "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 내가 바를 여러번이 찾는 사람
22 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 인종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다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코르넬리우스 백인대장이며,
선생님을 경외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시라는 지시를 기록한 편사에게서 받았습니다. "
23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하며 그곳에 묵기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 아굴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24 그다음날 그는 케사리아에 들어갔다.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25 불러 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나서
26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
27 입니다. "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28 모여 있는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 유다 사람에게서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29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되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에 이리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
30 그러자 코르넬리우스가 대답하였다. " 나를 낀 내로 이맘때 곧 오후 사시에 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눈부신 빛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31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코르넬리우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들을 들어주었고, 너의 자신을 기억하고
32 계시다. 그러니 야푸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33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 그래서 내가 곧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낸것인데
참 잘 와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 선생님께 감사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함께
하느님앞에 모였습니다. ")

[필사자 : 안보영 정마]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살오하다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35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강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36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구원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핌 자손들에게
37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하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이에서 시작하여
38	온 유라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나님께서 나라를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말을 하고 악마에게 쫓겨나는
39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뉘게 매달아 죽였지만,
40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41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냈습
	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를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진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42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강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43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
	모든 예언자가 증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
	다른 민족 사람들이 성령을 받다
44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45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46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민어를 말하면서
47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48	이 사람들에게 물을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수 있겠습니까? "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들에게 작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여쭙러 머물러 말라고
	청하였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 1 **11**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 2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때에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 3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였다.
- 4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 5 "내가 야포 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어경 속에서 환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아따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네 모퉁으로 내려앉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 6 내가 그 앓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피니, 이 세상의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 7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 8 나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번도 제 입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 9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 10 이러한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 11 비로 그때에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와 섰습니다. 쾨이시리아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이들이었습니다.
- 12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 13 그는 천사가 자기 집 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문을 데려오게 하여라.'

[필사자 : 장세란 세실리아]

14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 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15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16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7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에게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18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외저의 길을 열어 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안티오키아에 교회를 세우다
19	스티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나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20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21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22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23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전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려고 격려했다.
24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25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들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필사자 : 장세간 세실리아]

26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일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안티오키아 교회가 유대 지방의 신자들을 돕다

27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28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라는 이가 나서서, 장차 온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언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29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군 헌함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30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편에 원로들에게 보냈다.

야리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다

1. 12 그즈음 헤로데 압기라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었다.

2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리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3 유대인들이 그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4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네 명씩 짝 네개의 경비소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피스카 축제가 끝난 뒤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5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다

6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밤, 베드로는 두개의 쇠사슬에

[필사자 : 장세란 세설리아]

[사도 (12) 장 (7) 절]

	<p>문을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지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p>
7	<p>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리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p>
8	<p>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매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겜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p>
9	<p>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라니 생각하였다.</p>
10	<p>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간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 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p>
11	<p>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리새인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p>
12	<p>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따르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p>
13	<p>베드로가 바깥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p>
14	<p>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 주기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p>
15	<p>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p>
16	<p>베드로가 잠든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p>
17	<p>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 일을 야벳과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p>
18	<p>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p>

[필사자 : 장세관 세실리아]

19 헤로데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파수병들을 문초한 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 카이사리아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로데가 죽다

20 헤로데는 티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회가 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뜻을 모아 헤로데에게 갔다. 그리고 임의 시종장 블리스토스를 설득하여 회평을 청하였다. 그들이 지방이 임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1 정해진 날에 헤로데는 화려한 임의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22 그때에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23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다. 그가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라

24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지리면서 널리 퍼져 나갔다.

25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되다

1 **13**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나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2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오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떠론 세워라."
3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키프로스에서 선교하다
4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라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5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모함을 조속로 데리고 있었다.
6	그들이 모 섬을 가로질러 피포스에 다다랐을 때에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대인으로서 바르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7	그는 슬기로운 사람인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의 수행원 가운데 하나였다.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8	그러나 그리스 말로 마술사를 뜻하는 그 엘림마스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다.
9	그때에 바오로라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보며
10	말하였다. "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악마의 지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길을 왜곡시킬 셈이요?"
11	이제 보시오,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놓여 있소. 당신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즉시 짙은 어둠이 그를 덮쳐, 그는 사방을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12	그때에 그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게 되었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선교하다
13	바오로 일행은 피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4	그들은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필사자 : 장세란 세셀리아]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15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립을 보내어, " 형제들이여, 백성을 격려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6 그러자 바오로가 일어나 조용히 하리고 손짓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말들 들어 보십시오.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할 때에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 주셨으며, 광야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18 그리고 약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19 가나안 땅에서 밭을 밟을 때에 그 땅을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주셨는데,

20 그때까지 약 사백오십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울의 때와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 주시고,

21 그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벤야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사십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22 그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23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24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세례를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25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 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26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피경되었습니다.

[시도 (13) 장 (21) 절]

24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25	그들은 시험에 처할 아무런 죄로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려고 벨라도에게 묘사하였습니다.
29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3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31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심과 함께 갈릴래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32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3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이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34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리시어 다시는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35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가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36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서 잠든 다음, 조상들 곁에 묻혀 죽음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37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는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38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39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모든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필사자 : 장세란 세실리아]

40 그러나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41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리다 망해 버려라.

내가 너희 시머에 한 가지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어도 너희가 도우지 믿지 못할 그런 일이다."

42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 달라고 청하였다.

43 회당이 흠어진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45 그 군중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46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47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48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49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50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51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코니움에서 선교하다.

1. ¹⁴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코니움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믿게 되었다.
2. 그러나 믿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자극하여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3.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당대히 설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명을 통하여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어, 당신 양에 관한 그들의 말을 확인해주셨다.
4. 그리하여 그 도시 사람들이 둘은 갈라져, 한쪽은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다른쪽은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5. 그런데 다른 민족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저희 지도자들이 특별히 사도들을 괴롭히고 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6.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일을 알아채고 리카니아 지방의 도시 리스트라와 데르베라 그 근방으로 파해갔다.
7.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리스트라에서 선교하다.

8. 리스트라에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양모병으로 태어나 한번도 걸어 본 적이 없었다.
9. 그가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있었는데, 그를 유심히 바라본 바오로가 그에게 구원 받을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10. "두 발로 똑바로 일어나시오" 하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걸기 시작하였다.
11. 군중은 바오로가 한 일을 보고 리카니아 말로 목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필사자 : 우윤정 마리아]

[사도 (14) 장 (12) 절

12. 그들은 바르사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 부렸는데, 바오로가 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13.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는 항상 몇 마리아 하한은 문으로 가지고 와서, 공중과 함께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14. 바르사바와 바오로 두 사도는 그 말을 들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공중으로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15. 말하였다. "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16. 지난 날에는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17.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와 열매 맺는 적기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
18.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공중이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19. 그런데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움에서 유대인들이 독려와 공중을 석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줄로 생각하곤 도시 밖으로 끌어나가 버렸다.
20. 그러나 제자들이 독려하자 그는 익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사바와 함께 테르베로 떠났다.
- 신교를 마치고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
21. 바오로와 바르사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곤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 리스트라와 이코니움으로 갔다가 여기서 안티오키아로 들어갔다.
22.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곤 계속 믿음에 충실하리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헌신을 겪어야 합니다" 하곤 말하였다.

[필사자 : 우윤경 미리아]

[사도 (14) 장 (23) 절]

23.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24.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파리아에 다다라,
25.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러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26.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맡겨졌는데, 이제 그들이 고임을 완수한 것이다.
27.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 하였다.
28.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회의가 열리다.

1. 15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2.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3.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피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4.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5.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6.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필사자 : 우윤정 마리아]

[사도 (15) 장 (7) 절]

7. 오랜 노환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기 받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8.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주셨습니다.
9.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10.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수 없던 명예를 형제들의 목에 쓰이 하느님을 시형하는 것입니까?
11.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
12. 그러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울로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표징과 이적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13.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14. 하느님께서 처음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시몬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5. 이는 예언자들의 말라도 일치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 ' 그 뒤에 나는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곳의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른 세우리라.
17. 그리하여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곤 이 일들을 실행하니
18. 예로부터 알려진 일들이다. '
19.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20.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필사자 : 우윤정 마리아.]

[사도 (15) 장 (21) 절]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합니다.

21. 사실 예루살렘 각 고음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봉독하며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회의에서 안티오키아로 편지를 보낸다.

22. 그때에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의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23.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키프리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24.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가지 말로 여러분을 노략케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5.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26.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27.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28.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9.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부름~~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만 삼가면 온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0.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내자,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내려가 공동체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하였다.

[필사자 : 우윤정 마리아]

[사도 (15) 장 (31) 절]

31.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

32. 예언자이기도 한 유다와 실라스는 여러가지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33. 그들은 거기에서 한동안 지낸 뒤, 형제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받으며 자기들을 파견한 이들에게로 떠나갔다.

34. 그러나 실라스는 그 곳에 머물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유다만 떠났다.

35.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바오로가 두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다.

36. 며칠 뒤에 바오로가 바르나바에게,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을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37.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였다.

38. 그러나 바오로는 팡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함께 일하려 대니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갈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9. 그리하여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서 배를 타고 기프로스로 떠나갔다.

40. 바오로는 실라스를 선택하여 떠났는데, 형제들은 바오로를 주님의 완성을 맡긴다고 기도해주었다.

41. 그는 시리아와 키리키아를 두루 다니며 그곳 교회들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티모테오를 데리고 가다.

1. **16** 바오로는 테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산자가 된 유대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2. 리스트라와 이코니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필사자 : 우윤정 아리아]

3. 바오로는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대인 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항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 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 바오로 일행은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주며 지키게 하였다.
5.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났다.

마케도니아에 관한 환시를 본다

6.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라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7. 그리곤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8.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9.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라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곤 청하는 것이었다.
10.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필리피에서 리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11.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테아폴리스로 갔다.
12.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여침을 보냈는데,
13.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곤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14. 티아티라 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필사자 : 우윤정 마리아]

[사도 (16) 장 (15) 절

리디아라는 여지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15.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의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바오로와 실라스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16.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에 정 귀신들린 하녀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정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다.

17. 그 여자가 바오로와 우리를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자크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18. 여러날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짢아진 바오로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

19. 그 여자의 주인들은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오로와 실라스를 붙잡아 광장으로 관리들에게 끌고갔다.

20. 그리고 그들을 행정관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면서,

21. 우리 로마인으로서도 받아들이기에도 지키기에도 부당한 관습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22. 군중도 합세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공격하자, 행정관들은 두 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지시하였다.

23.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게 한 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차고르를 채웠다.

24.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차고르를 채웠다.

25.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필사자 : 유윤정 마리아.]

[사도 (16) 장 (26) 절]

26.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 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27.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28. 그때에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29. 그러자 간수가 횡복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30.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다.
31.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32.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33. 간수는 그 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34.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35. 날이 밝자 행정관들은 시종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36. 그래서 간수가 바오로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행정관들이 여러분을 풀어드리라고 시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37. 그때에 바오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스승과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안됩니다. 그들이 직접라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38. 그 시종들이 이 말을 전하자, 행정관들은 바오로와 실라스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며
39.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필사자 : 우윤정 아리아]

[사도 (16) 장 (40) 절]

요청하였다.

40. 이렇게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은 만나
적려해주고 떠났다.

[필사자 : 우 윤정 마리아.]

[사도 (17) 장 (1) 절]

테살로니카에서 선교하다

- 1 17 바오로 일행은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테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 2 바오로는 늘 하전대로 유대인들을 찾아가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 3 그는 메시아에게서 고난을 겪으신 다음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 하고 말하였다.
- 4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감복하여 바오로와 실라스을 따르게 되었다. 또한 하의נם을 섬기는 그리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랑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렇게 하였다.
- 5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거의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군중을 선동하게 하여 그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 바오로 일행을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고 그들을 찾았다.
- 6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를 시 당국자들에게 끌고가서 의뢰했다. " 온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던 자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 7 야손이 그자들을 자기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자들은 모두 예수리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법령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
- 8 이렇게 그들은 군중과 또 이 말을 듣는 시 당국자들을 자극하였다.
- 9 그러나 시 당국자들은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 주었다.

베르니아에서 선교하다

- 10 형제들은 바로 그 밤에 바오로와 실라스을 베르니아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갔다.
- 11 그곳 유대인들은 테살로니카의 유대인들보다 짐잡에서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 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볼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 12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믿게되었다. 지체 높은 그리스 여자와

[필사자 : 정시원 클라라]

[사도 (17) 장 (13) 절]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13	테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르로가 베로니아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가서 권중을 선동하고 자극하였다.
14	그러자 형제들은 곧바로 바르로를 떠나 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스와 티모테오는 그곳에 남았다.
15	바르로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레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실라스와 티모테오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아레네에서 선교하다
16	바르로는 아레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도시가 위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경탄하였다.
17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과 토론하고, 또 날마다 광장에 나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18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몇몇 철학자도 바르로와 대담을 나누었는데, 어떤 이들은 "저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르로가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방 신들을 섬겨하는 사랑인 것 같군." 하고 말하였다.
19	그들은 바르로를 아레노파고스를 데리고 가서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겠소?"
20	당신은 우리가 듣기에 생소한 것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소."
21	사실 아레네인들과 그곳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은, 모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 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22	바르로는 아레노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레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본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3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필사자 : 정지원 클라라]

[사도 (17) 장 (24) 절]

24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25	또 무엇이 부족하더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성감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6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하시고, 알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27	이제 사람들의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28	여러분은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라도 그 분이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29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30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들 분아 남겨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던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31	그분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죽임 이틀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들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
32	죽음 이틀이 부활에 고향하여 들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 그 짐에 고향해서는 다음에 다시 들겠소 " 하고 말하였다.
33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34	그때에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많게 되었다. 그를 가운데에는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데마리스라는 여자와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코린토에서 선교하다
1	18 그 뒤에 바오로는 아레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2	거기에서 그는 톨로스 출신의 아퀼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다. 아퀼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려기

[필사자 : 정자원 클라라]

[사도 (10) 장 (3) 절]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보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3	파침 생업이 같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전막을 판다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4	바보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5	실라스와 디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 온 뒤로, 바보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증명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6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보로는 옷의 띠를 툇고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7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디다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8	회당상 크리스포스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 코린토 사람을 가운데에서 바보로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9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회회 속에서 바보로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11	그러하여 바보로는 일년 육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2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보로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13	"이 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바보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드리오.
15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필사자 : 정시원 클라라]

[사도 (18) 장 (16) 절]

16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17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장 앞에서 패설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를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
18	바오로는 한 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퀼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캄코레에에서 머리를 깎았다.
19	그들은 에페소에 도착하였다. 바오로는 그 두 사람을 그곳에 따로 남겨 두고 혼자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였다.
20	그들은 바오로에게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였지만 그는 승낙하지 않았다.
21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배를 타고 에페소를 떠났다.
22	바오로는 키이사리아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다음,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23	바오로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 가면서 모든 제사들의 힘을 박동아 주었다.
	아폴로가 에페소에서 설교하다
24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쑥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25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러나 율법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26	그가 회당에서 당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퀼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느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27	그 뒤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의 제사들에게 그를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다.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심사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필사자 : 정자원 클라라]

[사도 (18) 장 (28) 절]

28	그가 성령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면서, 공명연히 그리고 확고히 유대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선교하다
1	19 아폴로가 코린도에 있을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그 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2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	바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4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는 분 곧 예수님을 믿이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5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6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예언을 하였다.
7	그들은 모두 영두 사랑삼 되었다.
8	바오로는 석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교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9	그러나 몇몇 사람이 회중 앞에서 주님의 길을 험뎠으며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 하자, 바오로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날마다 티란노스 학원에서 토론을 벌였다.
10	이 일이 두해동안 계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인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오로가 기적을 일으키다
11	하느님께서는 바오로를 통하여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12	그의 살갓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사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필사자 : 정자원 클라라]

[사도 (19) 장 (13) 절]

13	그러자 구마자로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까지도 "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악령들인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14	그런데 스게우사라는 유대인 대사제의 일곱 아들이 그렇게 하자,
15	악령이 그들에게 " 나는 예수로 알고 바오로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였다.
16	그때에 악령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에, 그들은 목이 뱉겨지고 상처를 입어 그 집에서 달아났다.
17	이 일이 에페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18	그러자 선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해묵 행실을 습김없이 고백하였다.
19	또 마술을 부리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 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 책들을 값으로 파져 보니 은돈 오만 냥이치나 되었다.
20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더욱 힘차게 자라고 힘을 떨쳤다.
	에페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다
21	이런 일들이 끝난 뒤, 바오로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2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협력자들 가운데에서 디모테오와 에라스모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동안 아시아에 터 머물렀다.
23	그 무렵 주님의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24	데메트리오스라는 운장이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상 모양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다.
25	데메트리오스가 그 장인들과 몇 같은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직업을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26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저 바오로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에페소만이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지방에 걸쳐

[필사자 : 정지훈 클라라]

[사도 (19) 장 (27) 절]

	수많은 사랑을 설득하고 유인하였습니다.
27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나쁜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마침내 온 아시아와 온 세상이 동배하는 이 여신에게서 위험마저 상실하실 위험에 놓였습니다."
28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경복하여,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쳤다.
29	그래서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바오로의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스와 아리스타르코스를 붙들고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갔다.
30	바오로가 관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막았다.
31	바오로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로들도 바오로에게 사랑을 보내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32	한편 여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집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여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33	그때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로스를 앞으로 밀어내자, 관중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그에게 상황을 이야기 해 주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조용히 하라고 순종하고 관중에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34	그러나 관중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두 시간 동안이나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댔다.
35	마침내 서기관이 관중을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페소 시민 여러분, 에페소인들의 도시가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6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7	그런데 여러분은 신전 강도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만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는 안 됩니다.
38	데메트리오스와 그의 동료 장인들은 누구를 걸어 송사할 일이 있으면, 법정이 열려있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끼리 고소하십시오.
39	그리고 다른 싸움이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하십시오.

[필사자 : 정지연 클라라]

[사도 (19) 장 (40) 절]

40 사실 우리는 양들의 일 때문에 소모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의 사유가 없으면 우리는 이 난동을 해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집회를 해산시켰다.

[필사자 : 정자원 클라라]

바오로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가다

- 1 20 그 소동기 가라앉은 뒤에 바오로는 제자들을 불러 오게 하여 그들을 격려한 다음, 각별히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 2 바오로는 그곳 리방들을 거쳐 가는 동안에 신자들을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면서 그리스까지 갔다.
- 3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낸 뒤에 배를 타고 시라아코 가려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미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 4 베로이아 사람 피로스라 아들 소파테그, 테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르쿠스와 시몬두스, 트로아 사람 가이우스, 리모테온, 아시아 사람 리키니우스라 트로피모스가 바오로나 동행하였다.
- 5 이들은 트로아스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렸고,
- 6 우리는 유교질이 지낸 뒤에 필리피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그들과 합류하여, 그곳에서 이레 동안 지냈다.

트로아스에서 에우티코스를 되살리다.

- 7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 8 우리가 모여 있던 지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 9 그런데 에우티쿠스라는 젊은이가 창문에서 걸터앉아 있다가, 바오로가 걸터 이야기하는 동안 잠에 빠졌다. 그렇게 잠에 취하여 그만 상층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 10 바오로가 세례가 에우티쿠스에게 댈드려 그를 끌어안고,

[필사자 : 류 정연 릿다]

[시도행전 (20) 장 (11) 절]

" 걱정하지들 마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11 바오로는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나누고 또 식사를 한 다음, 날이 셀 때까지 오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떠났다.

12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크게 기쁨을 받았다.

트로아스에서 밀레토스까지 항해하다

13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스로 떠났다. 거기에서 바오로를 배에 태울 참이었다. 바오로가 거기까지 육로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14 우리는 아소스에서 바오로를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마틸레비코 갔다.

15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키오섬 앞바다에 이르렀고, 다음 날 사모스 섬에 들렀다가 그다음 날에는 밀레토스에 다다랐다.

16 바오로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페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는 도둑 환수권은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다.

에페소 원로들에게 개별 인사를 하다.

17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18 그들이 자기에게 오라 바오로가 말하였다. "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9 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필사자 : 류 정연 님]

[사도행전 (20) 장 (20) 절]

- 20)라고 유명한 것이면 무엇 하나 배놓지 않고 회중 안에서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가르쳤습니다.
- 21 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화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22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 사울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 23 다만 두렵고 황난이 나를 가라앉혀 주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도에서마다 알려 주셨습니다.
- 24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를 하나님 은총의 부름을 증언하는 길을 다 바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 25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
가운데에서 아무도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 26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의 멸망에 대해서도 내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모든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 27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배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 28 여러분 각인과 모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
분을 양 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영신 교회를 들보게 하셨습니다.
- 29 내가 떠난 뒤에 사탄의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 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 30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끌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 31 그러니 내가 삼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진한 것을 명심하여 늘 깨어 계시
십시오.

[필사자 : 류 정연 님]

[사도 행전 (20) 장 (32) 절]

- 32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 33 나는 누워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 34 나더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 35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게 약한 이들을 거두어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
- 36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 37 그들은 모두 흐느끼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애통해하는 듯 추웠다.
- 38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리가 말한 말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 그들은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

- 1 21 우리는 그들과 레이저 배를 타고 콘스탄티노플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거기에서 다시 파타라로 갔다.
- 2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다.
- 3 키프로스가 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라쿠르 항진하여 티로에 닿았다. 그 배가 거기에서 잠을 내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 4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이레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심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말하고 바오로에게 거듭 이바기하였다.
- 5 그러나 기일이 다 차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드시 밤까지

[필사자 : 류 정민 님]

[(6) 장 (6) 절]

- 6 배양되었다. 이튿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
7 서로 각별 안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함으로 들어갔다.
8 우리는 티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미아스에 다다랐다.
9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10 이튿날 그곳을 '티나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일곱 뱃사과 가운데
11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12 머물렀다.
13 그에게는 리버 딸이 넷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 능력이 가진
14 자들이었다.
15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을 머무는 동안 유다에서 히자보스라는
16 예언자가 내려왔다.
17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발과 손을
18 걸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의미를 이렇게
20 걸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21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하고 함께 바오로에게
2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23 그에게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할면더 내 가슴은
24 아프게 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25 에서 걸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구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6 바오로가 간담히 말하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27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28 그렇게 여권을 보낸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29 올라갔다.
30 카이사리아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31 우리를 모나몬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32 그는 기르코스인으로서 도래권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필사자 : 류 정연 님]

[사도행전 (21) 장 (17) 절]

야고보를 방문하다

-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 18 이튿날 바보로는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모두 타 있었다.
- 19 바보로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의 각무 수행을 통하여 라느남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말이 이야기 하였다.
- 20 이야기들을 들은 그들은 라느남을 찬양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 바보로 형제, 보사서의 유대인을 가운데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랑들입니다.
- 21 그런데 당신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식들에게 칼례를 베풀지도 말고 우리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 22 그러니 어떻게 하신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왔다는 것을 들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 23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새것을 한 사랑이 넷 있습니다.
- 24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쟁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들이 버리를 겪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당신도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사랑을 모든 사랑이 알게 될 것입니다.
- 25 그리고 신자가 된 다른 민족들에 관해서도, 유상에게 바쳤던 레울과 피와 목줄과 축인 짐승의 고기와 물건을 삼가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를 써 보낸 바 있습니다.
- 26 그래서 바보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쟁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쟁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그들 각자금 크기의 예물을 바칠 날을 신의하였다.

[필사자 : 류 정현 닷다]

자신을 변호하다

32 그렇게 진지 안으로 불러 들어가던 순간에 바오로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소?" 하고 천인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되물었다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요?"

33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객 사천 명을
이끌고 항아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냐?"

34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 나는 유다 사람으로, 킬리카야의 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의 시민이요. 황천대 내가 지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40 천인대장이 허락하니, 바오로는 그 흥회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리하여 아주 잠잠하니라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1 22 "부형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해명은
들어 받으십시오."

2 그들은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듣고
타국 조망해졌다. 바오로가 계속 말하였다.

3 "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기야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래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4 또 선각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5 대사제와 온 천군단도 나에게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처한까지 발사 대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필사자 : 주 정연 있다]

성전에서 체포되다

- 27 그 이레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오로를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 28 외쳤다. " 이스라엘인 여러분,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 29 그들은 전에 에페소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바오로가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 30 그래서 온 도사가 소란해지면서 백성이 물려 들었다. 그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닫혔다.
- 31 그들이 바오로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그곳 부대의 천인대장에게 올라갔다.
- 32 그는 바로 군사들과 백인 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 갔다. 그들은 천인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오로에게 애걸하는 것을 멈추었다.
- 33 그러자 천인대장이 다가가 바오로를 붙잡고 쇠사슬 두 개를 그를 걸박하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워서 무슨 일을 하겠는지 물었다.
- 34 그런데 군중 쪽에서 이자들은 이렇게, 여자들은 저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천인대장은 그 소란 때문에 진상을 알아낼 수 없었으므로, 바오로를 진리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 35 바오로가 총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난폭하게 큰 바람에,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가는 수뿔이 없었다.
- 36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 그를 없애라." 하고 외쳐댔던 것이다.

[필사자 : 류 정연 님]

[사도행전 (22) 장 (6) 절]

-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6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들레를 비추었습니다.
- 7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8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 9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 10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쭙되니,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갈차 네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알려 줄 것이다 '
- 11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이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 12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이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13 그가 나를 찾아와 밤에 와서 '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 14 그 때에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 '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께를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크로주신 부를 받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 15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 16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말씀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리음 통치 받으십시오. '

[필사자 : 류 정민 컷다]

[사도 행전 (22) 장 (17) 절]

- 17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어에게 배례,
18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사랑들이 나에게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9 그래서 내가 아뢰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당마다 다니며 주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20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테파노가 피름 흘리며 죽을 때, 저 옆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지쳐 지금까지 하였습니다.'
21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가거라. 나는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

로마 시인원을 행사하다

- 22 유대인들은 바오로이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소리를 높여, "러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 버려야 한다. 살려 두어서는 안된다." 하고 외쳤다.
23 그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걸음을 벗어 내던지며 공중에 번지를 날려 대자,
24 천인대장이 바오로를 낚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채찍질로 바오로를 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오로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까닭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25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족 문제로 바오로를 단단히 묶자, 바오로가 옆에 선 백인대장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채찍질해도 되는 것이요?"
26 이 말을 들은 백인대장이 천인대장에게 가리,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보고 하였다.

[필사자 : 류 경연 님]

[사도행전 (22) 장 (22) 절]

22 천인대장이 바오로에게 가서, " 나에게 말해 보시오.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 라고 물으니, 바오로가 " 그렇소." 라고 대답하였다.

28 천인대장이 "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얻었소." 하자, 바오로가 "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소." 하였다.

29 그러자 바오로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곧 물러났다.

천인대장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결박해 놓은 길로 두려워하였다.

최고 의회에 출두하다

30 이튿날 천인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오로를 고발하는지 확실하게 묻자, 바오로를 풀어 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오로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필사자 : 류 정연 님]

- 1 [23] 바르사가 최고 의회 의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년까지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 2 그러자 헤베나스 대사제가 그 곁에서 잇는 자들에게 바르사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 3 그 때에 바르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회철한 벼 같은 자,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율법이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 있기에서, 도리어 율법을 거스려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요?"
- 4 그 곁에서 잇는 자들이 "하느님의 대사제를 욕하는 것이요?" 하자,
- 5 바르사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분이 대사제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네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6 그리고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르사는 최고 의회에서 이렇게 떠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잇는 것입니다."
- 7 바르사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 8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 9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들에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를 이사람에게서 아득 갈뚱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더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 10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대장은 바르사를 그들에게 쫓겨 죽지 않음까 염려하여, 내려가 그를 가말라에서 바르사를 배내어 정지 안으로 데려가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 11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르사의 앞이 서서히 그에게 이르렀다. "동지를 내

어라, 너는 대추산넙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

12 날이 밤자 유대인들은 모의를 하고,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무죄로 남고 마지라도 양죄라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리라.

13 그후에 가말란 자는 마흔 명이 넘었다.

14 그들이 수석 사제들과 율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15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바오로에 관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꾸미, 다음 회고 의회 위원들과 함께 천인대장에게 가서 바오로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잡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6 그런데 바오로의 생질이 그 새벽 계축을 듣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 바오로에게 알려 주었다.

17 바오로는 백인 대장 한 사람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에게 알려 줄 것이 있다고.” 하고 말하였다.

18 그래서 백인대장이 그를 천인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하였다. “수인 바오로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천인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9 천인대장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나에게 알려 줄 것이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20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오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신문하려는 것처럼 꾸미, 내일 그를 회고 위원으로 데리고 내려오도록 천인대장님께 청하기를 합의하였습니다.

21 그러나 그들은 믿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에서 마흔 명이 넘는 사람이 바오로를 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오로를 잡아 버리기 전에는 무죄도 남고 마지라도 양죄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추고 천인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사자 : 강윤성 모니카]

22 천인 대장은 "이 사상은 나에게 알려지 않은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라고 지시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바르로가 카이사리아로 송옥에게 인도되다.

23 천인대장은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아홉시에 카이사리아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한 이백 명과 가병 칠십 명과 경무장병 이백 명을 준비시켜라."

24 또 바르로를 펠릭스 송옥에게 무사히 인도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운 침승들로 준비시켜라."

25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 주었다.

26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보내하신 펠릭스 송옥님께 인사드립니다.

27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불행과 그들에게 상해당한 뺨이었습니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듣고, 제가 부대를 거느리고 제압하여 그를 구출해 냈습니다.

28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단죄하려는지 알아본데, 그들의 최고 의회로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29 거기에서 저는 그가 그들의 율법과 관련된 시책으로 양죄를 받은 뿐 사형은 받게 하도록 할 만한 죄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30 그런데 이 사람을 래치려는 습병이 들라는 제보를 받고 바로 송옥님께 보냈습니다.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송옥님 앞에서 그에 관하여 권술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1 그러하여 한사들은 자기들에게 내린 명령대로 바르로를 넘겨받아 방패 안의 와르리스로 데려갔다.

32 그리고 이튿날 가병들에게 바르로를 데리고 계속 행군하게 한 다음, 자기들은 권지로 돌아갔다.

33 가병들은 카이사리아로 들어가 송옥에게 경계를 전달하고, 바르로를 그 앞으로 인도하였다.

34 송옥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르로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어, 그가

권사카이 총독이라는 말을 듣고는,

35 "당신을 고발한 자들까지 도살하면 당신은 심문하겠소" 하였다. 그리고 그를 헤로데 궁성에 데리고 가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총독에게 고발하다

- 1 **24** 랫새 뒤에 케니아스 대사제가 원로 몇 사람과 테르틸로스를 법률가 화랑에게 내려가 총독에게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2 바오로가 불려 나오자 테르틸로스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축하 영봉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으로 이 민족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 3 손거러신 데니크스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은 언제 어디에서나 인정하며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 4 각하를 길게 붙잡아 두지 않으려 하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잠시 위의 말을 들으 주시기를 청합니다.
- 5 우리는 이 사람이 흑사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을 부추기는 자며 나자렛 불파의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6 이자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시도하여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 7 .
- 8 각하께서 친히 이자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이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모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 9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합세하여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다.

바오로가 변론하다

- 10 그때에 총독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오로가 답변하였다. "나는 각하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이제 안심하고 나 자신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 11 각하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

[필사자 : 김순경 모니카]

- 라간 자가 열이틀로 되지 않았습니다.
- 12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성안에서든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의 소모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 13 저들은 지금 나를 과할라는 그 내용을 각하게 증명하기도 못합니다.
- 14 그러나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시연합니다. 저들이 분화라고 일컫는 새로운 길에 따라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 15 그리고 나도 바로 저들이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의로운 아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모두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 16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 17 나는 내 동족에게 자선기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 18 그래서 내가 정결 제사를 마치고 제물을 바칠 때에 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절제는 군중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 19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시비를 걸 일이 없더면 그들이 각하게 와서 과할했어야 마땅합니다.
- 20 아디명, 내가 최고 우회기 출두하였을 때 여기에 있는 자들이 무슨 범죄 사실을 찾아냈는지 정중 말해 보이고 하십시오.
- 21 나는 다만 저를 가운데에 서서,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 22 펠릭스는 새로운 길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천인 대장 라시아스가 내려되면 여러분의 사건을 판결하겠소." 하면서 공판을 연기하였다.
- 23 그리고 백인 대장에게 바브로를 지키되 험하게 해 주고 형지들여 그

[사도 행전 (24) 장 (23) 절]

를 들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 지내다

24 며칠 뒤에 펠릭스는 유다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가서 바오로를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25 바오로가 크로옴과 전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 이제 그만 가십시오.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26 그러면서도 바오로가 자기에게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서, 바오로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7 두 해가 지난 뒤에 포르키우스 페스투스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그때까지 펠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를 가둔 채 내버려 두었다.

황제에게 상소하다

1 [25] 페스투스는 그 지방에 부임한 지 사흘 뒤에 카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이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페스투스에게 간곡히

3 보충하였다. 바오로에게는 불리한 호의를 자기들에게 배풀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중에 바오로를 법정에 버리려고 매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4 그러나 페스투스는 바오로가 카이사리아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자기도 빨리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5 “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함양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 그를 고발하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6 페스투스는 여르레인가 열흘인가만 그들과 함께 지낸 뒤에 카이

[필사자 : 김윤경 보내카]

[사도행전 (25) 장 (6) 절]

사리아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정에 앉아 바르로를 데려오라고 명령 하였다.

- 7 바르로가 내려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냈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 8 바르로도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니다." 하고 자성을 변호하였다.
- 9 페스투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르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 가 거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알기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고 물었다.
- 10 바르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강하게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니다.
- 11 만일 내가 불의를 저질렀거나 사형을 받아 아량한 죄를 하였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으면, 아무로 나를 저들에게 내어 줄 수 없습니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 12 그러자 페스투스가 그문들과 상의하고 나서, "당신은 황제에게 상소하 였으니 황제에게 잘 갓요." 하고 대답하였다.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 알기 서다

- 13 며칠이 지난 뒤,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 14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르로의 사건을 꺼 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감이 하나 있었는데,
- 15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수석 사제들과 유대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16 그러나 나는 고발을 할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법하여 고발 내용 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랑을 내주는 것은

[필사자 : 강윤경 오니카]

로마인들의 광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17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향하게 하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8 재판에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할 방법 사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19 바보라 다윗은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광령되고, 또 이미 죽었는지 바보라는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뿐이었습니다.

20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21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이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든지 물었습니다.

21 바보라는 그대로 갈러 있다가 폐하의 탄경을 받게라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2 아그리파스가 페스투스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자, 페스투스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23 그리하여 이튿날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가 본गत 회사를 부르고 와서, 친인 대상들과 그 도시의 명사들을 서느리고 접견실로 들어가서, 페스투스가 바보라는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24 그리고 나서 페스투스가 말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비를 함께 하신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온 유다 주민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까지도, 그를 더 이상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내에게 청원하였습니다.

25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은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가 폐하에게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6 그러나 그에 관하여 우리 수준에 써 들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먼저 신문하여 써 들릴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왕을, 특히 아그리파스 임금님 앞은 그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27 고발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수인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변론하다

- 1 26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손을 들고 가서 변론하기 시작하였다.
- 2 "아그리파스 임금님, 유대인들이 나를 탄압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오늘 임금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3 특히 임금님은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참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4 모든 유대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쪽 가운데에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커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 5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으므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명석한 바리새 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그런데 지금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7 우리 열두 지파는 방앗으로 하느님을 열렬히 섬기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나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 8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 9 사실 나도 한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필사자 : 윤지영 베레나]

[사도 (26)장(10)절]

10 그리고 그 말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수석 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성도를 가운데에서 많은 이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할 때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1 또 자주 회당마다 다니며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 예수성을 모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나 격분하여 나라 밖 여러 고을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12 한번은 내가 그런 일로 수석 사제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타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13 일출침,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14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뱀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5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 하는 예수라.

16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낸 것은 너를 종으로, 그리고 네가 나를 보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의 종인으로 선택하기 위함이다.

17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 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18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와 죄를 용서 받고

[필사자 : 윤지영 씨레사]

[사도 (26) 장 (27) 절]

라는 말씀이다.

27 아그리파스 잉금침,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28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은 조금 있으면
사를 설득하여 그리스도 인으로 행세하게 만들겠군."
하고 말하였다.

29 그러자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조금 있던 오래
있든, 나는 잉금침만이 아니라 오늘 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사들만 배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30 잉금침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그 밖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일어나

31 퇴장하여 서로 말하였다. "저 사람은 사형을
받거나 특목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군요."

32 아그리파스는 페스투스에게 "저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로마로 출발하다

1 27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
되자, 그들은 바오로와 다른 수인 몇을 '황제
부채'의 율리우스라는 백인 대장에게 넘겼다.

2 그리하여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항구로 가는
아드라미티움 배를 타고 떠났다. 테살로니카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르코스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필사자 : ~~홍지영~~ 베레사]

[사도 (26) 장 (18) 절]

- 18 그에게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살속 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19 그래서 아그리파스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시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 20 먼저 라마스쿠스에 사는 이들에 이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쥘 온 유태 지방을 다니면서,
가아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돌아와 회개에 응답한 일들을 하라고 선포하였
습니다.
- 21 바로 그 때문에 유태인들이 성전에 있는 나를 붙잡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 22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렇까지 이렇게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23 곧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
- 24 바오로가 이렇게 변론하자 페스투스 큰 소리로,
"바오로, 당신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하고 말하였다.
- 25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존귀하신 페스투스 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양식에 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 26 임금님은 이것들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그분께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끼므로,
임금님은 이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놀라지 않으셨다고

[필사자 : 윤지영 베레나]

[사도 (27) 장 (3) 절]

- 3 우리는 다음 날 시돔에 달았다. 율리우스는 바오로에게 인정을 베풀어, 바오로가 친구들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 4 그곳을 떠난 우리는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가려진 쪽으로 키프로스 섬을 돌아,
- 5 킬리키아와 팡필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리키아의 미라에 이르렀다.
- 6 거기에서 백인태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 7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크도니스 앞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맞바람 때문에 더 다가가지 못하고, 바람이 가려진 살모네 쪽을 향하여 크레타 섬으로 갔다.
- 8 우리는 간신히 살모네를 지나 라새아 시에서 가까운 '좁은 항구들'이라는 곳에 달았다.
- 9 많은 시일이 흘러 탄식일도 이미 지났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험해 지자, 바오로는 경고하면서
- 10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대로 항해하면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위험하고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 11 그러나 백인태장은 바오로가 한 말보다 항해사와 선주를 더 믿었다.
- 12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레라수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할 수만 있으면 페릭스에 도착하여 겨울을 나기로 의결을 모았다. 페릭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서 동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필사자 : 윤지영 베레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다

13 마침 광풍이 부드럽게 불자 그들은 이미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돛을 풀리고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14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크레타 쪽에서 '어우라킬론'이라는 폭풍이 몰아쳤다.

15 배가 바람에 휩쓸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포기한 채 떠밀려 다니다가,

16 카우다리는 작은 섬으로 바람이 가려진 쪽을 지날 때, 간신히 보조선에 붙잡을 수 있었다.

17 선원들은 그것을 끌어 돌리고 가서, 밧줄을 이용하여 보선을 동여매었다. 그리고 시르티스 모래톱에 좌초할까 두려워, 띄우는 돛을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18 폭풍에 몹시 시달리자, 이튿날 선원들은 일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19 셋째 날에는 배에 깔린 도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 마침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아주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21 그리하여 모두 식욕이 없어 잃었다. 그때에 바오루가 그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필사자 : 윤지영 베레과]

[사도 (27) 장 (23) 절]

여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23 사실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가 지반밖에 나에게 와서,

24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갈래하는 모든 사랑도 나에게 맡기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25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6 우리는 어떤 섬에 좌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

27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닌 지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였다.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다가간다는 소식을 받았다.

28 그래서 추를 내려 보니 스무 길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추를 내려 보니 열다섯 길이었다.

29 우리는 배가 안초에 좌초할까 두려워 고물에서 닻 네 개를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받았다.

30 그러자 선원들은 배에서 탈아날 속셈으로, 이물에서 닻을 내린다고 핑계를 대면서 보조선을 바다에 내렸다.

31 그때에 바오로가 백인대장과 군사들에게, "저 사랑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32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풀어 보조선을 그렁렁하게 내려 보냈다.

[필사자 : 윤지영 베레과]

[사도 (27) 장 (33) 절

33 광이 밝기 시작할 때까지, 바오로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사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채 버티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34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거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35 이렇게 말한 바오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36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도 음식을 먹었다.

37 배에 탄 우리는 모두 이백칠십육 명이었다.

38 그들은 음식을 배부리 먹은 뒤에 말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배가 부서지다

39 광이 밝자, 어느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변이 평평한 작은 만이 보였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배를 그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40 그들은 밧줄을 풀어 바다에 버리고 또 두 키를 묶었던 줄을 풀었다. 그리고 앞 돛을 풀려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41 그러나 그들은 물 밑 모래 언덕에 빠져 배를 주지 못하고 말았다. 이들은 박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세찬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필사자 : -윤지영 (세레나)]

[사도 (27) 장 (42) 절]

42 군사들은 수인들이 헤엄쳐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43 그러나 백민대장은 바오로를 살리고자 하였으므로, 군사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려 헤엄 칠 수 있는 이들은 먼저 띄어내려 물으로 가고,

44 나머지 사람들을 가운데 일부는 걸반자를, 일부는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가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두 무사히 물으로 나오게 되었다.

바오로가 몰타 섬에서 지내다.

1 20 우리는 목숨을 구한 뒤에야 그 섬이 몰타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2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개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데다 강씨까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 놓고 우리를 모두 맞아 주었다.

3 그런데 바오로가 땀감 한 다발을 모아 불 속에 넣자, 독사 한 마리가 열기 때문에 뛰어나와 바오로의 손에 달라붙었다.

4 원주민들은 뱀이 바오로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 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러로 살려 두지 않는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5 바오로는 아무런 해도 없이 알고 뱀을 불 속에 떨어 버렸다.

[필사자 : 신지영 베레나]

[사도 (28) 장 (6) 절

- 6 원주민들은 바오로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굉장히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그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오로를 신이라고 하였다.
- 7 그 근처에 섬의 수령인 푸블리우스라는 사랑의 소유자가 있었다. 그가 우리를 손님으로 맞아 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대접해 주었다.
- 8 마침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오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고쳐 주었다.
- 9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오자 바오로는 그들도 고쳐 주었다.
- 10 그들은 우리에게 큰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주었다.

몰타에서 주마로 가다

- 11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배에는 리오스쿠로이의 모상이 새겨져 있었다.
- 12 우리는 시라쿠사에 상륙하여 사흘을 머물렀다가,
- 13 그곳에서 다시 뱃을 올려 레기움에 갈았다. 하루 뒤에 항포이 물어 우리는 이들 만에 푸레올리에 이르러

[필사자 : 홍지영 베레나]

[사도 (28) 장 (14) 절]

- 14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청을 받고
이리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였다.
- 15 형제들이 로마에서 우리 소문을 듣고 아피
우스 광장과 트레스 라베르네까지 우리를
맞으러 왔다. 그들을 볼 바오로는 하나님께
고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시도
받지 않는 허락을 받았다.

로마에서 선교하다

- 17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래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
졌습니다.
- 18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 19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그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할 수 없이 황제
에게 상소하였습니다.
- 20 그래서 여러분을 뵈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필사자 : 윤지태 베레니사]

[사도 (28) 장 (2) 절

- 21 그러자 그들이 바오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게 불리한 보고나 이야기를 할 일도 없습니다.
- 22 그러나 이 분파가 어리석거나 반대를 받는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 23 그들은 바오로와 활자를 정해 두었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오로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오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 24 그러자 어떤 이들은 바오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 25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오로가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교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 26 곧 이 말씀입니다.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 27 저 백성이 마음은 무리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게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빛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필사자 : 윤지영 | 세레니티

[사도 (28) 장 (28) 절]

28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이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

29) 바오로가 이 말을 마치고 유대인들은 서로 많은 논쟁을 하며 돌아갔다.

30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이 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31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큰데히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필사자 : 윤리영 베레나]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

- 1 1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의 벗들이 이 편지를 씁니다.
- 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은 통하여 미리 성령이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 3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섯의 족손으로 태어나셨고,
- 4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왕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확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 5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있게 유래는 것입니다.
- 6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습니까.
7.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상을 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로마를 방문하려는 것이

- 8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9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내 영혼 섬기는 하나님께

[필사자 : 서인복]

[로마서 (1) 장 (10) 절]

- 10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을 하며, 김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믿고 있습니다.
- 11 나는 여러분을 복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 12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함께 서로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 13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배를 지음까지 좌절되기도 하였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주성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서처럼 여러분에게서도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 14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킴이든 이들에게도 이리같은 이들에게도 다 빛을 지고 있습니다.
- 15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복음의 힘

- 16 나는 복음을 복꺼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태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랑이면 누구에게나 권능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힘이 때문입니다.
- 17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을 살 것이다." 라는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 장 (18) 절]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18 불의하므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이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19 하나님이 판죄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이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20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선성을 조물들 통하여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21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처럼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무제한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22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23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짐승들과 네발짐승과 벌레 같은 현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24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욕망을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니다.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광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26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남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을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로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27 남자들이든 마찬가지로 떠나라 맞는 자연스러운 육체 관계를 그만 두긴 저의 머리 색빛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하등 차한 것을 저지르다가, 그 당선이 합당한 댓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28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사자 : 서 인복]

[로마서 (1) 장 (29) 절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이 바빠져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29 그들은 온갖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덕의 가득찬 있고, 시기
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라 악덕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겸양
권이고

30 총쌍꾼이며, 하나님을 마귀하는 자로, 불순한 단명한 자며, 티끌
쟁이고 모략꾼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며,

31 무단한 신의가 없으며 비정한 무자비한 자입니다.

32 이와 같은 짓은 저지르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나도 하나님의
베풀기를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들을 참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짓은 저지르는 자들을 무단하게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1 2 그러므로 아,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심판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나를 심판하는 바를 그것을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2 우리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진법을 알고 있습니다.

3 아,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
리라 생각합니까?

4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큰 초역의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것입
니까? 그들의 용서가 그대를 회개를 이끌어 주는 것은 모릅니까?

5 그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영한 망령은,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유없는 진노라 계시는 분이 그대에게 쓸아질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6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형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필사자 :

]

[로마서 (2) 장 (7) 절]

- 7 귀중히 선함을 리면서 영과로 명예의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욕한 생명을 주십니다.
- 8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
- 9 먼저 유대인이 그리고 그리스인까지,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혼란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 10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평안과 명예의 영광이 내릴 것입니다.
- 11 관습께서는 사랑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율법

- 12 율법을 모르고 죄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한, 율법을 알고 죄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13 율법을 듣는 자가 관습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은 실천하는 나라의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14 다른 민족들이 율법을 가짐 있지 않음에도 본성이 따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천하면, 율법을 가짐 있지 않은 이들이 자신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 15 그들의 영성이 증언한 그들의 것같이도 생각들이 서로 고백케도 한 비로라게도 라면서,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자라들의 마땅히 쓰여 있어야 보여 줍니다.
- 16 이러한 사실은 내가 전라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관습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들의 좋은 행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낼 것입니다.

유대인과 율법

- 17 그러나 그대는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면서 율법이 의지하고 관습

[필사자 : 신인봉]

남은 자량하여,

18 율법은 너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또한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19 자네 능면 이들의 인종이나 계급이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여

20 율법에서 진리와 진리의 진수를 추구했으므로 어리석은 자들이 고사하여 필요한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21 그렇다면 나는 가는 치면서 왜 자선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드들 죄는 하지 말라 선행하면서 왜 그대는 드들짓은 합니까?

22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대는 간음을 합니까? 유산을 험악한데 하면서 왜 그대는 선전 물건을 훔칩니까?

23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그대는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모욕 합니까?

24 과연 성경에, "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난하게 하는 모독을 받는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 그대가 율법을 실천하면 할례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닌 것이 되고 만다.

26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은 것만큼 여겨지지 않을것입니까?

27 그러하여 물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법정은 가진 있으면서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상회한 것입니다.

28 절모양을 갖추었다는 유대인이 아니고, 살갗에 절모양으로 나타낸 다른 할례가 있습니다.

29 만히려 속도를 유대인의 사람이 참된다고, 문제가 아니라 성경으로 바르게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는 사람 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과 사람들의 죄

- 1 3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 2 이노모로 보나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은 그들에게 많이 설교한 것 입니다.
- 3 그러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성화 사업을 막아주는 방해요인이 되는 것입니까?
4.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당신께 대항하는 것만 당신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 5 그런데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무슨 말해야 합니까? 인간의 방탕을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시므로 불의하시다고 해야 합니까?
- 6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실습니까?
- 7 나의 죄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돋보여 그분 영광이 받들어 된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 8 더 나아가서 " 악은 행하여 선이 생기게 하라 " 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사실 어떤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 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

- 9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활에서 유대인이거나

[필사자 : 서인복]

[로마서 (3) 장 (25) 절]

25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믿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자범죄들을 용서하시어 영의 비로움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하신 것입니다.

26 이 죄들은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실 때에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신의 의복을 빌려 주시어, 강변에게서 의복을 빌리며, 곧 예수님은 많은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27 그러나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할례의 방법인가? 아닙니다.

~~28~~ 믿음의 방법입니다.

28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라 할례나 성인식이 믿음을 의롭게 된다면 우리는 흠없습니다.

29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30 정녕 하나님은 관용하십니다. 그분께서 할례를 받은 이들을 믿음을 의롭게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을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31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율법을 무릅쓰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필사자 : 서인복]

아브라함의 믿음

1. 4. 그렇다면 결국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찾아 얻은 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 라고 말해야 합니까?
2.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성경은 무엇이 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4.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풍선이 선물이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 집니다.
5.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별점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복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6.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위로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7.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8.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9. 그렇다면 이 행복이 할례 받은 이들에게만 해당 됩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해당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고 말합니다.
10.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례 받은 다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11.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할례라는 표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필사자 : 이민찬 비오]

[로마 (4) 장 (12) 절

- 그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2.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이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걸터간 그 믿음의 발자취도 따라 걸었습니다.
13.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4.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15.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습니다.
16.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 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17.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8.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 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필사자 : 이민찬 비오]

[로마 (4) 장 (19) 절

19. 백 살 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 없고 사라의 모태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21.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22.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23.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4.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복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25. 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을 넘겨 주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도살아 나셨습니다.

의롭게 된 이들의 삶과 희망

1. 5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2.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3.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난은 인내를 지어내고,
4.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지어냅니다.
5.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필사자 : 이 민찬 베위

[로마 (5) 장 (6) 절]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7.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 지도 모릅니다.

8.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9.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10.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11.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12.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13.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필사자 : 이민찬 비오]

-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1.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6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2.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3.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4.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5.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6.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7.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8.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9.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필사자 : 이민찬 비인]

[로마 (5) 장 (14) 절

14.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부의 예형입니다.
15.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16.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17.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우신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21.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로우신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필사자 : 이민찬 제9]

1 로마 (6) 장 (10) 절

10.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11.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12.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은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3.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14.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의 종

15.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6.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혀 받은 표징 가르침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18.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필사자 : 이민찬 베인]

[로마 (6) 장 (19) 절

19.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육의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에 종으로 바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20.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까.

21. 그 때에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22.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 줍니다. 또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3.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필사자 : 이 민찬 비인

7

울렷음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1.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울렷음은 아는 사랑들이기에 말합니다. 울렷음은 사랑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보십니까?
2. 호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울렷음으로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울렷음에 풀려납니다.
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간음한 여자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울렷음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4. 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울렷한 인연에서 죽음으로써, 다른 몸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찾아나신 몸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5.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에는, 울렷으로 믿지 않았을 생각은 더 많은 여러 욕망이 우리 지혜 안에서 작동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6.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울렷한 인연에서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이라는 영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울렷한 귀의 죽음

2.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까? 울렷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렷이 없었더라면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울렷에서 "탐내서는 안된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8. 이 계명을 지키는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필사자 : 정영동 이카엘]

[로마 (2) 장 (9) 절]

- 9 사보 율법의 상인이 없을 경우 귀는 죽은 것입니다.
9 귀에는 내가 율법 상인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영이 들어오지 귀는 살아서
- 10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제 영이 나에게서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11 귀가 제 영을 믿지 못하니 나를 속이고 또 거짓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 12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제 영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 13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서 죽음이 귀를 죽이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귀가 귀로 드러내게, 귀가 제 영을 통하여 허락하여 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 14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귀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 15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 16 그런데 내가 배려 없는 것을 행하면, 이는 율법이 주는 사색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 17 그렇다면 이제 그 보람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입니다.
- 18 사보 내 안에, 큰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 19 선을 배려 없는 행위로 하지 못하고, 악을 배려 없는 행위로 행하는 것을 합니다.
- 20 그래서 내가 배려 없는 것을 행할 때, 그 악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입니다.
- 21 여기에서 나는 영혼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행하기를 배려하는 데도 악을 배려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 22 나는 내 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두는 기쁨을 받습니다.

[필사자 : 정명호 비카리얼]

1 권 (2) 장 (23) 절

- 23 그러나 내 자취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아들의 법과
대조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리고 법이 나를 내 자취 안에
있는 나의 법에 서로 강하게 합니다.
- 24 나는 리안 비합리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바친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 25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두 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법을 성가시게, 독으라는
나의 법을 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령.

- 1 ○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리를
받음으로 됩니다.
- 2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령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러로
관련 죽음의 법에서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3 육체가 육으로 말미암아 내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들을 귀찮은 육의 본성을 지닌 속리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안에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 4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해주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5 부름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 6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요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이 됩니다.
- 7 육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음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을 수
없습니다.
- 8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 9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되 육의 법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필사자 : 강명홍 이키네!]

영을 보시고 있지 않으시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랑이 있습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좋은 이득 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악을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되어 극성시요

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음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음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광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려주 육에 맞을 전 사랑이 있습니다.

13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힘으로 불의 행함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 여러분은 사랑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중생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닌, 여러분은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경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어머니!"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16. 그리고 이 성경에서 불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17 자녀이면 상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 안 특별히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과 영광

18 장한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전극면, 지금 이세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 사색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아래 든 것은 지극히 아쉽다. 구원계 헌신으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필사자 : 정영동 이키엿!]

[로마서 (8) 장 (2) 절]

- 21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 22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23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 24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누가 희망합니까?
- 25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립시다.
- 26 이와같이, 성령께서도 내쉬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몸으로 어떻게 기도 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씀대로 탄식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 27 마음속까지 신령한 은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계획에 따라 욕망을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며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29 하나님께서는 미리 뵈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같은 보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사랑과 기쁨을 받아 주게 하셨습니다.
- 30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욕망했고, 욕망하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복선.

- 31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 32 당신의 천아드님인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은혜

[필사자 : 정영호 바나나]

[레위기 (8) 장 (33) 절]

- 버찌 그 그리스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로써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실 용은 하나님이십니다.
- 34 누가 그들을 진리 할 수 있으십니까? 들어가셨다가 함으로
 되살아 나실 용,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실 용,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 35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으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역행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험악함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 36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지혜는 온 세상
 때문에 사해되게 도살될 양육님에게 잡니다."
- 37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용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기도 합니다.
-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형재의 권도
 미래의 권도, 천능도.
- 39 지능은 못도, 지 깊은 못도, 그 밖의 어떠한 피곤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바나노와 이스라엘

1. 9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1 않습니다. 나의 영성도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줄니다.
2.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사실 육으로는 내 형제적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지극히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강한 심령입니다.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필사자 : 김명동 바나노]

[편지 (9) 장 (5) 절]

영광, 여러 계약, 율일,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5. 그들은 저 관상들의 축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만물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영웅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

6.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니 돌아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고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7. 아브라함의 축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시약을 통하여 축손들이 너의 이름을 불러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까?
8. 이는 육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그들의 축손으로 여겨받기는 뜻입니다.
9. 약속이기는 것은 "이 맘때에 내가 다시 율타인데 그에게 시리아에 아들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10. 그뿐만 아니라, 레예카가 한 남자와 곧 우리와 같은 이시약에게서 잉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 그들이 선이니 악을 행하기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선선택의 뜻을 재촉시키시려고
12. 또 그것이 시강의 행위가 아니라 욕하는 당선에게 달려 있음을 드러내시려고, "형이 동생을 삼키라." 하고 레예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 이는 성령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나는 아قام을 사랑하고 여사, 미워하였다."
14. 그렇다면 우리가 복되이리라고 말하며 하십니까? 하나님 쪽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5.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녀를 에플리는 이에게 자녀를 에플리고 동생을 에플리는

[필사자 : 정영홍 이카엘]

이에게 동행할 예쁘다.

16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의지나 능력이나 아니라 하나님의
재비에 달려 있습니다.

12 사실 성경은 피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내게 나를 일으켜 주었다. 곧 너에게서 내 힘을
얻고, 온사상에 내 이름을 뜻하게 하려는 것이다.

18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랑에게는
재비를 베푸신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랑은 원고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비

19 이제 그때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을 여전히 책망
하십니까? 사보 누가 그들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건입니다.

20 아, 인간이여! 하나님께 만대당을 하는 그때는 평행 누구인가?
작품이 제각각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21 또는 용기광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한데 쓰는 그곳으로,
한 덩이는 천한데 쓰는 그곳으로 만들 권한이 있습니까?

22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내고 당신의 힘을 인리기를 원하시
면서도, 명백하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 주셨다면,

23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재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홍성한 영광을 얻려고 그리하셨다면 무엇이든 대답하겠습니까?

2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뜻한 가운데 계시만이 아니라 다른
만족들 가운데에서도 불러 주셨습니다.

25 이는 (16) 호세아에서 말하는 것에도 같습니다. "나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 이리 부르고 사랑 할지 못할 여인들."

[필사자 : 정경홍 이기연]

[이사야 (9) 장 (26) 절]

사랑 받는 여인이라 부르리라.

26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던 바와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라."

27 그리고 아시야는 이스라엘을 두루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보낼 것이다.

28 주님께서서는 말씀을 온전히 또 간혹히 세상에 실현시키실 것이다.

29 이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만민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손을 남겨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손들려질 되고 고모리 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광.

30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러워 말해야 할까? 의로움을 추구하기 능한 다른 민족들이 의로움을 믿음은 바탕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31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열광을 추구하였지만 그 열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2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33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이다 걸려 넘어지기, 하늘 돌을 옥달처럼 쏘라지게 하는 때위를 놓는다. 그들을 믿는 이는 옥고려움 믿을 당하지 않으리라.

1 10 형제 여러분, 네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함이며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2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에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필사자 : 정명동 마카렘]

3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믿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욕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입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을 위한 구원.

5 모세는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행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6 그러나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리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해서도 안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7 또 말합니다. "누가 지화로 내려가리오? 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모시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8 의로움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안에 너희 믿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행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9 그때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믿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곧 믿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믿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11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욕망하는 것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12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랑의 주님이시니, 평생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13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4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은 용을 어떻게 받들어 욕망하지 않게 하리

[필사자 : 정영홍 바카엔!]

1 레비 (10) 장 (15) 절

- 21 그가 들은 적이 없는 말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 15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본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 16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이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 집니다.
- 18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온 땅으로, 그들이 만든 승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 19 나는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선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민족들 이년 무리를 너희가 사기롭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에게 너희가 분노하게 하리라."
- 20 이시야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죽였고 너에 관하여 듣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였다!"
- 21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 땅을 팔을 열리고 있었다."

[필사자 : 정영홍 이카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 1 11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은
11 나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벤야민 지파 사람입니다.
- 2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
엘을 걸어서 어떻게 호소하였는지 모릅니까?
- 3 “주님 지분을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아래 지 혼자 남았는데 자들은 제 목숨마리 없애려고 지를 찾고
있습니다.”
- 4 그런데 하나님의 대담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훨씬 편을 나를 위하여 남겨 두었다.”
- 5 이와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 6 이렇게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 7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이들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 8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대내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 9 나뵈도 이렇게 말합니다.
- 10 “그들 선택이 그들에게 물가대와 덮이 되고 전립들과 용보가 되게
하시어.

10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웃음들 주어 있게 하소서.⁹⁹

다른 민족들의 구원

11 그러면 내가 물읍니다. 그들은 전혀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의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사기하게 되었습니다.

12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의 실패로 다른 민족들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이 모두 망해질 때에는 얼마나 더 풍요로울겠습니까?

13 이제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 때문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4 그것은 내가 살붙이들을 사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15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6 단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커룩하면 나머지 반죽도 거룩합니다. 부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17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 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그대가 그 가지를 자리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 나무 뿌리의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18 그대는 잘려 나간 그 가지들을 알아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19 이제 그대는, ⁶⁶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내가 원붙여지기 위해서였다.⁹⁸ 하고 말할 것입니다.

20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만지 않아서 잘려 나가고 그대는 말아서 그렇게 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로마 (11) 장 (21) 절]

- 21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아담 그대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22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존엄하심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는 존엄하시지만 그대에게는 인자하십니다. 인자 그분의 인자하심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절망 것입니다.
- 23 그들도 복음을 고집하지 않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 24 그대가 본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나와, 본래와 달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본래의 그 가지들이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은 이스라엘의 구원

- 25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즐거움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쉰 때까지 이어지고
- 26 그 다음에는 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 “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에게서 불평함을 치우시리라.”
- 27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떼어 줄 나의 계약이다.”
- 28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절도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조성을 덕분에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게 됩니다.
- 29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30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공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 31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필사자 : 안희관 오십]

[로마 (11) 장 (32) 절]

32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쌍함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입니다.

하느님 잔미가

33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자비함 경탄 같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34 누가 주의 생각을 안팎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35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까?

36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나아갑니까,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1 1) 그리스도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2)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2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3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다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경치 마십시오. 저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진전하게 생각하십시오.

4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5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

[필사자 :]

1 로마 (12) 장 (6) 절

- 6 우리는 지극히 장난스럽게 네 뜻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해안하고,
- 7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쓰여 줍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 8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선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심으로, 재물을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 9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볼드십시오.
- 10 형제애로 서로 같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 11 열성이 풀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 12 회개 속에 기뻐하고 환난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 13 중대한 심판들과 함께 나누고 선님 관대하에 힘쓰십시오.
- 14 여러분을 낙제하는 자들을 회복하십시오. 지주하지 말고 회복해 주십시오.
- 15 기뻐하는 아들과 함께 기뻐하고 무는 아들과 함께 무십시오.
- 16 서로 뜻을 같이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아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즐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뜻을 품으십시오.
- 18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 19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20 오리라 "그대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게는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속물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⁹³

21 악에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권위

1 13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리하게 됩니다.

3 사할 지배자들이란 악행을 할 때에나 두렵지 선함을 할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4 지배자는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을 행할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은 공히 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악함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6 여러분이 조제를 바리는 것이 세운입니다. 그들은 바로 사랑한 일에 질서를 내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7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제를 내야 할 사람에게만 조제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8 아무에게도 사랑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9 6⁶ 진을 행하는 안 된다. 살인 행하는 안 된다. 도둑질 행하는 안 된다. 탐내 행하는 안 된다.⁹ 은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필사자 : 이종관 오십]

[로마 (13) 장 (10) 절]

그것들은 모두가 한바디 곧 ⁶⁶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⁹⁹ 는 말로 요약됩니다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자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각심

11 또한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세사 개이탈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12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광선을 낮에 내리고 빛의 광명을 입으십시오.

13 대낮에 행동하십시오. 품에 양귀비 꽃을 품어가지 마십시오. 흥취대는 술잔치와 민취, 음탕과 방탕, 다들라시기술에 살지 마십시오.

14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양하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을 들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1 로마 (14) 장 () 절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1.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 견해를 두고 논쟁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2.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3.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 먹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가려 먹는 사람은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4.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공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5.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여깁니다. 저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6. 특정한 날을 중시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중시하는 것이고,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가려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8.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9.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10.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1.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12.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각자가 한 일을 하나님께 사심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로마 (14) 장 (13) 절]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지 마라

13. 그러니 더 이상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14.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고 또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습니다.
15. 그대의 형제가 음식 문제로 슬퍼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므로써 그 사람을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17. 하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18. 그리므로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으 사람들을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19. 그러니 평화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으시다
2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음식 때문에 그르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 삼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21.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2.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지키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23.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필사자 : 천상희 구리아]

[로마 (15) 장 () 절 공동체의 일치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정을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하고 자기 종을 대우 해서는 안됩니다.
2.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광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왕이 종을대우 해야 합니다.
3.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종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4.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5.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6.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8.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권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함께 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9.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10. 성경은 또 말합니다. "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
11. 또 이렇게 말합니다. "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그분을 찬미하여라 "
12.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 이사이의 뿌리에서 준기가 돌아나리니 그가 일어나 민족들을 다스리고 민족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
13.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경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 (15) 장 (14) 절 바오로의 사도직

- 14.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도 선의로 가득하고 온갖 지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 타이른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 15.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어떤 부문에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썼습니다
- 16.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 17.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 18. 사실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19. 토론과 이적의 힘으로, 하나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율리케움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 20.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극 알려지고 많은 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예로
여깁니다. 남이 닦아 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기 양으려는 것입니다
- 21.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 그에 관하여 전해 들은 적 없는 과들이 보고
그의 소문을 들어 본 적 없는 과들이 깨달으리라."

바오로의 여행 계획

- 22.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 했지만 여러 번이나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 23.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고, 또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소망을 품어 왔습니다
- 24. 그래서 내가 에스파냐로 갈때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보고,
먼저 얼마 동안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 25.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에게 봉사하러 떠납니다.
- 26.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필사자 : 천상총회 루리아]

[로마 (15) 장 (27) 절]

- 27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벗은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으면
그들도 문란적인 것으로 성도들은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 28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모음의 결실을 그들에게 확실히
전한 다음,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에스와냐로 떠나겠습니다.
- 29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칭찬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 30 함께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 31 내가 유대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국제 활동이
성도들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 32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33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필사자 : 현상희 루치아]

[로마 (16) 장 (1) 절 끝 인사와 권고

1. 우리의 자매이며 캄포레아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2. 성도들의 품위에 맞게 그를 주님 안에서 맞아들이고, 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원이든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형제자제들인 프리스카와
아퀼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4.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5.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토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6. 여러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쓴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7. 나의 동포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루니코스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뛰어난 사도로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8.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안폴리아루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키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펠레키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틀로스 의 집안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1. 나의 동포 헤로디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르키소스의 집안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2. 주님 안에서 애써 트리파나와 트리포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애를 많이 쓴, 사랑하는 페르시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3. 주님 안에서 선행을 받은 루포스,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필사자 : 현상희 루치아]

[로마 (16) 장 (14) 절]

14. 아심코티토스, 플레론, 헤르메스, 타르코바스,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5. 필롤로고스와 율리아, 헤레우스와 그의 누이, 올림다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7.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본말은 원인으로 건립들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18.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달콤하고 비위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 19 사실 여러분의 순종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이 원로
기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애는 기뻐하고 악애는 분통이 많기를 바랍니다
 - 20 평화의 하늘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부수시어 여러분의 발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1. 나의 형제들과 티모테오, 그리고 나의 동포들인 루키오스와
야손과 소시과테르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22. 이 편지를 받아 쓴 저 헤르티우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23. 나와 온 교회의 겸손한인 가이오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도시의 재정관 에라스투스, 그리고 콰르투스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24) 믿는 수사님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24 절이 있다.

[로마 (16) 장 (25) 절] 공결 찬송

25.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간추려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부돋아 주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26. 이제는 모음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과 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7. 홀로 외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필사자 : 김성희 권희아]

코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인사

- 1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 2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코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 4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5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 6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 7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8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 9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코린도 교회의 분열

- 10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필사자 : 이정건 카타리나]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11 나의 형제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2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스 편이다.", "나는 키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3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14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모스리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열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6 내가 스테파노스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기는 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17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18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19 사실 성경에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 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 버리리라."

20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필사자: 이 경건 카타리나]

- 이 세상의 논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 21 사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 하셨습니다.
- 22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 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 23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 석음 입니다.
- 24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 입니다.
-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랑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랑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 26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 27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 하셨습니다.
- 28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려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던 것 곧 없는 것을 선택 하셨습니다.
- 29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 3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필사자 : 이정진 카타리나]

31 그래서 성경에도 "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 1 2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 2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3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했으며, 두려고 또 무척 떨었습니다.
- 4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5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 6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과멸하게 되어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 7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각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 8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 9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적 없으며

[필사자 : 이정진 카타리나.]

사람의 마음에도 저온 적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 10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 11 그 사랑 속에 있는 영이 아니어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어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 12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13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 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14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 15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 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 16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자의 역할

- 1 3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 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필사자 : 이 경진 카타리나]

- 2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었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 3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사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 4 어떤이는 " 나는 바오르 편이다." 하고 어떤이는 "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 5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르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 주신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 6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 7 그러니 심는이나 물을 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만이 중요 합니다.
- 8 심는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샅을 받을 뿐입니다.
- 9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 10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 11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 12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필사자 : 이경진 카타리나]

[코린토 첫째 (3) 장 (13) 절]

- 13 심판날에 모든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 질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 14 어떤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샅을 받게 되고 ,
- 15 어떤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 16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 18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 19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그 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 20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 21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 22 바오루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 23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필사자 : 이경진 카타리나]

그리스도의 사도

- 1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2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 3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원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 4 나는 잘못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는 것은 높은 주님입니다.
- 5 그러므로 구원에서 인할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저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 6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아플라오에게 저당시켜 이야기 하였읍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 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알리고 다른쪽은 깨닫게 하시어 우뚝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 7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 줍니까? 그대가 가질 것 가운데서 받지 않았는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 양 자랑합니까?
- 8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부릅니다. 벌써 복자가 되사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켜두고 이미 입증이 되사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입증이 되사오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입증이 될수있게 말입니다.
- 9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우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험사들과 사귀들리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필사자 : 허 희영, 마리아]

-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리또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 11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애받고 짐 없이 떠돌아다니고
- 12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 주고 박해를 하면 견디어 내고
- 13 중상을 하면 좋은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민간의 찌꺼기처럼 되십니다. 기쁨도 그립니다.
- 14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 15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 16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 17 이러한 연유로 내가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성실한 아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나의 원칙들을 그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 18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으로 여겨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 19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곧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쭐거리는 이들의 말이 아니라 힘을 확신해 보십시오.
-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 21 여러분은 어찌를 율법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때를 들고 가는 건인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건인가?

[필사자 : 허희수, 마리아]

불륜에 대한 단죄

- 1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 2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 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3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것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 4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때,
- 5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옥에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 6 여러분의 자식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패시킨다는 것을 모릅니까?
- 7 모든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시기 때문입니다.
- 8 그러므로 모든 누룩, 곧 악의나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박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니다.
- 9 나는 전에 써 본년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송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 10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람발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강도들이나 위장 술배자들과 전혀 상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필사자 : 허희문, 마리아]

11 내가 그렇게 쓴 뜻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만을
제거하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방 숭배자거나
증상꾼이거나 주정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12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한 사람들은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까?

13 바깥 사람들은 허느님에게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 악인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필사자 : 허희승, 마리아]

교우끼리의 송사

- 1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 2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 3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 4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 5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 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 6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 7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 주지 않습니까?
- 8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 9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 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장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 11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불륜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 12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필사자 : 이근 노부야]
가리안

- 못하게 하겠습니다.
- 13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 14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 15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수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 16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 17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 18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 19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짓이 아님을 모릅니까?
- 20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필사자 : 이준 노복근]
바르톨로메오

1코린

[코린도 첫째 7)장(/)절

코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신

혼인 관계

- 1 이제 여러분이 써 보낸 것들이 관하여 알려졌습니다. "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어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 2 남편의 처분이 있나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 3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 4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4 아내의 몸은 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 5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못 지키지 마십시오 다만 기뻐 받으려고 생각하는 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다시 행하십시오. 여자들의 정지하기 위한 등이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기 때웁니다.
- 6 그러나 고집이 높더라도 관할관으로서 정당한 것은 아내입니다.
-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이런 은사 사랑을 지닌 은사. 제마라 한 사람에게서 오는 은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8 화를 사는 여자들이 이부들에게 행합니다. 그들은 내처럼 고집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 9 그러나 제마라 같은 혼인 관계는 복음이 밝히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 10 혼인한 여자에게 분방하게 내가 아니라 남편에게서 분방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 11 만일 헤어졌으면 화를 지내다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 12 그렇지 사랑들에게는 관할이 아니라 내가 만방입니다. 이런 남편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나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 13 또 이런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나 그 계속 아내에게

[필사자 : 강현 포스테르스]

1권

1권 7장 (14)절

새가든 윗편은 그 남편을 버리는 일입니다.

14 신가든 남편은 아내를 팔아넘기 기록하였고, 신가든 아내도 그 남편으로 팔아넘기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윗편 여자들의 자라도 다같이 타이기만, 새를 그들은 기록합니다.

15 그러나 신가든 아내들까지 히이거던대로 히이거던사도, 그러나 정무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기 애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의 정무에 새라고 부르셨습니까.

16 아내들 아녀, 그들이 남편을 죽인 기록 있으리 하니 애타게? 그러나 남편들 아녀, 그들이 아내를 죽일 수 있으리 하니 애타게?
죽음까지 정무하신 새

17 아무튼 죽음까지 기록하기 정해 주신대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부르셨을 때의 새를 사기성사도. 이것이 내가 모든 고리이내리는 새입니다.

18 누가 할례를 받은 부처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환부를 받았어?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어. 누가 할례 받지 않은 부처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 하지 않았어.

19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대꾸를 안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새만은 음행합니다.

20 자야라 부처를 받았을 때의 새를 사기성사도.

21 그들이 부처를 받았을 때 정무합니다. 그것이 | 마음을 새 매는새. 새들이 새가 있다 하여도 히이거던 대로 그들의 새를 사기성사도.

22 죽은 아내의 부처를 받은 것은 아녀 죽은 아내의 새입니다. 마르타의 부처를 받은 새들은 그리스도의 정무입니다.

23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여자들의 죽음이 정무합니다. 새들이 정무합니다.

24 함께 여자를, 자야라 부처를 받았을 때의 새를 사기성사도. 하나님의 함께 사기성사도. 죽은 아내.

25 마르타에게 새들은 내가 죽은 아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필사자 : 강일표로크리스천]

1코린

1코린도 2장 7 (26)절

- 26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인간 사람이 된 대로 더 나은 내침을 내침입니다.
- 27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 생각입니다.
- 28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 29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 30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 31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 32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 33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 34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 35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 36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 37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많이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잘라낸 내침입니다.

[필사자 : 강인호 목사님]

1코린

[코린후서 7 장 (28) 절]

즉 계신 람이 있어 약한데도 그러도 주께로 마음을 주께로 하면
것은 강함 인함이다.

38 이타 같이 자기 약한데도 후인내 사람으로 강함은 것사면. 후인내
약한 사람도 더 강함은 것사면.

과부의 재물

39 이남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었음. 그러나 남편이 죽
으면 재물이 없어도 남자가 후인내 재물이 있음이다. 다만 그 아내
증보이어서 아무것도 없음이다.

40 그러나 내 약한데도 과부의 재물은 고생 재물이 더 배양함이다.
나에게 이남이 명은 마신 것인 사함함이다.

[필사자 : 강현진 핀란테스쿨]

1코린

[권린한지제 8)장(1)절]

권린로 신과들기게 보낸 지제라 서신 8장

- 1 우상들에게 바쳤던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하여 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리함-1있다"
누것은 우리도야니라. 그러나 지성을 요양미하는 사람은 성령에게 합니라.
- 2 자기가 무엇이냐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을 미치지 아니하면 무슨 아귀
한기 못하니라.
- 3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없는 사랑은 하나님의게서도 그득 안아주옵니라.
- 4 고인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하여 우리는 "세상이 우상에게
누것라 "하나님을 허본바위에 계시어 애통하다"는 것은 안고 있습니다. 5절
- 5 하나님이 양기로 아름바 신들이 있다 하라 - 라면 신령으로 주님도
안하느니라 -
- 6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계시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은 합하여 나아하느니라. 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안을
이제서야 하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은 계시어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계시어
합하느니라.
- 7 고령이온 누나 다 지성이 애통을 아느니라. 이런 애통은 아귀까지로
우상에게 합하여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재물로 고령이
안고 합하느니라. 고령고들의 애통은 양상이 타르하느니라.
- 8 용납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리 합하느니라. 고령 애통은
아니 우리의 합동이 내버려진 것으로 아니고, 고령 애통은 우리의 합동
이내아라고 것도 아느니라.
- 9 다만 타르함의 이 지성이 애통이 약한 이들에게 강애함이 되기 함으로
관심이 하느니라.
- 10 계시어 있는 고령이 우리 신령이 애통 애통은 누가 보라면 고령
애통 양상으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기는 수 원죄를 합기
합리 영감하느니라.
- 11 고령이 애통 그 사람을 고령이 자비 때문에 영생하게 하느니라.
고령은 고령을 기는 수 영감하느니라.

[필사자 : 김남호 프랑크스킨]

1코린

[코린후서 8 장 (12)절]

12 너희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많은 고난의 양성에
성경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귀찮은 것이요.

13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헌신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희미한 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고난을 받는다.

[필사자 : 김성호 목사님]

1코린

[코린후서 9 장 25 절]

- 25 모든 경계자는 모든 것이 저를 위하여. 그들은 사색 할 때
채워진 관리를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사색하는 채워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 26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이 헛되게 여기며, 허영은 차는 것처럼
것들을 취지 않습니다.
- 27 나는 내 몸을 관리시켜 복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은
필요한 내게, 나 자신은 신자가 회개 없이는 것입니다.

[필사자 : 강함 프란체스카]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

- 1 10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 2 모두 구름과 바닷속에서 시례를 받아 만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 3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 4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었습니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 6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 7 성경에 "반항은 양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 8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균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균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 9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 10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특별해진 것처럼 여러분은 특별해지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탄의 손에 죽었습니다.
- 11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를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 12 그러므로 서 있대고 생각하는 야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13 여러분에게 다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 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장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려
이상의 시련을 겪게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필사자 : 배수정 클라라]

[1 코린 (10) 장 (14) 절]

상찬례와 이교 제사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동배를 멀리하십시오.

15 나는 여러분을 즐거운 사람으로 여기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16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떤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18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이들은 모두 제단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19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무엇이든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든 된다는 말입니까?

20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1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22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듯 해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무슨 일이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23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24 누구나 자기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25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따져 보지 말고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필사자 : 바츨정 클라라]

[1코린 (10)장(26)절]

- 26 "세상과 그 안에 가득찬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 27 불신자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가고자 한다면, 양심을 따져 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십시오.
- 28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하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린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하여 먹지 마십시오.
- 29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 30 내가 감사하는 마음의 식사를 함께 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받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 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 32 유대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의도 방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 33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랑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랑이 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1 ¶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랑이 되십시오.

2 전례 때에 여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곤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악기를 바랍니다.

[필사자 : 박수경 클라라]

[1코린 (11)장(4)절]

- 4 어떠한 남자든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 5 그러나 어떠한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머리가 깎인 여자와 똑같습니다.
- 6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아예 머리를 밀어 버리십시오.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 7 남자는 하나님의 모양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 8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 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생각하라, 그 머리에 권한의
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11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 13 여러번 쓰르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 14 이미 자연의 여러벌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한다면 자기에게 수치가 되지만,
- 15 여자가 긴 머리를 한다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너을 대신에 긴 머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 16 누가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하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서 그러한
관습이 없고 하나님의 교리에도 없습니다. 필사자 : 비록누쟁 클라라

주님의 만찬

- 17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야기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 18 우선 여러분이 표된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 19 해마다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 20 고령자만 여러분의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 21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택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 22 여러분은 먹고 마실 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염신여기로 가질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정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 23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잠드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 24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25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26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27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마거나 그 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필사자 : 바나사님 클라라 1

[1코린 (11) 장 (28) 절

- 28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을 돌아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 29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 30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목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 31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 32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고육하시느 것입니다.
- 33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 34 바가 고평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은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밖의 것은 내가 가서 알려 주겠습니다.

- 1 12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경의 은사에 관해서도 약지를 바랍니다.
- 2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에 만도 하지 못하는 유능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 3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지주를 받아가." 할 수 없고, 성경에 힘입지 않는다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 4 은사는 여러가지지만 성경은 같은 성경입니다.
- 5 직명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 6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 7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서 공평권을 위하여 성경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필사자 : 박승재 클라라]

[1코린 (12)장(8)절]

- 8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지체의 만물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경에 따라 지식의 만물이
주어집니다.
- 9 어떤 이에게는 강한 성경 안에서 믿음,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경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 10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 11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경에게서 일으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르도록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
- 12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십니다
- 13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매였습니다.
- 14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 15 바울이 "나는 몸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16 또 누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17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뿐이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 18 사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 19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 20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필사자 : 박승광 클라라]

[1코린 (12)장 (21)절

- 21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한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등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 22 몸의 자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 23 우리는 몸의 자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또 우리의 짐삼지 못한 자체들이
아주 짐삼게 다루어집니다.
- 24 그러나 우리의 짐삼은 자체들은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
께서는 오직 자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 몸을 자 맞추셨습니다.
- 25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자체들이 서로 똑같이 돋보게
하셨습니다.
- 26 한 자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자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
니다. 한 자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자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 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입니다.
- 28 하느님께서 교리 안에 세워신 이들은, 천재가 사도들이고
돌재가 예언자들이요, 천재가 교사들입니다. 그다음은 기적을
일케는 사람들, 그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라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 29 모두 사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케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30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 31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사랑

32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필사자 : 박수경 클라라]
길을 보여 주겠습니다.

[코린토서 (13) 장 (1 ~ 13) 절]

- 1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 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거나 소란한 금방고령에 지나리 않습니다.
-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 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3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줄라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4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뵈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 5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 6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 8 사랑은 언제나 지나 쉬지 않습니다. 예언은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 9 우리는 부분적인 것과 부분적으로 여연합니다.
- 10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 11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어리석음 당하고 어리석음 생각하고 어리석음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적의 견해를 그만두었습니다.
-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해를 쬐며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거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 입니다.
- 13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필사자 : 아담 아리아한글서체]

신령한 언어와 예언

1.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은사, 특히 예언
14. 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2.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
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4.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5.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해방을
해 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6. 이제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신령한 언어로 말
한다 한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7. 마찬가지로 피리나 수금처럼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내지만
불명한 가락을 내지 않으면, 피리로 불거나 수금으로 뜰든 공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8. 또 나팔이 화살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9.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 불명하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10. 세상에선 물론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의미가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필사자 : 김 선영 율리아]

[권권도 첫째 14]장(11)절

11 그런데 내가 어떤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언어를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언어를 말하는 이는 나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12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으도록 애쓰십시오.

13 그러므로 신성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그것을 해석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14 내가 신성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15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16 그런데 고대가 영으로만 찬미하면, 고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초상자가 어떻게 고대의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17 고대야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성경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18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성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19 그보다 나는 교회에서 신성한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막에는 아기가 되고 생각하는 데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21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신성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

[필사자 : 김 산영 율리아]

[코린토 첫째 (14) 장 (22) 절]

- 사랑들의 압력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듣지 않으리라.' 하고 각님께서 말씀하신다."
- 22 이렇게 신령한 언어는 믿는 이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 23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데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 24 그러나 모든 예언하는데 믿지 않는 이나 초심자가 들어 온다면, 그는 모든 이에게 정경을 받고 그 모든 이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 25 또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는 얼굴을 바락이대고 앞뒤로 허비하며 절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전례의 질서와 통일성

- 26 그러니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지극히 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계시를 전하고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는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27 누가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는 한 번에 들이나 많아야 셋에서 차례로 하고, 또 한 사람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 28 그러나 해석하는 이가 없으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혼자서 하나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 29 예언자들은 들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식별하십시오.

[필사자 : 김 산영 율리아]

[코린토 첫째 (14) 장 (30) 절]

- 30 그러나 그 곳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 31 이렇게 여러분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 32 예언자의 영은 예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 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 34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하듯이 여자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 35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 36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더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리더라도 하였습니까?
- 37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말이 주님의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 38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39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 40 다만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크리스도의 복할

- 1 15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 2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헌신이 맡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필사자 : 김 선영 율리아]

받습니다.

3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4 물리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만에 되살아나서,

5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6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가운데 더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7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모든 사도에게 나타내셨
 습니다.

8 맨 마지막으로는 칠십 명이 같은 나타내셨습니다.

9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후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11 그리하여 내가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선파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까?

13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필사자 : 김 산영 율리아]

[코린도 첫째 (15) 장 (14) 절]

14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15	우리는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16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7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여러분 자신은 어쩔 도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18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19	우리가 현재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 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21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마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24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고 나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드릴 것입니다.
25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6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27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필사자 : 김 산영 윌리아]

그러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회복시킨 분이 제외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28 그러나 아드님께서는 모든 것이 당신께 회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께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29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이들이 잔여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30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늘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31 형제 여러분, 내가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품고 있는 긍지,
곧 여러분에 대한 나의 긍지를 결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귀하고 있습니다.

32 내가 에페소에서 이르러면 맹수와 싸우겠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야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십시오."

33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

34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

35 그러나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살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6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백리는 세는 줄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37 그리고 그대가 백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말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3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코린도 첫째 (15) 장 (39) 절]

- 몸체를 죽입니다. 세쌍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 39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 40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 41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 42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 43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 44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 45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죽는 영이 되었습니다.
- 46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 47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 48 흙으로 된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49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들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필사자 : 김 선영 율리아]

[코린도 첫째(15)장(50)절]

- 50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 51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해사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 52 순식간에, 눈 깜박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
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 53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 54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 55 죽음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 56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58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 1 16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리아의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
시오.
- 2 매 주 첫날에 저마다 형편이 닿는 대로 얼마씩을 자기
집에 따로 모아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갔을 때에야 모금

[필사자 : 김 산영 올리아]

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3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이들을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고마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4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면 함께 가겠습니다.

바오로의 여행계획

5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사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가려고 합니다.

6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한동안 지내든가 아예 겨울을
내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어디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7 이번에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8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페소에서 지내겠습니다.

9 적대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10 티모테오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피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평안히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 아폴로 형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간곡히 권고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코린토 첫째 (16) 장 (13) 절]

마지막 권고와 인사

- 13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 14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 15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테파노스 집안 사람들은 아카이아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을 위한 직무에 헌신하였습니다.
- 16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애쓰는 모든 이에게 순종하십시오.
- 17 나는 스테파노스와 포르투나투스와의 아카이코스가 와주어서 기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나의 아쉬움을 채워 주었습니다.
- 18 나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이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아퀼라와 프리스카가 자기들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인사합니다.
- 20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 21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 22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 타!
- 23 각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 24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필사자 : 김 산영 율리아]

인사

- 1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코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환난과 하나님의 위로

-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 4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 5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 6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주위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디어 나아갈 때에 그 힘을 드러냅니다.
- 7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하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8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겹게 질들린 나머지 살아날 가망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 9 사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필사자 : 이 승준 다니엘]

코린토

[둘째서간 (1) 장 (10) 절

10 그분께서는 과연 그 큰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고 앞으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해 주시리라고 희망합니다.

11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내린 은사를 받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코린토 방문의 연기

12 우리의 양심도 증언하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또 나약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처신하였다는 것입니다.

13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씁니다. 그리고 나는 장차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4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알아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15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또 한 번 은총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16 곧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 갔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다로 떠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17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서 변덕이라도 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속된 흥기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예, 예!"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한다는 말입니까?

18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 우리 곧 나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필사자 : 이 승준 다니엘]

코린토

[둘째서간 (1) 장 (10) 절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 도 되시면서 "아니요!" 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늘 "예!" 만 있을 따름입니다.

20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게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합니다.

21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2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23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도 코린토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24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류일 따름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1 2 그래서 다시는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2.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내가 슬프게 한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으겠습니까?

3 내가 그런 편지를 써 보낸 뜻은, 내가 그리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슬픔을 겪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4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필사자 : 이 승준 다니엘]

잘못한 자에 대한 용서

- 5 누가 나를 슬쁘게 하였다면, 과장 없이 말해서 나만이 아니라 어느정도는 여러분을 모두 슬쁘게 한것입니다.
- 6 그 사람은 여러분 대다수에게서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 7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르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 8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권고합니다.
- 9 그 편지를 써 보낸 것도 실은 내가 여러분을 시험해 보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보려는 것이였습니다.
- 10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용서합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 11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티토에 대한 불안

-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트로아스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문을 나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 13 그러나 나는 내 형제 티토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 14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 15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느님께

[필사자 : 이 승준 다니엘]

되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6 열망할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이 향내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내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1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새 계약의 일꾼

1 **3**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려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내보낼 추천서나 여러분이 써주는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2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또 읽을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7 돌에 문자로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8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9 단죄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필사자 : 이 승준 다니엘]

고린토

[둘째서간 (3) 장 (10) 절]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10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11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2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아주 담대히 행동합니다.

13 그리고 우리는,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너울을 드리운 모세처럼 하지도 않습니다.

14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을 읽을 때에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5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16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17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필사자 : 이 승준 다니엘]

실그릇에 담긴 보물

- 1 4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비를 받아 이 직분을 맡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 2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 두어야 할 것들을 버렸으며, 잔고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어 하나님 면전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 3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있다 하여도 멸망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 4 그들의 경우, 이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모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 5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 6 "어둠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 7 우리는 이 보물을 실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 8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 9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밧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 10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이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필사자 : 별당숙 바우로]

[코린토 둘째 (4) 장 (11) 절]

- 11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넘쳐 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 12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께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 13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 14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15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 집니다.
- 17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 18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필사자 : 범장수 바오로]

- 1 5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흔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 2 이 천막집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하늘 거처를
못처럼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 3 사실 우리가 천막을 벗더라도 알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4 우리는 이 천막속에 살면서 무겁게 짓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천막을 벗어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 입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죽을것을 생명이 삼키도록
갈망합니다.
- 5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
십니다. 그 분께서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 6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 7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 8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9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 10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말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화해의 봉사 직

- 11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경외해야 할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필사자 : 변장숙 바오로]

환히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12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 마음이 아니라 결단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13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면 하느님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랑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5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런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 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17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읍니다.

18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께서 옵니다.

19 곧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천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필사자 : 범장수 바오로]

[연린도올제 (5) 장 (21) 절]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21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1 6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랑으로서 천고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2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주권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권의 날입니다.

3 이 직분이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4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관으로 내세웁니다. 곧 많이 견디어내고, 환난과 재난고 역경을 겪으면서도,

5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6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8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9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10 슬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필사자 : 범장수 바오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1 코린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였읍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있읍니다.

12 우리가 여러분을 용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이 용서한 것입니다.

13 나는 자리아에게 이르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

14 불신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귄수 있겠습니까?

1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벨리아르와 화합하실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몫을 나눌수 있겠습니까?

16 하느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르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에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에서 나와 저들과 갈라져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더러운 곳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18 나는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딸이 되리라. -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 7.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나 육과 영의 모든 대립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며, 허브를 정의하며 온전히 경건하게 됩시다.

회개에 대한 비언의 기쁨

2. 마음을 열기 위를 받아 주십시오. 위는 아무에게도 분노를 지지하지 않았고 아무도 망쳐놓지 않았으며 아무도 기만하지 않았습시다.

3. 이것은 여러분을 단죄하려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해야 할 대로, 여러분은 우리 과오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죽어갈 것 같고 살아도 같이 살 것 같습니다.

4. 여러분에 대한 나의 신뢰도 큰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위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환난에도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

5. 사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위인은 안락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는 모든 면에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환난은 사랑이고 안락은 무용이었습니다.

6. 그러나 바친한 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티토를 도축하게 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7. 티토의 도착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과오와 여러분의 환난, 그리고 내가 대한 여러분의 안락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령 기뻐하였습니다.

8. 내가 그 편으로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편이 같으나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때 후회하였을지라도.

[필사자 : 김호경 님다]

- 9. 이제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슬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슬퍼하여 마침내 화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한 것이라,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10.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이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세적 슬픔은 구원을 가져올 뿐입니다.
- 11.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매를 불러일으켰는지! 게다가 여러분의 그 솔직한 회개, 그 의문, 그 두려움, 그 괴로움, 그 열정, 그 정경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과 관련하여 모든 면에서 잘못이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 12.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사랑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여러분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13. 그래서 우리는 위로로 받았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로만으로도 우리는 더토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이 여러분 모두 덕분에 안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14. 사실 나는 더토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은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실이었듯이, 우리가 더토에게 한 자랑도 사실일 것입니다.
- 15. 더토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곤 하면서 맞닥뜨려 온갖 것들을 회상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 16. 나는 가버립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필사자 : 김호경 님]

그리스도의 사랑

- 1 8 형제 여러분, 우리는 라브닝에서 마케도니아의 여러교회에 베푸신 은총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 2 환난의 큰 시련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증만하여, 극심한 재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 3 나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많은데도, 아니 그 이상으로 가까이 베풀었습니다.
- 4 그러면서 성도를 위한 구체 활동에 참여하는 특권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 5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도,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쳤습니다.
- 6 그래서 우리는 터득하게, 여러분에게서 이미 사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마치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 7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자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특히나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길 바랍니다.
- 8 나는 이 말을 분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성이 전하여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해볼 것을 따릅니다.
- 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양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쁘게 되시며 여러분이 그가반으로 부양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 10 이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한가지 충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작년부터 이미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또 소스를 위하여 시작할 것 이니

[필사자 : 김호정 린다]

- 11 이제 그 일을 마무리 하시시오. 자발적 열의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그 일을 마무리 하시시오
- 12 열의만 있으면 형편에 맞게 바치는 것은 모두 가까이 받아들여지긴, 형편에 맞지 않는 도우려지 않습니다.
- 13 그렇거든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은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 14 자음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락 품과 그들의 공함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품과 여러분의 공함을 채워 주자면 균형은 이루게 됩니다
- 15 이는 성령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것도 낭치 않고 적게 거둔 것도 모자라지 않았다"

티토 일행의 파견

- 16 여러분을 위해서 티토의 마중까지 나와 똑같은 열성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17 그는 우리의 열정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는 예보다도 큰 열성을 지니 있으므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 18 우리는 형제 한 사람을 티토와 함께 보냅니다. 이 형제는 복음 선포하는 일을 모든 교회를서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 19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의를 드러내려 우리가 맡아 수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위하여,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를 뽑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 20 우리가 맡은 이 많은 형제와 관련하여 누가 우리를 흥분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을 보냅니다
- 21 사실 우리는 짐 앞에서만 아니라, 사랑을 앞세워 바른 일을 하려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필사자 : 김호경 리다]

22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가 열병을 가진 앓은 무는 여러 : 모든 환인관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음 그의
연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23 터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지이며 여러분을 위한 나의
형제자입니다. 우리의 이 형제들을 말하면, 그들은 교회의
대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24 그리스도 교인들이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량이 사실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필사자 : 김 호경 님]

형제들을 돕는 일

- 1 9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또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 2 사실 나는 여러분의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두는 나는 마케도니아 사랑들에게, 아카야에서는 작년부터 준비를 갖추었다는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열정이 많은 사랑을 분반시켰습니다.
- 3 그러나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내는 까닭은, 우리가 이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번말이 되지 않게 하여, 내가 다른 이들에게 말한대로 여러분이 신제로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 4 마케도니아 신자들이 나와 함께 그르가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지 않는 것은 보게되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말할것도 없고 무라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힘써드립니다.
- 5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부탁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이미 약속한 축목의 선물을 미리 갖추어 놓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것은 역시 선물이 아니라 축목의 선물로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6 그것은 어렵습니다. 작게 백라는 이는 작게 거두어들이는 많이 부라는 이는 많이 거두어들이는입니다.
- 7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 8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양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은 넉넉히 가져 온갖 선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필사자 : 김효경 린다]

- 9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난한 아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크리라."
- 10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맺은 양식을 마련해 주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의 공적으로 돌려 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돌려 주실 것입니다.
- 11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패해서 매우 후한 인심을 배탈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인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12 이러한 구세 활동 노력은 성도들의 금품은 채택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남다른 감사로 드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 13 그들은 이 구세 활동을 높이 사서, 그리스도의 복음 고백하는 여러분의 승리를 보기도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랑과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후한 인심을 보기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 14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내린 하나님의 남다른 은총을 생각하여 여러분을 괴워 할 것입니다.
- 15 아무 말 할 수 없는 심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사자 : 김호경 린다]

자기의 사도직을 옹호하는 바오르

- 1 10 여러분과 언약을 마주할 때에는 겸손하고 편져져 있을 때에는 대답하라고들 하는 나 바오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직접 권고합니다.
- 2 우리가 속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에게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질 작정입니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 3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간지언정,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 4 우리의 전투 무기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님 덕분에 어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5. 하늘님을 아는 지식을 가려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
- 6 또한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 7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어떤 이가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8 내가 우리의 권위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하여도,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9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 10 사실 "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화하면 그는 불이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사자 : 최민음 베르네카]

코린토2 (10)장(//)절

- 11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로 써 보내는 말과 곁에 있으면서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12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류로 여기거나 우리 자신을 그들과 견주어 보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대어보고 저희끼리 견주어 보고 있으니 분별없는 자들입니다.
- 13 그러나 우리는 한도를 넘어서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적정 한도 안에서만 그리할 터인데,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 14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 한도 너머로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은 우리입니다.
- 15 우리는 한도를 넘어,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져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 16 그러면 우리가 남의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 없이,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 17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 18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필사자 : 최민옥 베르니카]

바오로와 거짓 사도들

- 1 // 아무쪼록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참아 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참아 주십시오.
- 2 나는 하느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순역한 처녀로 한 남자에게, 곧 그리스도께 바키려고 그분과 약혼시켰습니다.
- 3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계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이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성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가 두렵습니다.
- 4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선포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잘도 참아 주니 말입니다.
- 5 나는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6 내가 비록 많은 서툰 것도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일에서 갖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 7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 8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여러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바깥에 그들을 약탈한 꼴이 되었습니다.
- 9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제하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 10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걸고 말하는데, 아카이아 지방에서는 나의 이러한 자강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필사자 : 최민욱 베르나카]

[코린토 2 (//)장 (//)절]

- 11 내가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리 알아서
겠습니까? 하늘계서는 아십니다!
- 12 나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을
입한다고 자랑할 기쁨을 노리는 자들에게 그 기쁨을 없애 버리려는
것입니다.
- 13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 14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 15 그러나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실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로서 겪는 고난

- 16 내가 거듭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리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려거든 적어도 나를 어리석은 대로라도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자랑을 줄 할 수 있겠습니다.
- 17 자랑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 18 많은 사람이 속된 기준으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 19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잡아줍니다.
- 20 사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등쳐 베풀어도, 누가 후히
잡아도, 누가 거드름을 피워도, 누가 얼굴을 때려도, 여러분은
잡아 줍니다.
- 21 부끄럽게도 나는 이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이런 짓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한다면,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만,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 22 그들이 কি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필사자 : 최민욱 베르니카]

[권장토 2 (//) 장 (22) 절]

- 22 사 랑 입 니 까 ? 나 도 그 령 습 니 다 . 그 들 이 아 브 라 함 의 후 손 입 니 까 ?
나 도 그 령 습 니 다 .
- 23 그 들 이 그 리 스 도 의 일 관 입 니 까 ? 정 신 나 간 사 랑 처 럼 하 는 말 입 니 다 만 ,
나 는 더 욱 그 령 습 니 다 . 나 는 수 고 도 더 많 이 하 였 고 , 욕 살 이 도 더
많 이 하 였 으 며 , 매 질 도 더 지 목 하 게 당 하 였 고 죽 을 고 비 도 자 주
넘 졌 습 니 다 .
- 24 바 혼 에 서 하 나 를 배 배 를 유 다 인 들 에 게 다 섰 차 례 나 맞 았 습 니 다 .
- 25 그 리 고 채 직 으 로 맞 은 것 이 세 번 , 등 직 을 당 한 것 이 한 번 ,
좌 선 을 당 한 것 이 세 번 입 니 다 . 밤 낮 하 루 를 고 반 길 은 바 다
에 서 떠 다 니 기 도 하 였 습 니 다 .
- 26 자 주 여 행 하 는 등 안 에 는 강 료 의 위 험 , 강 도 의 위 험 , 동 족 에 게 서
오 는 위 험 , 이 민 족 에 게 서 오 는 위 험 , 근 근 으 리 서 겪 는 위 험 , 광 야 에 서
겪 는 위 험 , 바 다 에 서 겪 는 위 험 , 거 직 형 세 들 사 이 에 서 겪 는
위 험 이 뒤 따 랐 습 니 다 .
- 27 수 고 와 고 생 , 잦 은 밤 새 , 굶 주 림 과 복 마 음 , 잦 은 결 식 , 추 위 와
혈 벼 움 에 시 당 렸 습 니 다 .
- 28 그 밖 의 것 들 은 제 처 놓 고 서 라 도 , 모 든 교 회 에 대 한 염 려 가 날 마 다
나 를 짓 누 림 니 다 .
- 29 누가 약 해 지 면 나 도 약 해 지 지 않 겠 습 니 까 ? 누가 따 른 사 랑
때 문 에 죄 를 지 으 면 나 도 분 개 하 지 않 겠 습 니 까 ?
- 30 네 가 자 랑 하 야 한 다 면 나 의 약 함 을 드 러 내 는 것 들 을 자 랑 하 려 니 다 .
- 31 하 느 님 이 시 켜 주 예 수 님 의 아 버 지 신 분 , 영 원 히 찬 미 받 으 실
분 계 서 는 내 말 이 거 직 이 아 님 을 아 십 니 다 .
- 32 다 마 스 쿡 스 에 서 는 , 아 레 타 스 일 금 의 총 독 이 나 를 잡 으 려 고 그
성 을 지 키 고 있 으 지 만 ,
- 33 사 랑 들 이 나 를 광 주 리 에 달 아 성 벽 에 난 창 문 으 로 내 려
주 으 서 그 의 손 아 귀 를 벗 이 난 일 도 있 습 니 다 .

[필 사 자 : 최 민 욱 베 르 니 카]

바오로가 받은 환시와 계시

- 1 / 2 이rozum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보여 주신 환시와 계시까지 말하렵니다.
- 2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열네 해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워 있는지 안 길이 없고 몸을 떠나 그리되었는지 안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아십니다.
- 3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되었는지 몸을 떠나 그리되었는지 안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아십니다.
- 4 낙원까지 들어 올려진 그는 방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 5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라면 내가 자랑하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 6 내가 설사 자랑하고 싶어 하더라도, 진심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그만두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보고 듣는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 7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증골 쪼려 대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8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고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
- 9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서 허무할 수 있도록 더 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필사자 : 최민욱 베르나카]

코린토 2 (12) 장 (10) 절

10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당감지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코린토 교회가 대한 열려

11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악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내세워 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12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환경같이 인내하여 여러 표징과 이적과 기적으로 참사도의 표지들을 드러냈습니다.

13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 나에게서 더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부당한 처사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14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세 번재를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를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더없이 기쁘게 내놓고 나 자신도 남김없이 내놓겠습니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그만큼 더 사랑받아야 합니까?

16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교활하여 여러분을 속임수로 사로 잡았다고 합니다.

17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이들 가운데 누추를 시켜 여러분을 기만하기라도 하였습니까?

18 나는 티토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권하면서 그 형제도 함께 보냈습니다. 티토가 여러분을 기만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티토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필사자 : 최민음 베르니카]

[코린토 2 (12) 장 (19) 절]

안았습니까?

19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조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20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나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과 시기과 격분과 이기심과 증상과 험담과 거만과 무질서가 있거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21 또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에게 다시 창피를 주지나 않으실까, 전에 죄를 짓고도 자기들이 저지른 그 더러운 짓과 부흥과 방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 때문이 내가 슬피 웃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필사자 : 최영욱 베르니카]

마지막 경고와 인사

- 1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갑니다. "모든 일은 들이
13 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 2 내가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이들과 그 밖
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경고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경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냥 너그
럽게 남겨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 3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약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힘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 4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느님의 힘으로 그리스도
와 함께 살아 있을 겁니다.
- 5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 보십시오.
스스로 시험 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
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
분은 실책자입니다.
- 6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 7 우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악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느
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합책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책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9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
입니다. 바르 여러분이 자신을 바르잡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사자 : 강윤이 스텔라]

[2코린 (13) 장 (10) 절]

10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
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존엄하게 다룰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 입니다. 그 권위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징시키기 위한 것 입니다.

11 그럼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르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
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늘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 입니다.

12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
게 안부를 전합니다.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필사자 : 강윤이 스데살라]

[갈라디아 (1) 장 (1 ~ 11) 절]

- 1 사방들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나 그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킨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가,
- 2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
- 3 하나님 우리 아버지나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 4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금의 이 악랄 세상에서 구해 내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 5 하나님께 영광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6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7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 8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게 온 찬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으로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 9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으로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 10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배움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배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 11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필사자 : 권혜림 씨레나]

[갈라디아서 (1) 장 (12 ~ 24) 절]

12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13	내가 할렐에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찌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 버리려고 하였습니까.
14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서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15	그러나 어디나 배 복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를 형제들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16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앞에 계시게 주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17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될 이름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많았습니다. 그중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아미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18	그리고 내게 삼 년 뒤에 나는 키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19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20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만 거짓이 아닙니다.
21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칼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22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에 열문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3	그들은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 저마다 한때 그렇게 없애 버리려고 하던 마음을 전한다."는 소문만 듣고 믿었습니다.
24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필사자 : 김혜림 세레나]

[갈라티아 (2) 장 (1 ~ 10) 절]

- 1 그리고 나서 십사 년 뒤에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 2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그릇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3 나와 함께 있던 티토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다.
- 4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 5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여라볼과 함께 같이 머물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양보하지 않았습다.
- 6 주요하다는 그 인사들 쪽에서는, -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나에게서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 그 주요 인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다.
- 7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8 할례 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 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9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코브와 키파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르신 언약을 인정하고, 천교의 표준으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모든일을 내맡겨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 10 다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다.

[필사자 : 김혜림 시리나]

[갈라티아 (2.)장 (11 ~ 20)절]

11	그러나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권좌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2	야코부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13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14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질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국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국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15	우리는 본디 유대인으로, 죄인들이 이민국이 아닙니다.
16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도 죄인으로 드러날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8	내가 할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범법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9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하여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0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영원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필사자 : 권혜림 세리나]

[갈라티아(2)장(21)절]

21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필사자 : 권혜영 세레나]

[갈라티아(3)장(1-11)절]

1	아,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심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령할 말입니까?
2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4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5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여러분 가운데에서 거짓을 이루시는 분께서, 율법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리하시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하시든 것입니까?
6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7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8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보고, "모든 민족들이 비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 주셨습니다.
9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10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할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든 저주를 받는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필사자 : 권혁일 시리나]

[갈라티아 (3) 장 (12 ~ 21) 절]

- 12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살화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 1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나중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14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복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 15 형제 여러분, 내가 인간의 관례에 따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언도 동계 작성된 것이면 아무도 파기하거나 무엇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 1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희 후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
- 17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절에 율법을 맺으신 계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겨난 율법이 파기하여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 18 상속 재산이 율법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결코 약속에 근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율례없이 주셨습니다.
- 19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범법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개자의 손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 20 중개자는 한 분만의 중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 21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을 가져다줄 수 있는 율법을 우리가 받는다 하면, 분명히 그로움도 율법을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필사자 : 현경지인 세레나]

[갈라디아서 (3) 장(22-29)절]

- 22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적어 아예 가려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 23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강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 왔습니다.
- 24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 노릇을 하셨습니다.
- 25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 우리는 더 이상 감시자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 26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 27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 28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로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 29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필사자 : 권혜림 세레나]

[갈라디아서 (4) 장 (1 ~ 13) 절]

- 1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어린아이일 때에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 2 아버지가 정해 놓은 기한까지는 후견인과 관리인 아래 있습니다.
- 3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이 세상의 정령들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 4 그러나 때가 차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 5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6 정령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 7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사위 주권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 8 전에 여러분이 하느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본디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 9 그러나 지금은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약하고 초라한 정령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다시 종살이를 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 10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갈도 지킵니다.
- 11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애쓸 것이 헛일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 12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감동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나에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 13 여러분도 알아시피, 나는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필사자 : 김혜령 (세리나)]

[(4) 장 (14-24) 절]

14	그때에 내 육신의 상태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영신여기지도 않았고 역겨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15	그런데 행복을 느끼던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정함하건데,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뿜아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16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17	그들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릴려고 하지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따로 떼어 놓아 여러분이 자기들에게만 영생을 가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18	남들이 좋은 뜻으로 영생을 가릴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9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보심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20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어소로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1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22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의 몸인 부인에게서 낳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기에 따라 태어났고, 자유의 몸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24	여기에는 우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계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나온 여자를 종살이할 자식을 낳는데, 바로 하가르입니다.

[필사자 : 김해림 시비나]

[갈라티아 (4) 장 (25 - 31) 절]

- 25 하가르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을 가리키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 자녀들과 함께 정월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6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의 몸으로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 27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환성을 올려라, 상고를 겪어 보지 못한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의 자녀가 남편 가진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 28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사야와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 29 그러나 그에게 육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 성경에 따라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 30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자식이 자유의 몸인 부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하였습니까.
- 31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몸인 부인의 자녀입니다.

[필사자 : 권혜림 세레나]

[갈라디아 (5) 장 (1~14) 절]

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하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2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3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4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5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우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6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7	여러분은 잘 달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르쳐야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8	여러분을 부리는 분께서 그렇게 설득하였을 리는 없습니다.
9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10	나는 여러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	형제 여러분, 만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게 됩니까? 그랬더라면 십자가라는 걸림돌도 이미 치워졌을 것입니다.
12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1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다만 그 자유를 욕을 위하는 구걸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14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필사자 : 김계림 김리나]

[갈라디아서 (5) 장 (15-26) 절]

- 15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 16 내 말을 이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 17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18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19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냄, 더러움, 방탕,
- 20 유성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적분, 이기심, 불결, 분과,
- 21 질투, 만취, 흥성에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것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효의, 선의, 성실,
- 23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 24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 25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 26 절박 차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필사자 : 김혜령 김리나]

[갈라티아 (6) 장 (1 ~ 13) 절]

1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대도 율복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	서로 남의 짐을 저 족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3	사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냐 되는 듯이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4	제마다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라 하여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
5	누구나 제마다 자기 짐을 저야 할 것입니다.
6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7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물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8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9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11	보십시오, 내가 점점 이렇게 큰 글자로 여러분에게 씁니다.
12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자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받은 방한을 면하려고 고리하는 것입니다.
13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몸에 한 일을 자랑하려고,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필사자 : 권혜림 세레나]

[갈라티아 (6) 장(14~19)절]

- 14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 15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 16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려기를 바랍니다.
- 17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남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 18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필사자 : 클레림 세레나]

에피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르가 에피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총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4.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좋은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6.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8.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9.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10.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은 계획입니다.

11.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12.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13.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상속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14.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번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신자들을 위한 기도.

- 15. 그래서 나도 주 여쭙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드리고,
- 16. 기도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 17.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되고,
- 18.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름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의 어떠한 것인지, 성도를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 19.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 20.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 21.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재만이 아니라 나세에서도 불침 모든 이음위에 독이나게 하신 것입니다.
- 22.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 날이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주관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중안해 있습니다.

에페 제 2장

죽음에서 생명으로

- 1.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 2.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 3. 우리도 다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의 욕망에 이끌려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라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불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 4. 그러나 재배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 5.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
- 6.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필사자 : 이소정 다닐라]

[이레소 (2) 장 (7) 절]

7.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혼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8.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수 없습니다.
 10.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함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함을 하여 살아가도록 그 선함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11. 그러므로 미인족으로 태어난 여러분 한때, 사람 손으로 묶어다 행하는 이른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2. 그때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있었으며, 양쪽의 계약과도 무관하였고, 이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3. 그러나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미인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없애셨습니다.
 15.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종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루시고,
 16.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17.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며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18.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21.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리받는다.
 22.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필사자 : 이소정 다니엘라]

[이제 (3)장 (/)절]

에페 제 3장

이민족들을 위한 바오로의 사도직

1.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민족 여러분을 위하여 수인이 된 나바오가 많합니다.
 2.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3. 앞에서 간단히 적은 바와 같이,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4. 그래서 그 부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깨달은 것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시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6.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7.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펼치시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8.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9. 과거의 모든 시대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혀주게 하셨습니다.
 10. 그리하여 이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1.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1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겪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 교회를 위한 기도.
14.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5.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중이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
 16.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강이 당신 힘으로 굳어지게 하시고,

[필사자 : 이소정 94얼라]

[마태오 (3) 장 (17) 절]

17.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릇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8.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19.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늘의 온갖 중안하심으로 중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 우리 안에서 활동 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21. 그 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계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필사자 : 이소정 다니엘라]

그리스도의 봉인 교회의 일치

1.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2.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3.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4.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늘의 희망을 주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5. 주님도 한 분이시고 인성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6.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 높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8.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로 오리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9. "그분께서 올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통하여 하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11.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여인으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우 주셨습니다.
12.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3.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랑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14.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15.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6. 그분 덕분에, 병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1

옛 생활과 새 생활

17.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처럼

[에페소 (4) 장 (17.) 절]

저렴 살아까지 마십시오.

18. 그들 안에 자리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어두워져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19.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더러운 일을 함꼐스럽게 해 냈습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22.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23.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24. 전리의 의복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활의 규범

25.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26. " 화가 내려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화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27.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8.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 곤궁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9.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말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30.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언장을 받았습시다.
31.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32.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페 제 5장

1.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빛나는 사랑이 되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3. 성도들에게 질맞게, 여러분 사이에서는 불륜이나 온갖 더러운 일이나 함욕은 양에 올리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4. 주장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처럼 율령치 못한 것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은 감자의 말만 해야

[필사자 : 김성진 다나얼]

[에페소 (5) 장 (4) 절]

합니다.

5. 이것을 꼭 알아 두십시오. 불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험물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

6.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7.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8.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9.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10.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11.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12. 사실 그들이 은연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13.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14.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아전 말씀이 있습니다. "장자는 사람이, 개어니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 나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리라."
15. 그러므로 마천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16.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양환 때입니다.
17.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18.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황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경으로 충만해지십시오.
19.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여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20.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와 남편.

21.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22.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3.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유지이신 것과 같습니다.
24.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필사자 : 김성진 대니얼]

[에페소 (5) 장 (25) 절]

-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 26.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27. 그리고 교회를 떠나 주름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28.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29.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 30.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 31.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 32.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 33.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에페 제 6장.

자녀와 부모.

- 1.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 2.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열린 첫 계명입니다.
- 3. "네가 잘 되고 영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 4.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육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과 주인.

- 5. 종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현재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 6. 사람들의 내뱉을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실행하십시오.
- 7.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 8. 종여는 자부인이든 저마다 좋은 일을 하면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 9. 그리고 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종들을 이와 같이 대해주십시오. 짐주는 일은 그만 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며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필사자 : 김성진 다녔]

영장 투쟁

10.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어지십시오.
11. 약간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모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12. 우리의 전류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구천세와 구천세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13. 그러므로 약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재비를 아끼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모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14. 그리하여 진리도 허리에 여를 두르고 확고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15. 발에는 평화의 붓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십시오.
16.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장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약한 자가 쓰는 불확실한 그 방패로 막아서 갈 수 있을것입니다.
17.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18.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 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19.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죽어져 복음의 신비를 당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십시오.
20.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베풀 사물에 매여 있어도, 말을 해야 할 때에 이 복음에 힘입어 당대해 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끝 인사

21. 내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여 동생한 일꾼인 리키코스가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22. 그 때문에 내가 리키코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형편을 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경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와,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형제들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24. 불멸의 생명과 더불어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

- 1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형사자들에게 인사합니다.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필리피 신자들을 위한 기도

- 3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4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 5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6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이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 7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리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문중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 8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몸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 9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 10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데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오,

[필사자 : 구희선 스텔라]

[필리 (1) 장 (11) 절]

1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삶과 그리스도

12 형제 여러분, 나에게 닦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13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14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화성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5 사실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신도하지만, 어떤 이들은 선의로 그 일을 합니다.

16 선의로 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도록 방해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17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신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할
공리를 하는 것입니다.

18 아무려면 어떻게습니까? 개적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을 기뻐합니다. 사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19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 일이
나에게는 구원으로 끝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21 사실 내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필사자 : 구의선 스텔라]

[필리 (1) 장 (22) 절]

- 22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도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 것입니다.
- 23 나는 이 둘 사이에 기여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 24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 25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남아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 26 그리하여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나 때문에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투쟁

- 27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쪽으로 굳건히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 28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며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표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 29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 30 전에 나에게서 보았고 지금도 나에게 대하여 듣는 것과
똑같은 특권을 여러분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필사자 : 구 희선 스텔라]

[필리 (2) 장 (1) 절]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일치와 겸손

- 1 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다면,
- 2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3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 4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 5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 6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내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 7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어느 사람처럼 나타나
- 8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 10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 11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 1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필사자 : 구희선 스텔라]

[필리 (2) 장 (13) 절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13 하나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 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14 무슨 일이든 두렵거나 떨리지 말고 하십시오.

15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떨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6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거나 헛되이 애써 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7 내가 설령 하나님께 올리는 도둑주가 되어 여러분이 행한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면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18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티모테오와 에라스토스의 편지

19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곧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기운을
얻으려도 것입니다.

20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성심껏 돌보아 줄 사람이
나에게는 티모테오밖에 없습니다.

21 모든 자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22 여러분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나와
함께 마치 자식과 아버지처럼 복음을 위하여 일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사자 : 구희선 스텔라]

[필리 (2) 장 (23) 절]

23 그래서 내 형편이 어찌될지 어느 대를 그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라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25 나는 에파포르디토스도 여러분에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이고 협력자이며 전우이고 여러분의 대표이며, 내가 곤궁할 때에 나를 도와준 봉사자입니다.

26 그가 여러분 모두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되어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재비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재비를 베푸시어, 내가 이종으로 슬픔을 겪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28 그래서 나는 더욱 서둘러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가벼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근심을 떨려는 것입니다.

29 그러니 주님 안에서 그를 아주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30 그는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못다한 봉사를 마저 채우려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음에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필사자 : 구희선 스텔라]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참된 의로움

- 1 3 글음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내용을 지어 보낸다 해서 나에게도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것이 됩니다.
- 2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 3 해님의 영으로 예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 4 하기가 나에게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공계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 5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 6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 7 그러나 나에게 이룩된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 8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9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갈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해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필사자 : 구희선 스텔라]

[필리 (3) 장 (10) 절]

- 10 나는 죽음을 겪어는 기쁨을 닦아, 그 분과 그 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 11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목표를 향한 달음질
- 12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 13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 14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 15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지닙시다.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 16 아무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같은 길을 나아갑시다.
- 17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뵈려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뵈려고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 18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19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 20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필사자 : 구희선 스텔라]

[필리 (3) 장 (21) 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21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게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바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필사자 : 구희선 스텔라]

필리피 성도들에게 보낸 서간

1 4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그라티아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행복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권고

- 2 나는 아우로디아에게 권고한 신디케에게 권고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하십시오.
- 3 그렇습니다. 나의 친절한 동역자, 이 여지들을 도와주도록 프에게도
 당부합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랑자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이 성령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 4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 5 여러분의 네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랑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 6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감동하는 마음은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 7 그러면 사랑의 모든 야단을 육신은 하나님의 평화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8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거짓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당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9.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보고 들은 볼 것을 다려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선물에 대한 감사

[필사자 : 변의용 베네딕도]

[필리 (4) 장 (10) 절

10.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니 주는 마음을 미쁘니 다시 한번 보며
크닫기에,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신실 여러분은
즐근 나를 생각하니 크닫리만 그것을 보며 즐 기뻐가 없었던 것입니다.
11. 내가 중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자라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 나는 비천하게 쓸 줄도 알고 풍족하게 쓸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낙담하거나 무리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즐 지는 비감을 얻고 있습니다.
13. 내게 힘을 주시는 복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4.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이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15. 필리피 성도 여러분, 복음 선물을 시작할 유럽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때, 여러분 위기는 내 주님 받은 관계에 있는 고리가 흥미도
없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16. 내가 테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두번 필요한 것은
보내 주었습니다.
17. 물론 내가 선물을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를 보란 뜻입니다.
18.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에파프로디토스 편에 보낸 것을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입니다.
19. 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20.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 인사

21.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하 주십시오.
내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필사자 : 백의용 베네딕토]

[필리 (4) 장 (22) 절]

- 22. 모든 성도가, 특히 행계 집안 사랑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리 함께 행기를 빕니다.

[필사자 : 변의용 베네딕도]

[콜로 (1) 장 (1) 절]

콜로새 신도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

- 1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나사와
- 2 티모테오 형제가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은 형제 신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온전히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려기를 바랍니다.

감사기도

- 3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4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로 인해 들리기 때문입니다.
- 5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이 권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미 들은 것입니다.
- 6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다라 여러분이 그 권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7.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중
중 이파파라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며,
- 8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준 사랑입니다.

콜로새교회를 위한 기도

- 9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모든

[필사자 : 변의용 베네딕도]

1. 콜로 (1) 장 (10) 절

영광 지혜의 깨달음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속으로
충만하여,

10. 귀하게 함양하게 승화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듣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은 아는 자속으로
자라기를 돕는다.
11.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하여져서,
모든 것을 행할 전력이 넘치게 된다. 기쁜 마음으로,
12.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의 복을 고대할 자속을
여러분에게 추천 아버지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13.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담의 족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담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14. 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찬가

15.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상이며 모든 피조물의
말씀이십니다.
16.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행재이든 즉천이든 천세든 권역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 그분께서는 만물이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18. 그분은 영원한 영원 종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사육신의
죽은 아들 가운데에서 말씀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십니다.
19. 과연 하나님께 서는 가까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20.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필사자 : 남이응 배에덕도]

[3월 (1)장 (2)절

기꺼이 헌신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21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마음이 사로잡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원수로 지냈습니까.

22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로 여러분과 함께하시어, 여러분이 가혹하고 흠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23 다만 여러분은 왕위에 기쁨을 두는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소망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키기 위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25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행하셨다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26 그 말씀은 로마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강하게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27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나타나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이 희망입니다.

28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께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그대를

[필사자 : 변의용 씨에게 닥훈

[콜로 (1) 장 (29) 절]

다행히 모든 사랑을 태어난 모든 사랑을 가르칩니다.
29. 이를 위하여 나는 비안에서 향토에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가운을 땀과 열성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사자 : 변의용 베네딕토]

[3로 (2) 장 (1) 절

플로새 신도들에게 보내 서간

- 1 2 사실 여러분 리오디케이아에 있는 이들, 그리고 내 양들은
각각 보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 2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정숙하여, 풍부하고 든든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신비 큰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 3 그리스도 안에 거해온 기쁨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 4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그런듯 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5 내가 비록 용감한 사람이지만 영혼은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갈서 있는 상황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광한 삶

6.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7. 가르침을 받았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은 굳건히
서우며 믿음 안에 튼튼히 고리를 맺으십시오. 그러하여 겸손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8. 아무도 사랑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권설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랑의 권통과 이 세상상의 광명들을
따르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9. 온전히 영광한 생명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0.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께 함께 들렸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이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필사자 : 보편의용 베네딕토]

[2] 장 (10) 절

10.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전제된 권력들이 머리입니다.
11. 여러분은 또한 그분 안에서 육체를 벗어 버림으로써, 사랑 받은 이루어지기 않는 행에 큰 그리스도의 행례를 받았습니디.
12.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인 행에 몰랐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의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디.
13. 여러분은 그분을 자비한 양의 행례를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디.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디.
14.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은 많은 우리의 빛 면을 과외 버려서, 그것을 살리기에 못 붙인 우리 가운데에서 없어 버리셨습니디.
15. 전제된 권력들의 무임을 해체하여 그들을 공명하는 구정거리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가서 행례를 하셨습니다.
16.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일로, 또는 죽거나 초자연적이거나 안식일 무죄로 아무도 여러분을 살리려고 못하게 하십시오.
17. 그런 것들을 많은 불 것들이 그렇고일 뿐이요 살리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18. 거룩 영혼과 전능 능력을 주는 그는 아무도 여러분을 살리시게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그는 자기 본 행례에 버린 나머지 행례를 생명을 가짐 없이 우물거립니다.
19. 그는 자기의 머리로서 복에 단단히 붙어 있기 상습습니디. 믿음은 이 머리로부터 관철과 안대를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그늘에 걸터앉아, 하나님께서 율례는 대문 자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행례하는 사실

20.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행례를 죽어 이 사실의 정경들에게서 벗어났으면서도

[필사자 : 변의용 베네딕도]

[글쎄 (2) 장 (2) 절]

1. 어찌하여 아득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귀찮이 느껴져,
"슬스리 미러, 맛밥리 미러, 만외리 미러." 했습니까?
2. 그 모든 것은 소근 나면 없어서 버리는 것들에 대한 귀찮으로,
인간의 법제와 가르침에 따른 것들일 뿐입니다.
3. 그런 것들은 사발죽인 신상과 경논과 영선의 고행을 나세워
자해받은 것처럼 들리지만, 영선의 욕망을 다루는 기이한
아부전 기괴도 있습니다.

[필사자 : 변익영 베네딕토]

[콜로 (3) 장 (1) 절]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 3.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으니, 지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 때문입니다.
2.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기가 쉽사리.
3.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양에 옮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4.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해세적인 것들, 곧 부패, 두려움, 욕망,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6.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능동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렸습니다.
7.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이 빠져 나갈 때에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8.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앙의, 증상, 또는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수리산다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9.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형상과 함께 벗어 버리고,
10.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지식을 행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성숙해지게 됩니다.
11.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헬레게 받은 이도 헬레게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타아인도, 종도, 노예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양이 계시니 때문입니다.
12.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랑, 귀족한 사랑, 사랑받은 사랑에게 마음에서 우리나눔 동행한 호의인 겸손과 온유한 인사를 행하십시오.
13. 누가 누구에게 불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필사자 : 나경의용 베네딕토]

[쿨로 (3) 장 (14) 절]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모든 물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으십니다. 감동하는 사랑이 되십시오.

16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모든 물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으십니다. 감동하는 사랑이 되십시오.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기쁨을 다함께 서로 기쁘고 기뻐하십시오.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편과 찬미가인 영광을 불러 드십시오.

17 많은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정

18.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은 미쁘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19.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본받게 하도록 하십시오.

20. 자녀 여러분, 무슨 일이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21.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시오.

22. 종 여러분, 무슨 일이나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사랑으로 노예를 맡기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주님으로 하여 말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23.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하도록 관음으로 하십시오.

[필사자 : 넬리용 베네딕도]

[3월 (3)장(24)절]

24. 주님에게서 생복 개선을 승으로 받은 것을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25. 불의를 저지르며 사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불의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을 근심하는 법이 있습니다.

[필사자 : 변의용 베네딕도]

- 1 4 주인 여러분, 풍등을 정당하고 긍정하게 다루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죽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여러 가지 권고

- 2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 3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신비를 위하여 자음 간혀 있습니다.
- 4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말과 그 신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겸손하게 처신하고 시간을 잘 쓰십시오.
- 6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정당하고 또 소음으로 말을 내건 것 같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끝 인사

- 7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신 충실한 일꾼이며 나의 동료종인 리키코스가 내 모든 사정들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것 입니다.
- 8 그 때문에 내가 리키코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형제를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 하기에 하려는 것입니다.
- 9 충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모네시오스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행인입니다. 이들이 이곳 사정들 여러분에게 다 알려 줄 것입니다.
- 10 나와 함께 가려 있는 아리도리코스, 그리고 바르나바의 사촌 마르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마르가에 상해하는 여러분이 이미 지시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받아들이십시오.
- 11 유산환관하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할례 받은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협력자는 이들 뿐인데, 이들이 나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 12 여러분의 동행인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에파프라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오묘한 사람인, 포타스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진 사랑의 글쓴이로서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 13 나는 그에 관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포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소금을 많이 흘린 있다는 것입니다.

[공로서 (4) 장 (14) 절]

14 사랑하는 인사 주카와 테마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15 라우디케이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남파와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 여러분의 이편지를 읽고 난 뒤에 라우디케이아 교회에서도 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라우디케이아에서 가는 편지를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17 아르키프노에게는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대가 죽방안에서 받은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18 이 인사말은 나 바오르가 직접 씁니다. 시골에 윌여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열동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필사자 : 안도현 아데스]

테살로니아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인사

1 바오로와 실바산과 티모테오가 하나님 아버지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아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테살로니아 신자들의 믿음

2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3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뻐합니다.

4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대죄업을 앎다.

5.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과 사랑과 금욕심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치상하였는지 여러분은 안고 있습니다.

6.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사랑까지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실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10.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그들의 아들인 곧 다락재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필사자 : 오산도현 아메신]

[테살로니가 (2) 장 (1) 절]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선교

1.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2.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에 플라티네너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격렬히 투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 우리의 설교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이익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4.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많은 복음을 그대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의 배움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려는 것입니다.
5.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구실을 붙여 대복을 부리지도 않았습다.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십니다.
6.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지도 않았습다. 여러분에게서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찾지 않았습다.
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엄 있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 하였습니다.
8.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재산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로써 우리에게 사랑받을 사랑이 되었습니다.
9.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순교와 고생을 잘 기억할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편지를 가지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 하였습니다.
10. 우리가 상차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인접하게 또 흠잡힐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11.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12. 당신의 나라와 영광인 여러분은 복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귀찮고 격려하며 역설 하였습니다.
13.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하나님의 말씀 들 때,

[필사자 : 안도현 아녜스]

[테살로니가서 (2) 장 (13) 절]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바닷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산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4 형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유다의 하나님 교리들을 복받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꼭 산자들이 유다인들에게서 받은 것과 똑같은 교반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포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15 유다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예언자들도 죽였으며, 우리에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고 모든 사람을 적대하는 자들로서,

16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진노가 닥칩니다.

테살로니카로 다시 가려는 바오

17 형제여러분, 우리는 잠시에게는 하지만 여러분을 떠나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각은 애를 씁니다.

18 사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나 바오로가 여러차례 가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19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과연 그날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찬 온
희망이 되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20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1 } 그래서 우리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는 하고,

2 }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형제자인 디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며,

3. 이 환난 속에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4.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겪으리라고 여러분에게 예고하곤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애로 나도 더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디모테오를 보냈습니다. 유희하는 자가 여러분은 유희해서 우리의 보람을 헛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필사자 : 안도현 아베스]

[테살로니개 (3) 장 (6) 절]

- 6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갔던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 7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 걱정을 바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 8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안심합니다.
- 9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기쁨을 드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 10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 11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나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나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2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랑을 능통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나 더욱 자라게 하신 줄 믿고 있습니다.
- 13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나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

- 1 4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곧은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간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 2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 3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불순을 멀리하고,
- 4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 5.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교인들처럼 섹슈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 6. 그리고 이러한 일을 형제에게 잘못된 지시거나 그를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필사자 : 오성호, 이케스]

[테살로 전서 (4) 장 (6) 절]

- 말하고 또 엄숙히 경건한 바와 같이,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 7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서 살라야 할 분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 8 그러므로 이 사탄을 무시할 자는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은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 9 형제에게로 보내는 누가 여러분에게 새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10 사실 여러분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 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라.
- 11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행하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또한 제 일을 하십시오.
- 12 그러면 바깥 사랑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선해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 13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몸체는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랑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14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들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삼 이단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 16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찬미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 17 그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삼 이단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 18 그러나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 1 |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보내는 여러분에게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 주님의 날이 마치 밤포동처럼 온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사자 : 안소연 아멘]

[테살로전서 (5) 장 (3) 절]

3.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정하다" 할 때, 아기는 밤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따면이 닳히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6.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않고, 많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니다.
 7.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8.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많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띠고 삽시다.
 9.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10.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1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마지막 권고와 인사
12.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13. 그들이 하는 일은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망한 이들을 격려하고 악한 이들은 도와주며, 참음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15. 아무도 다른이에게 악은 악은 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16.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17. 끊임 없이 기도하십시오.

[필사자 : 안도현 아녜스]

[테살로전서 (5) 장 (18) 절]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산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9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20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21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22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23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신 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25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26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십시오.

27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십시오.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필사자 : 안도현 아멘]

[리살로니카 (2) 장 (1) 절]

종말의 표징

- 1)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 2)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았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 하더라도, 험사리 마음이 흔들라거나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 3)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사도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멸망하게 되어있는 그 자는
- 4)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에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들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 5)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 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 6)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어떤 것이 그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자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 7) 사실 그 무법의 신비는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지하는 어떤 아가 몰려나야 합니다.
- 8) 그러면 그 무법자가 나타날 터이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김으로 그자를 멸하시고 당신 재림의 광채 그자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 9)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꾀를 가지고 거짓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 10)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 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 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 받도록 뵈옵는 이들

- 13)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 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며 주셨기 때문입니다.
- 14)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필사자 : 유다혜 아멜리아]

[레살로사카 (2) 장 (15) 절]

15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같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경애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요청

1 }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게서처럼 바르게 퍼져 나가 찬양을 받고,

2 우리가 교약하고 약한 사랑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주님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고 여러분을 약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4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 믿습니다.

5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파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체류에 대한 경고

6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하십시오.

7 우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8 아무에게서 양식을 가져 먹어먹지 않았으며,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떡을
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방앗으로 일하였습니다.

9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보았을 때 하려는 것입니다.

10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게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필사자 : -윤다혜 아멜리아]

[테살로니카 (3) 장 (11) 절]

11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살아오면서 다른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12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들여야 하십시오.

1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14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보내는 말이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옥하게 도와 상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15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화이하십시오.

축복과 끝 인사

16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17 이 인사말은 나 바르사가 작성 합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 편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필사자 : 윤다래 아멜리아.]

인사

1.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2. 믿음으로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모테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와 내리기를 빕니다.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당부한대로, 그대는 에페소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일부 사람들에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4.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을 동치하여 알려지는 하느님의 계획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역족만 불러일으킵니다.
5. 그러한 지식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6.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이야기에 빠져 있습니다.
7. 그들은 율법 교사로 자처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자기들이 그로록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역할

8. 우리가 아는대로,
율법은 율법답게 이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9. 이 말의 뜻은 율법이 위인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법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불경한 자와 죄를 짓는 자, 하느님을 무시하는 자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자,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 사람을 죽인 자,
10. 불륜을 저지르는 자, 비역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그 밖에 무엇이든 건전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필사자 : 은다혜 아멜리아]

[티모테오 (1) 장 (11) 절]

11 건전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으로, 나는 이 복음을 위임 받았습니다.

바오로의 감사

12 나를 굳세게 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13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1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쳐흘렀습니다.

15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16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서 먼저 나를 당신의 한없는 인내로 대해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17 영원한 임금이시며 불사불멸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티모테오의 책무

18 내 아들 티모테오, 전에 그대에 관하여 선포된 예언에 따라 그대에게 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 예언에 힘입어 훌륭한 전투를 수행하십시오.

19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선당하였습니다.

20 그들 가운데에 히메나오스와 알렉산드로스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필사자 : 은다혜 아멜리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 1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우리가 아주 신심 있고 품위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3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일입니다.
- 4 하느님께서 모든 사랑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 5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 6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 7 나는 이 증거의 선포자와 사도로,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예배 자세

- 8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말다툼 하는 일이 없이,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 9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장하기를 바랍니다. 높은 땃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 아니라,
- 10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답게 선행으로 자랑하십시오.
- 11 여자는 조용히 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 12 나는 여자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 13 사실 아담이 먼저 뱀에게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 14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 15 그러나 여자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필사자 : 유다혜 아멜리아.]

교회 지도자의 자격

- 1 이 말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동적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훌륭한 직무를 바라는 것입니다.
- 2 그러므로 감동을 내무할 때가 없어야 하며, 철저한 것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순서법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 3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슬플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
- 4 고 돈 욕심이 없으며 자기 집안을 잘 이끌고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은
- 5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 기 집안을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 6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심판에
- 7 더 아질 위 험이 있습니다. 또한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방을 받거나 악마의 속가미에 걸리지 않습니다.

봉사자의 자격

- 8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정확
- 9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뉘들의 신비를 간직한
- 10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그들을 먼저

[필사자 : 안태모 마태오]

[티모 (3) 장 (11 (13) 절]

시험해 보고 나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경우에만 봉사직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11 다. 여가들도 대량가지도 품위가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12 다. 봉사자들은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
어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일을

13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봉사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들은 좋은
명성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미움에 더욱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필사자 : 안태오 마태인]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고

- 1 4 성경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사탄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의 거버넌을 버릴 것입니다.
- 2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 3 그들은 흥인을 금지하고, 또 믿어서 진리를 알게 된 이들이 감사히 받아 먹도록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음식들을 끊으라고 요구합니다.
- 4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5 사실 그것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

- 6 이러한 사설을 형제들에게 주시게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그대가 지금까지 떠온 그 훌륭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 7 지속하고 망령된 선화들을 물라하십시오. 신앙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 8 물이 단련도 조짐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형제나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 9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를 반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 10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많은 이들의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느님께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 11 그대는 이것들을 권고하고 가르치십시오.
- 12 아무도 그대를 짊어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하거나 단련케 시나, 많은 이들의 복이 되십시오.
- 13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광하십시오.
- 14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천로만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용히 여기지 마십시오.

[필사자 : 잔하림 글라과]

[1리모 (4)장(15)절]

- 15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진열하십시오. 그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 16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 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선자들을 대하는 자세

- 1 5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내외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고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 2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누이처럼.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과부들에 관한 지침

- 3 무의탁 과부들을 존대하십시오.
- 4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없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 가정에서 헌신하고 어머니에게 보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다음에 드는 일입니다.
- 5 무의탁 과부 곧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된 여자는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 기도하십시오.
- 6 그러나 자기 목적으로 사는 과부는 살아 있더라도 죽은 몸입니다.
- 7 이러한 것들을 하일리 그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기 하십시오.
- 8 어떤 사람이 자기 청탁 특히 기쁨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지니면 자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 9 과부 영당에 오를 수 있는 이는 예수상 이상으로 한 남자의 충실한 아내였고
- 10 선행으로 좋은 평판을 받은 여자에게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 내고 나라를 축대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고 온갖 선행에 몸을 바친 사람이야 합니다.

[필사자 : 진하림 권귀하]

I 레오 (5) 장 (11) 절

- 11 그러나 젊은 과부는 제외하십시오. 정복이 거의 고스도에게서 멀어지면 혼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 12 그러나 처음의 사랑을 깨뜨린 것이 되기 사랑을 받게 됩니다.
- 13 게다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빈둥거리는 버릇을 익힌 것입니다.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수다 떨고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할 것입니다.
- 14 그러나 나는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집안을 꾸려 나가, 적대자에게 위로를 할 줄 아는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 15 사실 어떤 젊은 과부들이 이미 돌아서서 사랑을 떠르고 있습니다.
- 16 어떤 여자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으면, 그 여자가 도움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리막 과부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는 젊은 자취지 많아야 합니다.

원로들에게 관한 지침

- 17 지도와 정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원로들은 이종으로 존대를 받아 마땅합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애쓰는 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 18 사실 성경도 "타락 일을 하는 소외에 복귀함을 위하여" 또 "일말이 풍년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 19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원로에 대한 과부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 20 줄곧 죄를 짓는 이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쫓겨,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을 가지게 하십시오.
- 21 나는 하느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의 천사들 앞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선입견 없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무슨 일이든 엄격히 따라 하지 마십시오.
- 22 애국이나 선뜻 양보하지 말고, 남의 죄에 연루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결백하게 지켜 가십시오.
- 23 이제는 그만 마시지 말고, 고대의 위장이나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로 즐기기 마십시오.
-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영변하게 재앙 같이 드러나, 어떤 이들의 죄는 재앙 때에야 드러납니다.

[필사자 : 진희림 권과과]

[1리모 (5)장(25)절]

25 마찬가지로 선행 역시 명백한 것으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까지나 늦게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종들에 관한 지성

1 6 종말의 명제를 대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자기 주인을 크게 존경해야 할 사
 6 6으로 여겨야 합니다. 고대야 하나님의 이름과 원의 가르침이 보물을 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선자를 주의로 둔 종들은 그 주인이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대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자기들의 선행으로 덕을 보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선
 2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대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단과 함몰에 관한 경고

3 누른듯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과 성령에 부합되는
 3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4 그는 교만해서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쟁과 선지적 방언의 열정을
 4 쏟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기와 분쟁과 증상과 모든 악행과

5 끊임없는 알력이 나와, 정성이 쇠진 전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번져 갑니다.
 5 그들은 심신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6 물론 자족할 줄 알면 심신은 큰 이득입니다.

7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8 덕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9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과열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용가미라 여겨지고
 9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10 새들 등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등을 따라다니는 믿음에서 멀어져
 10 방향하고 많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

11 하나님의 사랑이며, 고대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 대신에 의로움과 선함과 믿음과

[필사자 : 김하림 글리자]

[1차 (6) 장 (11) 절]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12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구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고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영구한 생명으로 복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13 만물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 그분 보낸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시게 지시합니다.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때까지 홀로 있고 나타날 때 같이 계명을 지켜십시오.

15 제도에 그 일을 이룰 분은 복되시며 한 분 뿐이신 동자 입들의 영혼들에게 주님들의 주님인 분

16 홀로 복사보일하시며 대가할 수 없는 복 속에 새는 분 어떠한 일도 빈 일이 없고 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광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자들의 관한 지침

17 형제에게 부자로 사는 아들에게는 인내하시 마고 지시하십시오. 또 양하지 못한 제물에게 희망을 두지 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동성히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지시하십시오.

18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복되해지고, 이집같이 네덜인 기미 나쁘고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19 그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를 위하여 훌륭한 기도가 되는 보물을 쌓아, 참생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고와 인사

20 리모레오, 고백이 많은 것을 잘 지키십시오. 사비 지식의 속된 망명과 반공들을 멀리하십시오.

21 아멘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을 받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필사자 : 정하림 권라라]

리모테인에게 보낸 둘째 시간

인사

1 |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2 사랑하노는 아들 리모테인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자비와 인내가 내게를 베푷니다.

감사와 격려

3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달은 약점을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 나는 그대의 충성을 생각하면서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을 기록 할 것입니다.

5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뻐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루키아와 어머니
테우스테에게 그들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그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6 그처럼 깨달기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복애하십시오.

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침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인내의 영을 주셨습니다.

8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죽임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행하십시오.

9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10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내시기 한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히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한히 보이 주셨습니다.

11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시모니아 사도라 스승으로 인명을 바쳤습니다.

12 그처럼 깨달기에 나는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필사자 : 진희림 주지마]

[2권9 (1)장(12)절]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 내가 많은 것을 그에게서 그에게서
 지켜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한다.

13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진정한 말씀을 본보기로
 살으십시오.

14 우리 안에 머무르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야 많은 그 훌륭한 것을 지켜보십시오.

바울로의 변호사인 헬리오스

15 그러나 알라타, 파벨로스와 헤르메네우스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했
 습니다.

16 주님께서 인제시모스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생계를 돌우기
 하였으며, 내가 사물과 대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17 모하리 로마에 갈 때는 열심히 나를 찾아 도와 주었습니다.

18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그가 주님께에서 자비를 얻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그가 갈 때
 많은 방해를 하였으므로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필사자 : 진희관 권기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 1)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 곧세어 기뻐하시오.
- 2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다른 이들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권해 주십시오.
- 3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에 동참 하십시오.
- 4 군대에 불우하는 이가 자기를 군사로 뽑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개인의 일상사에 언제나 여서는 안 됩니다.
- 5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화관을 얻지 못합니다.
- 6 애쓰는 능부가 소출의 큰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 7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재단하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 8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좋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 9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견뎌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 10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언제 하려는 것입니다.
- 11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 12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 13 우리를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 받는 일꾼

14 신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실권을 벌이지 말라고 하느님 앞에서
업습히 경고하십시오. 그런 권은 아무런 이득 없이, 듣는 이들에게 해를
끼칠 따름입니다.

15 그대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것 없이 권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꾼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16 속된 광언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사람들을 점점 더 큰 불경에 빠지게
합니다.

17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사방을 파먹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히메네오스와 필레토스가 있습니다.

18 이라들은 권리에서 빛나가, 부활,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몇몇 사람의 믿음을 망쳐 놓고 있습니다.

19 그러나 하느님께서 높이신 튼튼한 기초는 그대로 서 있으며,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아신다." 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불의를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 불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그릇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길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 버리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 곧 거룩하게 되어 주인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또 온갖 좋은
일에 쓰이도록 갖추어진 그릇이 될 것입니다.

22 청춘의 욕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23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알다시피 그것은 싸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24 주님의 종은 싸워서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 가르치며
참음성이 있어야 하고,

25 반대자들을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하여 권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필사자 : 원래리 세바스티안]

26 또 악마에게 붙잡혀 그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악마의
올가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타락상

- 1 }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려올 것입니다.
- 2 } 사람들을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3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헐뜯고 질제할 줄 모르고,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4 배신하며, 무모하고 고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5 길으로는 신심이 있는 체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 6 그들 가운데에는 이 집 저 집에 몰래 들어가, 칼자리 욕점이 이끌려
귀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여자들은 사로잡는 자들이 있습니다.
- 7 그 여자들은 언제나 배운다고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 8 얀네스와 얀브레스가 모세에게 대항한 것처럼 저들도 권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신이 썩고 믿음의 낙오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 9 그러나 저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얀네스와
얀브레스가 그리하였듯이, 저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지시

- 10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처신, 목표와 믿음, 끈기와 사랑과 인내를
따랐으며,
11 내가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과 리스트라에서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박해를 견디어 냈던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 12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필사자 : 민재희 세바스티안]

[티모2 (3)장(13)절]

13 그런데 알한 사람들과 험잡꾼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사랑해질 것입니다.

14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5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16 성경은 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17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출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1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믿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뻐하며 즐겁게 나쁘든지 꾸준히 계층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3 사람들이 점점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4 그리고 진리에 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5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신을 차리고 과반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6 나는 이미 하느님께 물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7 나는 훌훌리 싸웠고 달릴 길은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권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필사자 : 민재표 | 세바스티안]

[티모트 (4) 장 (8) 절]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탁

9 그대는 시들러 나에게 빨리 오십시오.

10 데바스는 헬렌세를 사랑한 나머지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가고,
코레스켄스는 갈라티아로, 티토는 달마티아로 갔습니다.

11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 짐무에 요긴한 사람이니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12 티키코스는 내가 에페소로 보냈습니다.

13 올 때, 내가 트로아스에 있는 카르포스의 집에 두고 온 외투와 책들,
특히 양피지 책들을 가져 오십시오.

14 구리 세공장이 알렉산드로스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15 그대도 그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16 나의 첫 변론 때에 아무도 나를 거들어 주지 않고, 모두 나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생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7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 길에 계시면서 나를 온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18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령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끝 인사

19 프리스카와 아퀼라에게, 그리고 오네시포로스 집안에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20 에라스토스는 코린토에 의무르고 있습니다. 트로피모스는 병이 나서
내가 밀레토스에 남겨 두었습니다.

[필사자 : 민재림 | 세바스티안]

[티모2 (4) 장 (21) 절]

21 겨울이 되기 전에 서로를 오십시오. 에우블로스와 푸덴스와 리도와 클라우디아와 그 밖의 모든 형제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22 주님께서는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티모에게 보낸 서간

인사

1 | 나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렇듯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

2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센 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3 사실 하느님께서는 재대에 복음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4 이러한 나 바오로가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모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와 영광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5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 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 원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로 신자이어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7 사실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쉬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필사자 : 빈래희 세바스티안]

[디토 1 (1) 장 (7) 절]

- 8 순종이나 난폭한 사람이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순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9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야 건전한 가르침대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코레타 신자들의 상황

- 10 순종하리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들리
할례 받은 자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11 그들이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확한 이익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가르치면서 여러 집안을 온통
망쳐 놓고 있습니다.
12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들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코레타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 교약한 짐승, 계은
먹보들이다."
13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의 마음이 건진해져서,
14 유대인들의 신화, 그리고 진리를 저버리는 인간들의 거명에 정신을
팔지 않게 하십시오.
15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16 그들은 즐느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정합니다.
겸오스롭고 순종하리 않으며 어떠한 선행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필사자 : 윈재희 세바스티안]

[티토 (2) 장 (1-14) 절]

어려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한 지시

- 1 그러나 그대는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 2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를 할 줄 알고 기쁨이 있고 신중하며,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
- 3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몽기침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남을 겸담하게 알고, 술의 노여가 되지 않으며,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4 그러나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혼란시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이걸로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5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행동하려고 권고하십시오.
- 6 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 주십시오. 가르칠 때에는 고결하고 품위있게 하고
- 7 드침 짐을 떠가 읽는 건전한 말을 하여, 적대자가 무리를 끌고 나쁘게 말할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말을 당하게 하십시오.
- 8 종들에게도 권고하여, 어떠한 일에 서나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 마음에 들도록 하며, 말대꾸를 하거나
- 9 돌키기 말고, 늘 온전한 성실을 보여, 우리 귀환자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백내게 하십시오.

모든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

- 11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12 이 은총이 우리를 교화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헌신에서 신중하고 인품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
- 13 빛된 희망이 이루어지게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 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를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필사자 : 안서현 안정리]

[티토 (3) 장 (1-11) 절]

	<p>15 그대는 강령한 관의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권고하고 또 꾸짖으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p>
	<p>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p>
<p>1)</p>	<p>선지자들에게 성기서켜,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령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p>
<p>2</p>	<p>남을 경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을 이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p>
<p>3</p>	<p>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속에 살았으며, 고약하게 글로 서로 미워하였습니다.</p>
<p>4</p>	<p>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포의와 인애가 드러난 그때,</p>
<p>5</p>	<p>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p>
<p>6</p>	<p>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복이 주셨습니다.</p>
<p>7</p>	<p>그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p>
<p>8</p>	<p>이 말은 화설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영결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이 선령을 하는 데에 전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령은 사람들에게서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p>
<p>9</p>	<p>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불경과 율법 논란을 피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p>
<p>10</p>	<p>불파를 일으키는 사람에게서는 한 번 또 두 번 경고한 다음에 관계를 끊으십시오.</p>
<p>11</p>	<p>그대도 알다시피 그러한 자는 탈선하여 조를 지으면서 지선을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p>

[필사자 : 안너현 인컬러]

부탁과 인사

12 내가 아르테미다스나 티키크스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서둘러 니코폴리스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3 벨루가 제나스와 아폴로가 그대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것 없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14 우리 선사들도 선행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 남에게 결실리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못하는 사람이 도져 얻을 것입니다.

15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부를 전래 주십시오.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필사자 : 양서현 안병라]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인사

- 1 1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나 바오로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
- 2 그리고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폰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 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

- 4 나는 기도 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5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 6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7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스에 대한 부탁

- 8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 9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 10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 하는 것입니다.
- 11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필리 (1) 장 (12) 절]

- 12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 13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 14 그대의 승낙없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15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 16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 17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 18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 19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서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20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 21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 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 22 아울러 나를 위하여 손님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도기를 바랍니다.

끝 인사

- 23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갇혀있는 에파프라스,
- 24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아리스타르코스와 티모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 2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필사자 : 김우진 크리스티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서간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 1 1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 2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 3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닫지 않으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 4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
습니다.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하느님

- 5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6 또 말아드님을 저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 7 그리고 천사들과 관련하여서는 "그는 자기의 천사들을 바람처럼 만들고 자기의 시종
들을 타오르는 불처럼 만든다." 하는 말씀이 있고,
- 8 아드님과 관련하여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며 당신의 왕국은 공정의 흠입니다.
- 9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하느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당신 동료들이 아니라 당신께 부어 주셨습니다."
- 10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태초에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히브 (1) 장 (11) 절]

- 11 그것들은 사라져 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입니다.
- 12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옷가지처럼 많아 치우시고 그것들은 옷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해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 13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때까지."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14 천사들을 모두 하나님을 시종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이 아닙니까?

고귀한 구원

- 1 2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더 명심하여, 빛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2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유효하고, 그것을 여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정당한 벌을 받았는데,
- 3 하물며 우리가 이렇듯 고귀한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그것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 4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표징과 이적과 갖가지 기적을 통하여, 또 성경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어 당신의 증언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영도자

- 5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곧 앞으로 물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 6 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 7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의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 8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시면서, 그 아래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필사자 : 김우진 크리스티나]

[히브 (2) 장 (8) 절]

뵈어는 만물이 아직도 그의 지배아래 들지 않았습니다.

- 9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 11 사랑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 거룩하게 되는 사랑들이나 모두 한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하지 않으시고,
- 12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저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 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13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보라,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 14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 15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여 앓아져있는 이들을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16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피 주십니다.
- 17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18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필사자 : 김우진 크리스티아.]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1	}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2	
2	모세가 "하느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양생을 세우신 분께 충신했습니다.
3	그러나 집을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듯이, 예수님도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합니다.
4	어떤 집이든 그것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5	모세는 하느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명하려고, "종"으로서, "그분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었습니다."
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집안을 맡은 아드님으로서 충신했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안입니다. 우리의 희망에 대하여 확신과 공지를 굳게 지니는 한 그러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안식
7	그러므로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8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9	거기에서 너희 고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10	사십 년 동안 그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빛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11	그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2	형제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13	"오늘" 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14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러합니다.

[필사자 : 김우진 크리스트나]

1 히브 (3)장(15)절

- 15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반항하던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셨는데,
- 16 듣고도 반항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빠져 나온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 17 또 하느님께서는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화가 내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사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 18 또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 19 우리가 보듯이, 과연 그들은 불신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필사자 : 김익진 크리스토나.]

[히브 (4) 장 (1) 절]

- 1 4 그리고 하님의 인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진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각의를 기울입니다.
- 2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기쁨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귀여져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3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인식처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님께서 "그러하여 내 불노하여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인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인식처는 물론 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 4 사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님께서는 하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아섯날에 쉬셨다."
- 5 또 여기에서는, "그들은 내 인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 6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곳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있고, 또 예전에 기쁨소식을 들은 이들은 순종하지 않은 탓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 7 하님께서는 다시 "오늘" 이라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앞서 인봉한대로 오랜 세후의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들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마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 8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식처로 이끌었다면, 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 9 그러므로 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참안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10 하님께서 하서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들의 인식처에 들어갈 이도 사기가 하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 11 그러니 그와 같은 불순종의 분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실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인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써시다.
- 12 사실 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갈년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랑 속을 꿰뚫어 훔과 영을 거르고 관철과 관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생을 가려냅니다.
- 13 하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별거승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님에게 우리는 생을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님

[필사자 : 김남욱 아케스]

[히브 (4) 장 () 절]

- 14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 15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 16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 1 5 모든 대사제는 사랑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 2 그는 자기도 약점을 잡혀지고 애통으로, 무자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 3 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 4 이 명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 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온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 6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 7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낼수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 8 예수님께서도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 9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으며,
- 10 하나님에게서 멜키세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 11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알아듣는 데에 들어갈까말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 12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남에게서 배우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분은 간단한 왕식이 아니라 적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 13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야기이므로, 울고 그음을 가리는 일에 서웁니다.

[필사자 : 김남옥 액세스]

[기본 ()장()절

14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6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현실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초를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죽음의 행렬에서 돌아오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2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판입니다.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5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압으로 물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이

6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소개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드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목을 보는 것입니다.

7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농사짓는 이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는 땅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습니다.

8 그러나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쓸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고,
마침내는 불에 태버리고 맙니다.

9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10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행성의 이름을 위하여 날여 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11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12 그리하여 게으른 사랑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복받은 이들을 본받는
사랑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1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이 그러한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14 "정녕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5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필사자 : 김남옥 애니스]

I 히브 (6) 장 () 절

-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이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 17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생략받을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 18 하나님께서 이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때까지로, 당신께 몸을 파한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칭찬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 19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값과 같아, 안전하고 견고하여 또 저 위상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 20 예수님께서도 멜키체덱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멜키체덱의 사제직

- 1 이 멜키체덱은 "살렘 임금"이며 "자극히 높은 신 하나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 하셨습니다."
- 2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 '평화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이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 3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있습니다.
- 4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보십시오. 선조 아브라함도 가장 높은 전리품에서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 5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사제직을 맡는 이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서 십일조를 거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성 역시 그들의 형제로서 같은 아브라함의 자생인데도 그렇습니다.
- 6 그런데 멜키체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았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았고, 약속을 받은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 7 따질 것도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 8 그리고 한쪽에서는 안전가 죽을 인간들이 십일조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필사자 : 김병욱 아네스]

[히브 (7) 장 () 절]

아직도 살아 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9 이를테면 십일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십일조를 바친 사제입니다.

10 멜키제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가 자기 조상의 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멜키제덱과 같은 대사제

11 백성은 레위의 사제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는데, 만일 그 사제직으로 온전성에 이를 수 있었다면, 아론과 같은 사제를 임명하지 않고 멜키제덱과 같은 다른 사제를 세울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12 사제직이 변하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13 여기에서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신 분으시,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14 우리의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제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15 멜키제덱과 같은 다른 사제께서 나오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16 그분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령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

17 "너는 멜키제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18 여정의 규정은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19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희망이 주어져,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20 이일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21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뒤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너는 영원한 사제다." 라고 하였듯이, 그분께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사제가 되었습니다

22 그러한 만큼 예수님께서 더 나은 계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23 또한 다른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24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25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필사자 : 김남욱 아케스]

[회보 (7) 장 () 절]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십니다.

26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기록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27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28 율법은 악정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필사자 : 김남옥 애코스]

새 계약의 대사제

- 1 8 지금 하늘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제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8 곧 하늘이 계신 존엄하신 분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시어,
- 2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 3 모든 대사제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사제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 4 만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면 사제가 되지 못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5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6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 7 저 첫째 계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다른 계약을 찾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 8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함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대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 9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 10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 줄 계약은 이러하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인 (8) 장 () 절]

71 그 때에는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제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으리라.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2 나는 그들의 불의를 너그럽게 보아주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73 하느님께서서는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첫째 계약을 낳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낳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필사자 : 이두혁 세라피노]

옛 계약의 저사

- 1 1) 첫째 계약에도 예배 법규가 있었고 지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 2 2) 사실 첫째 성막이 세워져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저사 빵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 3 3)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 4 4)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계약 궤가 있었고, 그 속에는 만나가 든 금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계약의 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 5 5) 그리고 궤 위에는 명광의 커튼들이 속조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 6 6) 이러한 것들을 갖춘 뒤, 사제들은 언제나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예배를 집전합니다.
- 7 7) 둘째 성막에는 대사제만 일 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와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바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 8 8) 이로써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 9 9) 이는 현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예물과 제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하는 이의 양심을 온전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 10 10)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부과된 외적인 법규일 따름입니다.

새 계약의 제사

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손으로 만들지 않음,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13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14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1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6 유언이 있는 곳에서는 유언자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7 유언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야 유효한 것으로,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18 사실은 첫째 계약도 피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9 모세는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물과 즙향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계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 “이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약의 피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히브리인 (4) 장 (21) 절]

- 21 그리고 성막과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 22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뜬 모상들을 이러한 의식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그보다 나은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 24 그리스도께서는, 참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 25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 26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 27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 28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필사자 : 이득혁 세라피노]

	유일한 희생 제사의 효과
1	70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배하는 이들이 한 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 제물을 바치는 일도 중단되지 않았겠습니까?
3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4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6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7	그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8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제물과 예물을”, 또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9	그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70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71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필사자 : 이득혁 세라피노]

[히브리인 (10)장(12)절]

- 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 13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 14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 15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16 “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과 맺어 줄 계약은 이러하다.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 주리라. ”
- 17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
- 18 이러한 것들이 봉서된 곳에¹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충실한 신앙 생활

- 19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 그분께서는 그 회정을 관동하는 새롭고도 살아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히 주셨습니다.
- 21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사제가 계십니다.
- 22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많은 물로 말끔히 씻겼습니다.
- 23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약속해 주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필사자 : 이득혁 세라피노]

[히브리인 (70) 장 (24) 절]

24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25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그 날이 가까이 있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26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제물이란 남아 있지 않습니다.
27	심판, 그리고 적대자들을 삼켜 버릴 맹렬한 불에 대한 무서운 예상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28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는 둘이나 세 증인의 말에 따라 가차 없이 처형됩니다.
29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계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얼마나 더 나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30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실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32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 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33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동무가 되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34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배어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5	그러니 여러분의 그 호곡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줍니다.
36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37	“조금만 더 있으면 울 이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지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필사자 :]

[히브리인 (11) 장 (1) 절]

39 우리는 두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믿음

- 1 11 믿음을 우리가 바라본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 2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 3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 4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 5 믿음으로써, 에녹은 하늘로 들어 올려져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들어 올리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 7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8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 9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 10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11 믿음으로써, 사라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던 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필사자 : 이두혁 세라피노]

[히브리인 (11) 장 (12) 절]

72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73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 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74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분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75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76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분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77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사악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78	그 외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악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79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악을 하나의 상징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20	믿음으로써, 이사악은 장래의 일을 두고 야곱과 에사우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21	믿음으로써,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22	믿음으로써,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탈출을 언급하며 자기의 유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였습니다.
23	믿음으로써,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4	믿음으로써,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25	죄의 일시적인 향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26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앞으로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사자 : 이두혁 세라피노]

[히브리인 (71) 장 (27) 절]

- 27 믿음으로써, 그는 임금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굳건히 걷디어 냈습니다.
- 28 믿음으로써, 모세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피를 뿌려, 만아들과 말배의 파괴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29 믿음으로써, 그들은 홍해를 마른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 30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이레 동안 예리코 성벽을 돌자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 31 믿음으로써,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화로이 맞아들였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임타, 다윗과 사뭇,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 33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얻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 34 맹렬한 불을 켜고 칼날을 벗어났으며, 약하였지만 강해졌고 전쟁 때에 용맹한 전사가 되었으며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 35 어떤 여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식구들을 다시 맞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누리려고, 석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고문을 받았습니다.
-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37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가족이나 염소 가족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
- 38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 39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약속된 것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 40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필사자 : 이두혁 세라피노]

시련과 인내

- 12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 2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원생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늘의 영광 받으셨습니까.
- 3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 내신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던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4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죄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 5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규계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 6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 하신다."
- 7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 8 모든 자녀가 다 받는 훈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자녀가 아닙니다.
- 9 게다가 우리에게도 우리를 훈육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버지께는 더욱 순종하여 그 결과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 10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자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삼간 훈육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훈육하시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 11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필사자 : 전민경 마리스탈라]

[히브리인 (12) 장 (11) 절]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운 열매를 가져다줍니다.
12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13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고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14	모든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15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솟아나 훈련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16	그리고 아무도 음식 한 그릇에 말인들의 짐을 팔아넘긴 예사우와 같이 불운을 저지르거나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7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사우는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18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볼수 있고 불이 타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19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20	“ 짐승이라도 산을 전드리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견디어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1	그 광경이 일어나 무서웠던지, 모세는 “ 나는 두렵다.” 하며 동을 떨었습니다.
22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다
23	하늘에 등록된 말인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과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24	새 계약의 증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필사자 : 전민경 마리스탈리]

[히브리인 (12) 장 (25) 절]

25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땅에서 지시하시는 분을 거부할 때에 저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늘에서 지시하시는 분께 등을 돌릴 때에야 우리는 더더욱 그 벌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26 그때에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번 더 땅안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 흔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27 "한번 더" 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을 곧 피조물들이 치워져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28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외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립니다.

29 우리와 하느님은 다 태워 버리는 불이십니다.

참된 공동체

1 13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2 13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셨습니다.

3 감복에 갇힌 이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해주고,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4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거나 간음하는 자를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5 돈 복성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직권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림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타죽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7 하느님의 말씀을 일러 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필사자 : 장민경 마리스텔라]

[리브리인 (13) 장 (8) 절]

-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 9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영광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살아간
이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 10 우리에게만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 봉직하는 이들은 이 제단의 음식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 11 대사제는 짐승들의 피를 속죄 제물로 성소 안에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 12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을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 13 그러나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죄를 함께 짊어집시다.
- 14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 15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제물을 바칩시다.
그것은 그분의 이음을 찬미하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 16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
- 17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성을
해드려야 하는 이들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날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 18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늘 슬바로
치산하려고 하기에 바른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 19 내가 여러분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합니다.

축복과 끝 인사

20 영원한 계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필사자 : 전민경 아리스텔라]

[히브리인 (13) 장 (20) 절]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느님께서서

- 21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부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 22 형제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적어 보내니 이 격려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 23 우리의 형제 티모테오가 풀려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 보게 될 것입니다.
- 24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 25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인사

- 1 | 1 |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열두 자파에게 인사합니다.

믿음과 시험과 지혜

- 2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갖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 3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깁니다.
- 4 그 인내가 완전한 훈격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 5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랑에게 너그럽게 베풀어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필사자 : 전민경 마리소렐라]

[야고보 (1) 장 (6) 절

6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풀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7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에서 이득것도 낚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8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랑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잡지 못합니다.

가난한 이와 부자

9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10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풀처럼 스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해가 퍼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

12 시험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13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포 아무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14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고압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15 그리고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16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17 온갖 좋은 선들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이 다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필사자 : 진민경 마리스텔라]

[야고보 (1) 장 (18) 절]

18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로됨 가운데 이르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

19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20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22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3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24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25 그러나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기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천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26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필사자 : 전인경 마리스텔라]

차별 대우

- 1 2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랑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2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룩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 3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랑에게는 "당신은 저기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 4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 5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복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 6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랑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랑들이 바로 복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 7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 8 여러분이 함으로 성경에 따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지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 9 그러나 사랑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 10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 11 "간음해서는 안 된다." 고 이르신 분께서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벼룩 간증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 12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사랑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필사자 : 전민성 아리스텔라]

13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믿음과 실천

14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15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16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 이따 마찬가지로 믿음이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18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서는 실천이 있소."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19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떨니다.

20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사악을 제단에 바칠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2 그래도 보십시오,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23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4 여러분도 보십시오,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야근보 (2)장(25)절]

25 마찬가지로 창녀 라함도 심부름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6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필사자 : 전인영 마리셀라]

말조심

- 1 3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아름답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2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 3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낙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그리고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정됩니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수목을 태워
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6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 7 온갖 들짐승과 나침승과 짐승과 바다 생물이 인류의 손에
잡혀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져 있습니다.
- 8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침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약한 것으로, 사랑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 9 우리는 이 혀를 주님인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를
하느님과 비슷하게 향소한 시냇물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 10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 11 같은 샘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12 나의 형제 여러분, 무라과나무가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필사자 : 은혜의 보나]

무라과를 낼 수 있습니까? 자 생도 단 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13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살전은 보여 주어야 합니다.

14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든 시기과 이기성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들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15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16 시기과 이기성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17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복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조은 영애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18 인내의 영애는 평화를 이룩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적

- 1 **4**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짐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가재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 2 여러분은 욕망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죽여 새를 해 번지만 얻어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 다독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3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지우는 데에 쓰려진 청하기 때문입니다.
- 4 절제 없는 자들이여, 세쌍과 우예를 사냥하는 것이 하나님과 적의를 사냥하는 것임을 잊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 5 아니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사탄이 계시니 영을 영결히 갈망하십니다."는 성경 말씀이 빈말이라 생각하십니까?
-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사를 베푸십니다."
- 7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니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 8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 9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 10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필사자 : 윤세희 분녀]

10인보(4)장()절

여러분을 놓여 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 11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 12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 분이십니다.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한다면 마옵니까?

자만하지 마라

- 13 자 이제, "모든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문에 가서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 14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 15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전처럼 일을 할 겁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 16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 17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필사자 : 윤서희의 보내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

- 1 5 자 아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 2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묵은 짐막혔습니다.
- 3 그대들의 금과은은 녹았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반하는 징계가 되고 볼처럼 그대들의 삶은 상켜 버린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사냥기만 하였습니다.
- 4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은 벼 인판에게 쥐어 먹고 가뭄엔 풍년이 소리도 지고 있습니다. 곡식은 거두어들이는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었습니다.
- 5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시련과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도 마음을 기쁨지게 했습니다.
- 6 그대들은 의인을 간악히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기도

- 7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들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 8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 9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으로부터 온 앞에서 계십시오.
- 10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등으로 많은 예언자들은 곤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필사자 : 은서희의 날니

1 야고보 (5) 장 () 절

- 11 사신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 낸 이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용의 인내에 관하여 듣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동행성이 크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 12 나의 형제 여러분, 묵언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두근도, 땅은 두근도, 그 밖의 무언은 두근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 할 것은 "예,"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13 여러분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은 기도하십시오. 증언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 14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은 교회의 무리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 15 그러면 만민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고요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 16 그러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 17 앵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랑이었지만, 바가 내리지 않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이 바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 18 죄로 내시 기도하고, 하늘이 바를 내리곤 땅이 소리를 냅니다.
- 19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랑이 진리를 빛내 헤매일 때 누가 그 사랑을 돌이켜 놓았다면,
- 20 이 사신을 알아 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은 사랑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 줄 것입니다.

1 필사자 : 윤지희 분남

베드로 전서

인사

- 1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고티아와 갈라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살이름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 2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경으로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피가 부려져 강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평화를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희망에 대한 감사

-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를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며, 죽은 이를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탄으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 4 또한 험악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록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록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 5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보람을 받은 것입니다.
- 6 그러나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순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7 그러나 그것은 불길 단련을 받도록 결국 없애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부려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필사자 : 유평태의 분니

[베드로전서 1] 장 () 절

8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볼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만기며, 이득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9 여러분의 믿음의 무척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은 은총을 두근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11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대한 근간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근 연구하셨던 것입니다.

12 예언자들은 그 말씀이 자신들이 이나리 여러분은 의하는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진 성경의 도움으로 내용을 정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천사들로 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해당하는 거룩한 생활

13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받은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14 아제는 슬프기는 지나가서, 전에 무사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리 말고,

15 여러분은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랑이 되십시오.

16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7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삼판하는 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산이름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18 여러분도 안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필사자 : 윤세희의 번나]

한편 생략 방식에서 제외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값어
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19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구하한 때로
그리된 것입니다.

20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21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인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신자 생활

22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서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행세하는 사람으로 되오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23 여러분은 서로 얽어지는 사이이 아니라 서로 얽어
안는 사이, 곧 서로 깨서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24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은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25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필사자 : 은서희분나

[1 베드 (2) 장 (1) 절]

- 1 2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우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증상을 버리십시오.
- 2 각반 아이처럼 영적인 순수한 것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의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 3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교회와 기초와 생명

- 4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분이 살아있는 줄 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된 값진 줄 이십니다.
- 5 여러분도 살아있는 줄로서 영적 집을 짓는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 6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들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 7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 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바윗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 8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지게 하는 바위" 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거리고 임금의 사제단 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위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유업을 선포 하게 되었습니다."
- 10 여러분은 한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재물을 입은 사방을 입니다.

선자와 이교인

- 11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둘러 새물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 12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그대야 앎의 자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들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임을 지켜보길, 하나님께서 찾아 오시는 날에

[필사자 : 강동현 요리아]

[1 베드 (2) 장 () 절]

그 분이 찬양하게 될 것 입니다.

신앙한 국민

- 13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가 복종하십시오. 임에게는 주권자이므로 복종하고,
- 14 충동들에게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도록 임금이 파견한 사람이므로 복종하십시오.
- 15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 16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십시오.
- 17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종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임무를 존경하십시오.

찰한 하인

- 18 하인 여러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 19 불타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고난을 참아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 20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에는, 견디어 낸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 21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간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 22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 23 고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을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 24 고분께서는 위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 25 여러분이 전에는 양치검 길을 알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사이시며 보환자이신 그 분께 돌아왔습니다.

[필사자 : 강도현 유키아]

아내와 남편

- 1 }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도 아내인 여러분의 말없는 처신으로 감화를 받게 하십시오.
- 2 1등은 여러분이 경건하면 순종하게 처신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리될 것입니다.
- 3 머리를 닿아 올라거나 금발을 달거나 좋은 옷은 차려입거나 하는 걸치장을 하지 말고,
- 4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같이 섞지 않는 것으로,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 5 전에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부인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이렇게 자신을 치장하였습니다.
- 6 예전대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부리며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 7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인 아내를 존중하면서, 이해심을 가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도 생명의 문중을 함께 상속받은 사랑에 대한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기도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참다운 신앙 공동체

- 8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하고 서로 등장하듯 형제처럼 사랑하고 재물을 베풀며 겸손한 사랑이 되십시오.
- 9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르다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른 심을 받았습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 10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이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혀를 조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여라.
- 11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쉼 추구하여라.
- 12 주님의 눈의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신다."

박해에 맞선 헌신

- 13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 14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필사자 : 강소현 율리아]

[1베드 (3)장()절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닦아라하지 마십시오.

15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짐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16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화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 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증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17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리

18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운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살해되셨지만 영혼은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19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개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20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창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여덟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1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보형인 시레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시레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나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2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필사자 : 강단현 율리아]

[1베드 (4) 장 (1) 절]

참 그리스도인

- 1 4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무장하십시오.
육으로 고난을 겪는 이는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 2 그러나 남은 지상 생활동안,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 3 지난날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교인들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방탕, 욕정, 주장, 흥청대는 술 잔치, 폭음, 불경스러운 무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 4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들과 함께 무모한 방종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며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 5 그들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려고 준비를 갖춘 분께 심을 해 모셔야 할 것입니다.
- 6 그래서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들이 육으로 다른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종말과 공동체 생활

- 7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 8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줍니다.
- 9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 10 제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다양한 은종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 11 말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 12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김 것 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 13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필사자 : 강소현 율리아]

[()장()절]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14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모략꾼으로서 고난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16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17 사탄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 "의인이 개개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한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이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성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필사자 : 강민현 율리아]

[1베드 (5)장(1)절]

지도자들의 의무

- 1 5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정의신 고난의 종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 2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원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 3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 4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검토와 개어있음

- 5 젊음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검토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풁습니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으실 것입니다.
- 7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 8 정신을 차리고 개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인렁거리듯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돌아다닙니다.
- 9 여러분은 믿음으로 완강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은 알라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 10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 11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멘.

결인사

- 12 나는 생생한 형제로 여기는 슬해수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곧 하나님의 창된 은총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필사자 : 강남현 율리아]

[()장()절]

그 문종안에 권면히 서 있도록 하십시오.

13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14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사자 : 강민현 윤리아]

베드로의 둘째 서간

인사

- 1 |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덕분
| 에 우리처럼
|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 2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으셨고 은총과 긍휼히 보시는 여러분에게
| 풍성히 내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

- 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진 부르신 분을 알게 해
| 주시므로, 당신이 지니신 하느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심에
| 필요한 모든 것을 내리 주십니다.
- 4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 내리 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빛이
|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 5 그러나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 더욱 더하고 덕이 많을 더하여,
6 양에 전제를, 전제에 인내를, 인내에 신심을,
7 신심에 형제애를, 형제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 8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든 또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9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지니지 못한 자는 근사한이러니 열을 받지 못하고,
| 자기기만적인 자에서 깨닫혀짐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 10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덕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
| 그렇게 하건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입니다.
- 11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필사자 : 이정혁 두꺼]

- 12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읽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 13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진 것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 14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밝히 주셨듯이, 내가 이 천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15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 16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능을 알려 줄 때, 교묘하게 꾸며 낸 신호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하신 지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 17 그분은 정령 하늘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늘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리심을 따위의 일입니다.
- 18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 19 이로서 우리에게서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눈이 밝아지고 섧증이 떠날 때까지, 어둠 속에서 바치는 빛나는 비리인들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 20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21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성경에 이르러 하늘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필사자 : 이정혁 주교]

거짓 예언들과 거짓 교사들

- 1)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언의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는 죽음을 부인하며서 파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 2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행위를 본받아,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은 것입니다.
- 3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에게 당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4 새날 하늘계산을 지극히 작은 흰들을 그냥 봐야 하지 않으며, 이들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의 날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십시오.
- 5 또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흉문 덮으실 때, 그 옛 세상을 그냥 지나 넘겨 아물으십시오. 그에 의인들의 선한 노닐 다른 일로 새날과 함께 지게 극락입니다.
- 6 선함과 고요 두 고운 명망하도록 단정하고 갓 데어오 믿으며,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일대로 세우십시오.
- 7 그에 부합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운 격조 의로운 것은 구해 극락입니다.
- 8 새날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에 신변서 무도한 행실들을 보고 들으리니 그 의인은 영히 날마다 리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 9 죽임계산 어떻게 신심 깊은 이들은 시련에 구해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 10 특히 더러운 욕망이 빠져 육체를 때리 신는 자들 죽임의 죽권을 입신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당당히 거만하여 거만한 입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문득합니다.

[필사자 : 이정혁 글씨]

[베리 들레 (2) 장 (11) 절]

- 11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어도 주님께 그들에게 대한 만족적인 판결을 주지 않으십니다.
- 12 그런데 그들은 상하 주된 것으로 태어난 지능없는 짐승과 같은 새들의 애매함도 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 13 이렇게 그들은 해악을 저지른 대로 해악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의 순간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느날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새들의 속살을 즐기는 너절한 저지른 자들입니다.
- 14 그들의 눈은 간음한 여자를 찾고 죄에 몰락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신자들이 유혹하고 마귀의 탐욕에 쫓겨 가는 그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 15 그들은 비록은 배고 고프던 길로 비참합니다. 반스의 아들 반리알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빛의 단비를 주시지만,
- 16 그 방법 때문에 책망을 받으십니다. 믿지 않는 나귀가 시냇물의 목마른 물을 하여 그 여인의 마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 17 그들은 물 없는 샘이며 목마에 믿지 않는 베리 안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짐은 많고 마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 18 그들은 신없이 큰리치며, 고프던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갖 받게는 이들을 육체 방탕한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 19 그들은 그 신자들에게 자위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굴복을 당한 신들은 굴복시킨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 20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이 세상의 타락에서 벗어나 그 신자들이 그것에 대해 마귀들이 굴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 21 외란의 길을 알면서도 새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어리 못하면 편이 나을 것입니다.

[필사자 : 이강희 2주]

[베르 두세 (2) 장 (22) 절]

22 “개는 저가 거만 더러 도둑이란다.” 그리고 “대개는 몸을 씻고 내내 내 건강에 득과.”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주님의 제갈

- 1 }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 이 두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순수한 정신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 2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분께 여러분의 시도들을 통하여 내리심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 3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권공인들이 내내 여러분을 존중하며,
- 4 “그분의 자리가 고난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 권공들이 세상을 떠날 때, 참으로 이제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할 것입니다.
- 5 이렇게 권공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여러분이 있어 있고 땅이 물에서 나온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 6 그때의 세상은 흥취에 잠겨 물론 멸망하였습니다.
- 7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이 타 없어질 때까지 같은 말씀으로 반문됩니다. 불경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까지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 8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을 간파하십시오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허락기 천년 같은 천년이 허락 같습니다.
- 9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빨리 기대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고 때문입니다.
- 10 그러나 주님의 남은 도둑처럼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새지고 원수들을 불이 타 쓰러지며,

[필사자 : 이교학 글씨]

[베르 들레 (3) 장 (10) 절]

- 또한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 11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진 터인데, 예레뵈은 이때 사들이 되어 하겠습니까.
거룩한 신성 깊은 생명을 하오시,
12 하느님의 능이 인를 기대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오 하지
안갓습니까. 그날이 인만 하늘은 불같이 되어 쓰러지고 원수들은
불이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 13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외로움이 기든 세 하늘과
세 땅은 기대고 있습니다.
-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레뵈, 예레뵈은 이러한 것들을 기대고 있어,
터 양과 흙 없는 사랑으로 포하리니 그분 앞에 내일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 15 그리고 우리 증인에게 출근 기대하는 것을 구원의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오로 형제께 하느님에게서 받은 자비에
따라 예레뵈에게 세 번씩 바쳐 갑니다.
- 16 사실 그는 모든 프라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더러 앞당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하고 마음이 착한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묵해하듯이 그것들도 묵해하이
쓰러진 면모를 볼 것입니다.
-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레뵈, 예레뵈은 이 사랑을 이미 알고 있어,
무법한 자들이 인에게 힘써서 복신을 앎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 18 그리고 우리의 증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께 대한 앎은 더욱더 값 높아지십시오. 이제만 영유하기 그분께
영광이 인를 받습니다. 아멘.



[필사자 : 이영희 들레]

제1차: 생명의 말씀

- 1 | 처음부터 앞서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 살펴본 우리가 손으로 만져 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 하려 합니다.
- 2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 3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끼지 않고 그
이드닐이 예수 그리스도인 나누는 것입니다.
- 4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사도록 이 글을 씁니다.

빛속에서 살기

- 5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 큰 하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 6 만일 우리가 하늘의 친교를 나누어 만민에게 어둠속에 살아가고
|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진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7 그러나 그분께 빛 속에 계신 것만큼 우리도 빛 속에 살아가고,
|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이드닐이신 예수님의
|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 깨끗하게 해 줍니다.
- 8 만일 우리가 죄 없게만 한다면, 우리는 지식을 속이는 것이
| 우리 안에 전라가 없는 것입니다.
- 9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게 의로우신 분이므로
| 우리의 죄로 용서하게 우리를 모든 복에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 10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처럼
| 믿는 것이 우리 안에 그분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필사자 : 이장혁 두끼]

- 1 2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2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은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사랑의 계명 준수

- 3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 4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 5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 6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 7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 온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 8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도 또 여러분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찬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9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 10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결정들이 없습니다.
- 11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필사자 : 원성재 가무디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 12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 13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 14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 15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 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 17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 18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 19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20 여러분은 거짓하신 분에게서 기쁨부음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필사자 : 윤선재 가우디아]

모두 알고 있습니다.

21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기쁨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시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22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아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23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도 모십니다.

24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25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26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과 관련하여 이 글을 씁니다.

27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부음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기름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28 그러나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화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실천

29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1 }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기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필사자 : 원선재 가우디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4 죄를 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5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6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뵈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7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8 죄를 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9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은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

11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악마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처럼 되어서는

[필사자 : 윤선재 가우디아]

[요한 1서 (3)장 (12)절]

안 됩니다. 그 무슨 까닭으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한 일은 악하고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13 그리고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여도 놀라지 마십시오.

14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15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16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17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달아 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18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1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22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23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필사자 : 유신재 가웬디아]

24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의 식별

1 4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3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4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5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사랑과 믿음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8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필사자 : 윤선재 가우디아]

[요한 1서 (4) 장 (9) 절]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10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13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14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15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무릅니다.

1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17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 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0 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필사자 : 윤신재 가우디아]

[요한 1서 (4) 장 (20) 절]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21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체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인 믿음

1 5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흠잡지 않습니다.

4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5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6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7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8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9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하여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10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에 관하여 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사자 : 윤신재 가우디아]

[요한 1서 (5) 장 (11) 절]

11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당신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2 아드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맺음말: 영원한 생명

13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드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지 그분께서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께 청한 것을 받는다 하는 것도 압니다.

16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7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18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께서 그를 지켜 주시어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19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20 또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오시어 우리에게 참되신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신 것도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21 자녀 여러분, 위상을 조심하십시오.

[필사자 : -윤선재 가웬디아]

요한의 둘째 서간

인사

- 1 | 1 원로인 내가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쁜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 2 | 이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
- 3 |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 4 |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 5 | 부인,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써 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 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 6 |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자들

- 7 |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 8 | 여러분은 우리가 위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믿지 않고 중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 9 |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 10 |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 이 가르침을 내놓지 않으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마십시오.
- 11 |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나쁜 행실에 동참하게 됩니다.

끝 인사

12 내가 그대들에게 쓸 말은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증대될 것입니다.

13 선택 받은 그대 재배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필사자 : 이승지, 김사리아]

요한의 셋째 서간

인사

- 1 | 원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 2 |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온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 3 | 형제 몇 사람이 와서 진리에 대한 그대의 충실성을, 곧 그대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언할 때에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 4 | 내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협력

- 5 |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영제들을 위하여, 특히 빛신 이들을 위하여 무슨 길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 6 |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늘님께 맞갖도록 그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7 |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교도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 8 |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오트레페스

- 9 | 나는 교회 회편자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대미는 늘어서기를 좋아하는 디오토레페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10 |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행성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자라, 그 영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이들에게도 방해하며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데데트리오스

- 11 |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보받지 말고 선을 보 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늘님께

[필사자 : 이승지 3사리아]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12 데메트리오스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권리 자체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증언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인사

13 내가 그대에게 쓸 말은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 싫어합니다.

14 그보다는 그대를 곧 만나게 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인복을 전합니다. 그곳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복을 전해 주십시오.

유다서간

인사

- 1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코브의 동생인 유다 부름을 받은 아들,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주시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 2 자비와 평화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

- 3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여러모로 애쓰던 참에, 성도들에게 단 한번 전해진 믿음을 취하여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 4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 5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해 내셨지만, 나중에 단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 6 자기 명명을 지키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한 천사들도 저 중대한 불에 심판하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 어둠 속에 가둬 두었습니다.
- 7 그들과 같은 식으로 불온을 저지르고 반대적인 욕망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나 그 주변 곳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분기가 되었습니다.
- 8 저 꿈꾸는 자들도 다윗까지도, 몸을 더럽히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 9 그러나 미카엘 대천사도 묘사의 주장을 붙고 악마나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독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하신 말하셨습니다.
- 10 저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다 모독하지만, 지각없는 짐승처럼 누구나 행으로 아는 것을, 바로 그것을 멸망하곤 합니다.
- 11 저들은 불행합니다! 카인의 길을 따라 걸었던 돌별이 때문에 발라암의 오류에 빠졌으며 고라처럼 반항하다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 12 겁도 없이 여러분과 잔치를 벌이면서 자만족받은 자들은 여러분의 애환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바람에 떠밀려 가 버리는 메마른 구멍이고, 늦가을까지 열매 하나 없이 두번이나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이며,
- 13 자자들의 수치스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물결이고, 깊은 암흑에 영원히 갇힌 떠돌이 별입니다.
- 14 자들을 두근 아담의 킨 대신 에벡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시어
- 15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마다 불쌍스럽게 자라는 모든 행위에 따라, 불쌍한 귀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자멸한 모든 무덤한 달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시라."
- 16 자들은 불평문이며 불완전의 자기목숨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잊속을 쟁기려고 사람들에게 이침하면서 입을로는 권리합니다.

권고

- 17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 18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쌍한 목숨에 따라 사는 권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 19 자들은 분말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경을 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 21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적인 생명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 22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 23 어떤 이들은 불에서 뜰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달라더러오긴 속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찬송

24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 많은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

25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